

2022 개정 교육과정

경기도교육감 인정


22-경기-61-초교-26-007



# 문해력

해답풀이

비엘비에듀

초 

# 문해력

해답풀이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

연도	교과서 사용자				상태
	학년	반	번호	이름	

• 상태 표시 예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비엘비에듀



# 이렇게 활용해요

## 시작하며

단원에서 다루는 독해 요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학습할지 알아봅니다.

**시작하며** 사실과 의견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한 시에서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 광고, 인터넷에는 사실과 의견이 뒤섞여 있어 걸러내 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두 요소를 구별하지 못하면, 정확한 정보 대신 잘못된 주장에 쉽게 끌려 갈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분별해 읽는 힘은 단순히 '구체적인 기술'이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비판적 문해력의 핵심 능력입니다. 어떤 글에서 사실이든 허위든 내용인지, 그 사실이 특정 의도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현상을 보는 눈도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 '이 정보는 근거가 확실한 사실인가?', '이 의견은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인가?', '사실과 의견의 연결이 타당한가?'를 스스로 질문하여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읽기 태도가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학문 탐구와 사회의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됩니다.

**사실과 의견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 사실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인 반면, 의견은 글쓴이가 특정한 생각이나 편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장과 의견 문장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를 소개합니다.

● 사건, 수치, 장소, 이름 등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  
사실은 기록, 자료, 정보, 통계 등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습니다', '잘못합니다' 등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인가?**

● 누구나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인 경우, 이는 주관적인 정보인 반면, 사실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인 것입니다.

**사건, 수치, 장소, 이름 등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

● 사실은 기록, 자료, 정보, 통계 등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습니다', '잘못합니다' 등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읽기 활동

단원의 학습 목표에 맞춰 글을 읽는 방법과 독해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웁니다.

**읽기 방법** 사실과 의견 · 차례대로 · 원인과 결과 '이렇게' 해요

● 읽기 전략: 그림, 사진, 질문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상해 보세요.

● 읽으면서: 글에서 주로 사실과 의견, 차례대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 읽어주세요.

● 읽고 나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활동, 사건을 차례대로 파악하는 활동,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활동을 해요.



## 글벗(글읽기 도우미)

글읽기 도우미 글벗의 도움말을 먼저 확인하고 학습을 시작합니다

## 활동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익히고 연습해서 문해력을 기릅니다.

**활동 3** 같이 읽기! **이름부터 보스카니니**

▶ 음악이 좋고 싫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활동 1** **같은 인물기**

▶ 사건의 원인을 파악할 때 보스카니니  
질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 보스카니니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질문: 보스카니니의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 보스카니니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질문: 보스카니니의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활동 2** **원인과 결과**

▶ 보스카니니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질문: 보스카니니의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활동 3** **원인과 결과**

▶ 보스카니니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질문: 보스카니니의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 마무리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며 정리합니다.

**마무리**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며 정리합니다.

●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며 정리합니다.

●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며 정리합니다.

●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며 정리합니다.

●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며 정리합니다.

●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며 정리합니다.

●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며 정리합니다.

# 차례

1 **사실과 의견 · 차례대로 · 원인과 결과** .....9

- 사실과 의견: 레오나르도 다빈치.....13
- 차례대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알래스카의 썰매견.....21
- 원인과 결과: 폼페이와 최후.....29
- 마무리: 나이아가라 폭포 .....38

2 **추론하기 · 중심 문장 · 중심 생각** .....41

- 추론하기: 무리의 힘 .....45
- 중심 문장 · 중심 생각: 투탕카멘왕의 무덤 .....55
- 중심 문장 · 중심 생각: 도시의 교통 문제.....63
- 마무리: 고대 도시.....72

3 **글의 구조**.....75

- 비교 대조 구조: 그리스와 로마 문화.....81
- 피라미드 구조: 미래를 여는 힘.....89
- 문제해결 구조: 어린이 당뇨병.....95
- 주장과 근거 구조: 멸종 위기의 백상아리.....101
- 마무리: 미래는 물 분쟁 시대.....109

4 **깊이 읽기 I** .....115

- 루스벨트의 긍정적인 꿈 키우기.....119
- 제인 구달.....125
- 아르투로 토스카니니.....131
- 조지아 오키프.....137
- 마무리: 긍정적인 꿈.....144

5 **깊이 읽기 II** .....149

- 하루하루가 마법: 서 아프리카 이야기 (갈등과 변화).....153
- 반쪽이: 보르네오 이야기 (인물).....161
- 이카로스 그리스 신화 (주제와 교훈).....169
- 립 반 윙클: 워싱턴 어빙의 단편소설 (공간과 시간 배경).....177
- 마무리: 오이디푸스와 스팅크스.....190



# 6

## 주제 학습: 정의와 사랑.....195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201  
 정의 저울과 공정의 추, 황새의 심판, 낙랑 공주와 호동 왕자.....205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임방 사또의 지혜(얼굴을 가린 죄인 판결하기).....214  
 20년 뒤(오 헨리 단편 소설).....223  
 1달러의 가치(오 헨리 단편 소설).....235  
 공평의 추, 사랑의 추.....246

발표 전시회  
 출처.....251  
 도움 자료.....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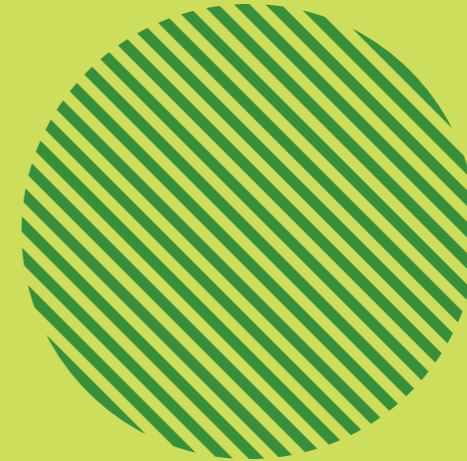
### 차시별 수업 이렇게

차시	내용	차시	내용
1차시	사실과 의견: 레오나르도 다빈치	17차시	깊이 읽기 I :04 조지아 오키프
2차시	차례대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알래스카의 썰매견	18차시	마무리: 긍정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 내 꿈은?
3차시	원인과 결과: 폼페이 최후	19차시	깊이 읽기 II : 01 이야기 구조 하루하루가 마법
4차시	마무리: 사실과 의견 차례대로, 원인과 결과 나이아가라 폭포	20차시	깊이 읽기 II : 02 이야기 구조 반쪽이
5차시	추론하기: 무리의 힘	21차시	깊이 읽기 II : 03 이야기 구조 이카로스 그리스 신화
6차시	중심 문장과 중심 생각: 투탕카멘왕의 무덤	22차시	깊이 읽기 II : 04 이야기 구조 립 반 윙클 단편 소설
7차시	중심 문장과 중심 생각: 도시의 교통 문제	23차시	마무리: 신화의 비유와 상징 오이디푸스와 스피нк스
8차시	마무리: 추론하기, 중심 문장, 중심 생각 고대 도시	24차시	주제 학습: 정의와 사랑: 정의의 여신, 정의의 저울, 낙랑 공주와 호동 왕자
9차시	비교 대조 구조: 그리스와 로마 문화	25차시	주제 학습: 임방 사또의 지혜, 토론하기
10차시	피라미드 구조: 어린이 당뇨병	26차시	주제 학습: 20년 뒤 -오 헨리 단편 소설
11차시	문제 해결 구조: 미래를 여는 힘	27차시	주제 학습: 1달러의 가치 -오 헨리 단편 소설
12차시	주장과 근거 구조: 멸종 위기의 백상아리	28차시	공평의 추, 사랑의 추 단원 통합 글쓰기
13차시	마무리: 비교 대조, 피라미드, 문제 해결 구조 미래는 물 분쟁의 시대	29차시	전시회 계획과 준비 역할 분담
14차시	깊이 읽기 I : 01 루스벨트의 긍정적인 꿈 키우기 실천법	30차시	전시회 작품 만들기
15차시	깊이 읽기 I : 02 제인 구달(동물 사랑과 꿈의 실천)	31차시	주제 학습 발표하기
16차시	깊이 읽기 I : 03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근시를 극복한 지휘자)	32차시	주제 학습 전시회 하기

\*『초6 문해력』은 총 6단원으로 32차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차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사실과 의견 차례대로 원인과 결과



시작하며

## 사실과 의견 무엇을 배울까요?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 광고, 인터넷 글에는 사실과 의견이 뒤섞여 있어 겉으로 보기에 모두 그럴듯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두 요소를 구별하지 못하면, 정확한 정보 대신 감정이나 주장에 쉽게 끌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 읽는 힘은 단순히 ‘구분하는 기술’이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비판적 문해력의 핵심 능력입니다. 어떤 글에서 사실이 충분히 검증된 내용인지, 그 사실이 특정 의견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현상을 보는 눈도 더욱 넓어집니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 ‘이 정보는 근거가 확인되는 사실인가?’, ‘이 의견은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인가?’, ‘사실과 의견의 연결이 타당한가?’를 스스로 질문하며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읽기 태도가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학문 탐구와 사회적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됩니다.

\* 사실과 의견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 사실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인 반면, 의견은 글쓴이가 특정한 생각이나 판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실 문장과 의견 문장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제시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3가지 판단 기준을 기억해 두면 글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❶ 누구나 확인해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사실은 관찰하거나 조사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는 정보입니다. 반대로,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나 평가가 달라지는 내용이라면 의견입니다.

❷ 시간, 수치, 장소처럼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가요?

사실은 기록, 자료, 실험, 관찰 등 증거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다,

①, ②, ③을  
 ● 기억하며  
 ● 글을 읽으면  
 ● 사실과 의견을  
 ● 잘 파악할 수  
 ● 있어요.

아름답다, 중심지이다’ 처럼 증명하기 어려운 평가적 표현이 들어가면 의견입니다.

❸ 평가, 느낌, 가치 판단이 들어 있나요?

‘최고이다, 훌륭하다, 필요하다, 아름답다’와 같은 단어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냅니다. 이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문장은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문장이 ‘~이다. ~였다.’로 끝나면 무조건 사실 문장인가요?

\* ‘~이다. ~였다.’로 끝나는 문장이 모두 사실 문장은 아닙니다. 문장의 내용에 위에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야 합니다.

① 레오나르도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였다.

② 레오나르도는 1492년에 길드에 가입했다.

①번 문장이 ‘~였다’로 끝났어도 ‘천재’라는 말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담긴 의견 문장이고, ②번 문장은 날짜와 사건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문장입니다.

## 차례대로 · 원인과 결과 무엇을 배울까요?

\* 어떤 사건이나 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전개됩니다. 특히 앞에서 일어난 일이 뒤의 사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사건이 발생한 순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차례**를 따라가며 읽으면 사건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글쓴이가 설명하려는 핵심 흐름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 글 속의 사건들은 서로 이유와 결과로 연결되어 전개됩니다. 원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나 조건이고, 결과는 그로 인해 나타난 변화나 상황입니다. 글을 읽을 때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함께 살피면,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더욱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 단원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과 업적을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사실을 토대로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배웁니다. 다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알래스카의 썰매견들’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차례를 정확히 파악하며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폼페이 최후’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당시 사람들이 겪은 상황을 깊이 있게 살핍니다.

읽기  
방법

사실과 의견 · 차례대로 ·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읽어요



읽기 전에:

그림, 사진, 질문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상해 보아요.



읽으면서:

글에서 주요 사실과 의견, 차례대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며 읽어요.



읽고나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활동, 사건을 차례대로 파악하는 활동,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활동을 해요.

활동  
1

사실과 의견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술과 과학을 잇다

- 사실과 의견을 파악하며 글을 이해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판화



그림과 글을 보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 최후의 만찬

▣ 글을 읽기 전에, 10~11쪽에 제시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3가지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아래 문장이 사실 문장인지 의견 문장인지 토의하고, ✓ 표시를 해 보세요.



레오나르도에 대한 문장	사실	의견
레오나르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다.		
그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	
레오나르도의 활동은 예술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예술과 과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 르네상스의 상징적 인물이다.		

10~11쪽의  
 ①, ②, ③을  
 기억하며 글을 읽기  
 전에 사실과 의견을  
 파악해 보고,  
 본문을 읽어오.



사실과 의견의 연결이 타당한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술과 과학을 잇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 조각가, 음악가, 발명가, 과학자, 엔지니어, 해부학자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이러한 폭넓은 업적 덕분에 그는 오늘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자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과 창의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452년 이탈리아 빈치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시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진 도시였던 피렌체로 옮겨가 예술과 공학을 배웠다. 그곳에서 그는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문하에서 훈련을 받았고, 1472년 피렌체 화가 길드에 가입하면서 젊은 화가로서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그는 젊은 시기부터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드러낸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레오나르도의 기술과 창작력은 곧 피렌체를 넘어 널리 알려졌고, 그는 밀라노 공국의 후원을 받으며 예술 활동을 이어 갔다. 이 시기에 그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 식당의 벽화인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에서 그는 예수를 중심에 두고 모든 선이 한 점으로 모이게 하는 정밀한 원근법을 사용하여 장면의 공간감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인물들을 대칭적으로 배치해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고, 제자들의 표정과 몸짓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더불어 제자들을 여러 소그룹으로 나누어 배열함

- ◆ 르네상스: 14~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예술·학문의 부흥 운동.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본받아 인간의 가치와 창의성을 중시했다.
- ◆ 길드: 중세 유럽의 직업별 협회. 화가, 상인, 장인 등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회원 자격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었다.
- ◆ 밀라노 공국: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북부에 있던 작은 나라로, 공작(군주)이 다스렸다. 지금의 이탈리아는 하나의 나라지만, 당시에는 여러 지역이 각각 독립된 나라처럼 존재했다.

로써 장면 전체의 리듬감을 살리고 이야기가 그림에 담겨 있는 듯한 효과를 주었다. 이러한 구도와 표현 방식은 레오나르도가 지닌 수학적 사고, 과학적 관찰 그리고 건축적 공간 이해가 회화 속에 융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덕분에 '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종교화를 넘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정신을 보여 주는 걸작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1499년경 레오나르도는 다시 피렌체로 돌아와 『모나리자』를 그렸다.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는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레오나르도는 스푸마토라는 특별한 기법을 사용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얼굴의 음영과 윤곽을 표현했다. 이 기법은 당시에는 매우 새로운 방식이었으며, 피부와 표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해부학 연구를 통해 인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얼굴과 손의 구조를 정밀하게 표현하고 빛의 방향과 반



▲ 모나리자 그림

사까지 고려해 그림에 생동감을 주었다. 또한 삼각형 구도를 사용하여 인물을 안정적으로 배치 함으로써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이런 예술적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모나리자』는 당시에 큰 주목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화 작품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모나리자』를 통해 레오나르도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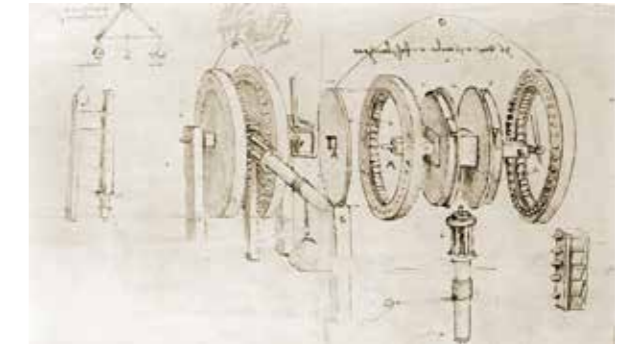
레오나르도의 활동은 단순히 예술 분야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과학, 공학, 인문학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연구를 진행했다. 15세기 말, 그는 비행기, 헬리콥터, 낙하산과 같은 비행 기계를 설계하고 스케치로 남겼다. 이는 당대 기술로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후 비행 기술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그는 인체 해부학 연구에 몰두해 수천 장의 해부 그림을 남겼으며, 이러한 연구는 당시 사람들의 인체 이해 수준을 크게 확장시킨 중요한 시도였다

는 평가를 받는다.

레오나르도는 도시 계획, 기계 설계, 광학, 물리학, 수학 등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그의 공책에는 자연 현상과 인간의 움직임에 이해하려는 관찰과 실험 기록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그가 예술가이자 과학적 탐구 정신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유를 잘 보여 준다.



▲ 얇은 은침으로 특수 종이에 선을 긋어 그리는 전통 기법으로, 남자의 근육과 뼈 구조를 표현한 초기 해부 스케치



▲ 펜과 잉크, 얇은 은침을 병용해서 힘과 운동을 다방향으로 전달하는 유성기어 장치를 정밀하게 표현한 레오나르도의 스케치

레오나르도는 예술과 과학을 융합함으로써 당시 누구보다 독창적인 창의력을 발휘했다. 그는 회화 기법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프레스코와 템페라 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시도했다. 비록 템페라 기법으로 그려진 작품은 시간이 흐르면서 보존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예술적 아름다움과 과학적 호기심을 동시에 추구하려 한 그의 독창성을 드러낸다. 그의 활동은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방식으로 탐구하려 했던 흐름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말년에 그는 프랑수아 1세 왕의 초청으로 프랑스에 머물렀고, 1519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그가 남긴 작품과 연구 기록은 오늘날에도 예술과 과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의 탐구 정신은 후대 예술가와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하는 자극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과 과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 르네상스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된다.

- ◆ 스푸마토: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전시킨 회화 기법으로 색과 명암의 경계를 부드럽게 흐려서 연기처럼 아련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표현 방식을 말한다.
- ◆ 프레스코 기법: 젖은 석회 벽에 그려 안료가 벽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벽화 기법
- ◆ 템페라 기법: 안료와 바인더를 섞어 표면에 칠하는 빠른 건조성의 회화 기법

**1** 첫 문단의 문장을 사실 문장과 의견 문장으로 구별해서 쓰고 그 이유를 써 봅시다.

	사실 문장	의견 문장
첫 문단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 조각가, 음악가, 발명가, 과학자, 엔지니어, 해부학자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이러한 폭넓은 업적 덕분에 오늘날 역사상 <u>가장 위대한 예술가</u> 이자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과 창의성을 <u>대표하는 인물</u> 로 평가된다.
이유	<p><b>[사실 문장인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록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li> <li>② 누구나 같은 자료를 보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li> <li>③ 평가나 감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10~11쪽의 ①, ②, ③을 근거로 의견 문장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p> </div>	<p><b>[의견 문장인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gt; ① ‘가장 위대한’은 평가·가치 판단으로 이 표현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평가적 표현이다.</li> <li>&gt;&gt;&gt; ②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 인물’인지는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판단이다.</li> <li>&gt;&gt;&gt; ③ ‘평가된다’는 말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이라기보다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li> </ul>

▣ 다음 문장이 사실 문장인지 의견 문장인지 써 넣고, 각 문장이 왜 사실 문장이고 의견 문장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1472년 피렌체 화가 길드에 가입하면서 젊은 화가로서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 <b>사실 문장</b>
그는 젊은 시기부터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드러낸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 <b>의견 문장</b>

**사실 문장인 이유**

>>> 1472년(연도), 피렌체(장소), 화가 길드(기관)처럼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구체적 정보가 들어 있고,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표현도 감정적 평가가 아니라 ‘길드 가입 = 공식 인정’이라는 역사적 절차를 설명하는 사실에 기반한 문장이다. 이 과정은 실제 역사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사실 문장이다.

**의견 문장인 이유**

>>> ‘이해할 수 있다’는 글쓴이가 판단하여 해석을 덧붙인 표현이다. 이 문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시된 여러 사실들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내린 해석과 판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견 문장이다.

2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과 과학을 융합하여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했다.'는 주제로 글쓰기를 해 봅시다.

주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과 과학을 융합하여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했다.

의견: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써 보세요.  
 사실 근거: 글에서 근거가 될 만한 사실을 2~3가지 골라 적으세요.  
 의견: 주제에 대한 내 의견을 명확히 써 보세요.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의견을 정리하여 글을 써 보세요.

의견 주장

>>>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과 과학을 융합하여 독창적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사실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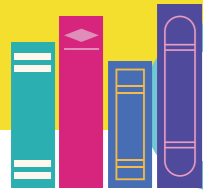
그는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를 비롯해 회화, 조각,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또한 비행기, 헬리콥터, 낙하산과 같은 비행 기계를 설계하는 등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인체 해부학을 연구하여 수천 장의 세밀한 그림과 노트를 남기고 당시 사람들의 인체에 대한 이해를 크게 넓혔다.

의견 추론

이처럼 레오나르도는 예술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과학적 탐구와 기술적 혁신을 함께 추구했음을 보여 준다. 그의 예술 작품은 깊은 심리 표현과 혁신적 구성으로 예술적 가치를 높였으며, 과학적 연구와 발명은 후대 기술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과 과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 르네상스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된다.

CER 글쓰기를 해 보세요.

Claim (의견 주장): 주제를 자신의 말로 명확히 써 보세요.  
 Evidence (사실 근거): 글에서 근거가 될 만한 사실을 2~3가지 골라 적으세요.  
 Reasoning (의견 추론): 그 근거들이 주장(의견)을 지지하는 이유 설명해 보세요.



지도와 사진 그리고 글을 보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 혈청을 운반한 노선도



▲ 썰매견의 역할과 배치

선도견: 맨 앞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명령에 따라 전체 팀을 이끄는 견.

보조 선도견: 선도견 바로 뒤에서 선도견이 방향을 바꿀 때 팀 전체가 안정적으로 방향을 틀도록 돕는 견.

중간견: 속도 유지를 하고 전체 힘의 중심이 되는 견.

바퀴견: 썰매 바로 앞, 팀에서 맨 뒤쪽에서 썰매를 처음 끌어올릴 때 힘을 많이 쓰며 좁은 길이나 코너를 돌 때 썰매가 뒤집히지 않게 안정을 유지하는 견.

머셔(musher): 개들이 끄는 썰매를 조종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개들을 사육하고 조련하는 사람.



일이 일어난 차례를 파악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수많은 생명을 구한 알래스카의 썰매견

1925년 1월 어느 날 알래스카 서쪽 끝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노움의 의사 웰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디프테리아가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닐지 의심되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가지고 있던 항독소 혈청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 노움에는 3,000명이 살고 있었고, 주변 마을에는 알래스카 원주민이 많이 살았다. 디프테리아가 퍼지면 병에 저항력이 약한 원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웰치는 노움의 시장에게 이 사태를 알렸고, 시장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 보건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제는 혈청을 어떻게 운반하느냐였다. 항구들은 얼어붙어 배가 움직일 수 없었고, 1925년 알래스카에서 운항되던 유일한 비행기는 구형 복엽기 세 대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조정석에 투명 덮개가 없어서 혹한 속에서는 비행이 거의 불가능했다. 결국 혈청을 개 썰매로 운반하기로 결정했다. 국립 보건원에서 혈청을 보내려고 하던 바로 그때, 마침 앵커리지에 혈청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개 썰매 릴레이 작전이 시작되었다. 혈청을 기차로 앵커리지에서 네나나까지 보내고, 그곳에서부터 노움까지 여러 개 썰매 팀을 이용해 이어 달리며 운반하기로 했다. 네나나에서 노움까지는 1,085km에 이르는데, 네나나의 우편 운반대가 혈청을 싣고 출발하면 노움의 개 썰매팀이 중간 지점인 놀라토에서 이어 받아오기로 했다. 이 전체 릴레이에는 약 20명의 머셔와 150여 마리의 썰매견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참여했다. 이 중에서 특히 위험한 구간은 노련한 몇 명의 머셔가 맡았다. 당시 날씨는 20년 만에 찾아온 영하 46℃의 혹한이었고, 시속 40km의 강풍과 폭설이 이어져 눈은 이미 3m까지 쌓였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과연 개 썰

◆ 혈청: 혈액에서 응고된 피를 제거한 맑은 노란빛 액체. 항체 등 면역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혈청을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의 환자에게 주사하여 치료하는 데에 쓰인다.

매 팀이 이 임무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노움에는 노련한 머셔인 세팔라가 있었는데, 알래스카에서 열린 개 썰매 경주에서 세 번이나 우승한 경력이 있었다. 그는 노움에서 놀라토까지 왕복 구간을 맡고, 특히 베링해의 얼음이 움직이는 가장 위험한 구간을 책임지기로 했다. 그에게는 '토고'라는 아주 똑똑한 선도견이 있었다. 세팔라는 네나나에서 혈청이 출발하는 시간에 맞추어 노움에서 미리 출발하면, 놀라토에서 네나나 팀과 정확히 만나 혈청을 넘겨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월 27일 밤 9시, '야생의 빌'이라 불리던 우편 운반대의 머셔 사년이 썰매에 혈청을 싣고 9마리의 개들과 함께 긴 여정에 올랐다. 그는 얼어붙은 강을 달리다 개 한 마리를 잃고 저체온증에 걸리는 등 심한 고난을 겪었다.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출발하려 했을 때는 세 마리가 더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그동안 노움의 세팔라는 폭풍과 눈보라를 뚫고 놀라토를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아직도 한참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하던 순간, 눈보라 속에서 '혈청! 여기 있어!'라는 외침이 들렸다. 네나나 팀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서 놀라토를 지나친 것이다. 세팔라는 혈청을 넘겨받고 즉시 가장 위험한 얼음 구간을 32km나 건너야 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얼음 구간에서는 선도견 토고의 방향 감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시속 105km의 강풍을 뚫고 나와 잠시 눈을 감았다 떠보니, 그가 건넌 얼음은 모두 바다로 쓸려가 사라졌었다. 실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마지막 구간은 카센이 이끄는 개 썰매 팀이 맡았다. 그는 강풍과 폭설 때문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달려야 했고, 중간에는 썰매가 뒤집혀 혈청 병이 눈 속에 묻히는 사고도 겪었다. 급한 김에 맨손으로 눈 속을 헤집고 모두 찾아냈지만, 그만 카센은 동상에 걸리고 말았다.

2월 2일 새벽 5시 30분, 드디어 혈청이 노움에 도착했다. 혈청이 네나나를 떠난 지 5일 7시간 반 만이었다. 혈청을 담은 병 하나 깨진 것이 없었다. 혈청은 곧바로 해동되어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동안 환자가 28명이나 늘어났

지만 혈청 덕분에 다행히 모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약 20명의 머셔와 150여 마리의 썰매견이 힘을 모은 개 썰매의 릴레이 대작전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났다.

혈청을 운반하는 개 썰매 릴레이는 미국 전역에서 온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한 신문기자가 '모든 희망은 개들과 그들의 영웅적인 머셔들에게 있다. 노움은 버려진 도시처럼 보인다.'라고 쓰자, 전국의 신문과 라디오에서 보도가 넘쳤다. 개 썰매 릴레이가 무사히 성공하자 미국 대통령은 릴레이 주자들에게 표창장을 보냈다. 마지막 주자였던 카센과 선도견 발토는 전국을 돌며 찬사를 들었고 영화에도 출연했다. 가장 용감했던 세팔라와 선도견 토고도 전국을 돌며 환호받았고 맨해튼에서 공연도 했다. 발토는 뉴욕 센트럴 파크에 동상이 세워졌으며, 토고는 북극탐험가 아문센으로부터 금메달을 받기도 했다.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1925년의 '혈청 달리기'는 혈청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했을 뿐 아니라, 알래스카의 고유문화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에 스노모빌이 등장하자 전통적인 개 썰매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알래스카의 향토 사학자 도로시 페이지는 개 썰매 경주를 역사적인 기념행사로 기획하였다. 그녀는 앵커리지에서 노움까지를 경주 경로로 설정하고, 1973년부터 장거리 경주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현재까지 매년 열리고 있다.



▲ 발토와 카센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에 세워진 발토 동상



▲ 토고와 세팔라의 여섯 마리 썰매견

1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면 '수많은 생명을 구한 알래스카의 썰매견'에 대한 질문에 답해 봅시다.

▣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위기 발생 → 해결 시도 → 고난 → 성공 → 영향'의 구조로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 위기 발생

>>> 노움의 웰치 의사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디프테리아가 퍼지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가지고 있던 혈청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었다. 디프테리아가 퍼지면 병에 약한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 해결 시도

>>> 노움의 시장은 국립 보건원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고, 배와 비행기 모두 사용할 수 없는 혹한의 상황에서 혈청을 개 썰매 릴레이로 운반하기로 결정했다. 앵커리지의 병원에서 혈청을 찾아 기차로 네나나까지 보내고, 그 이후 구간은 여러 썰매 팀이 릴레이로 운반하기로 계획되었다.

### 고난

>>> 혈청 릴레이의 첫 주자인 샤넌은 영하 46℃의 혹한 속에서 얼어붙은 강을 달리며 개 여러 마리를 잃고 저체온증에 걸리는 고난을 겪었다. 이어 세팔라는 폭풍과 눈보라 속에서 혈청을 넘겨받아, 얼음이 갈라지는 베링해의 가장 위험한 32km 구

간을 토고와 함께 건너야 했다. 마지막 주자인 카센은 강풍과 폭설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달리던 중 썰매가 뒤집혀 혈청을 잃을 뻔했고, 이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동상까지 입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세 머서는 각자 맡은 구간에서 극한의 자연환경과 싸우며 혈청을 지켜냈다.

### 성공

>>> 수많은 위험을 뚫고 달린 끝에, 혈청은 네나나에서 출발한 지 5일 7시간 반 만에 노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혈청 병은 단 하나도 깨지지 않았고, 곧바로 해동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되었다.

### 영향

>>> 환자 28명 모두가 생명을 구했고, 미국 전역은 릴레이 주자들과 썰매견들의 용기와 희생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 사건은 알래스카의 전통 개 썰매 문화의 가치를 다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 훗날 '아이디타로드'라는 장거리 개 썰매 경주가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 혈청이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하여, 사건을 차레대로 써 보세요.

>>> 혈청은 앵커리지에서 먼저 확보되어 기차로 네나나까지 운반되었다. 네나나에 도착한 혈청은 첫 번째 주자인 샤넌이 개 썰매에 싣고 혹한 속에서 출발하면서 본격적인 릴레이가 시작되었다. 이후 혈청은 놀라토 근처에서 세팔라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폭풍과 눈보라를 뚫고 가장 위험한 베링해 얼음 구간 32km를 토고와 함께 건너며 다음 지점으로 옮겼다. 마지막으로 카센이 얼음과 폭설 속을 달려 혈청을 노움까지 운반함으로써, 전체 릴레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혈청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토고와 발토가 이끈 썰매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써 보세요.

>>> 혈청을 운반하는 동안 썰매견들은 토고와 발토가 이끈 썰매견들은 영하 40도 안팎의 혹독한 추위와 시속 100 km가 넘는 강풍, 눈보라 속에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달려야 했으며, 특히 토고가 이끄는 팀은 갈라지고 떠나려가는 베링해 얼음을 건너다가 조금만 늦었어도 얼음이 모두 바다로 쓸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발토가 이끈 마지막 구간의 썰매견들은 눈과 강풍으로 인해 길을 잃을 만큼 시야가 나쁜 가운데 달렸고, 거센 바람에 썰매가 뒤집혀 혈청이 눈 속에 파묻히는 사고까지 겪어, 이를 찾아내는 동안 머서는 맨손으로 눈을 파헤치다가 동상에 걸릴 정도로 극심한 추위와 위험 속에서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텃빈 폼페이 유적지



문단의 첫 문장만 훑어 읽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폼페이는 로마제국의 중요한 도시로 600년 이상을 번성하였다. 남부 이탈리아의 나폴리 만에 위치한 폼페이는 날씨가 좋고 경치도 아름다워서 로마의 부호들이 별장을 지으려고 몰려든 곳이었다. 활기차고 ~~~~~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갑작스럽게 폭발했고, 하늘에서 비 오듯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은 순식간에 폼페이를 뒤덮어 버렸다. 아름다운 도시는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졌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

역사에서 사라졌던 폼페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592년이다. 수로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유적이 발견되었다. 폼페이의 유적이 발견되었지만, 당시에는 폼페이인지 몰랐고 또한 발견된 유적도 비밀에 부쳐졌다. 1748년에 발굴 ~~~~~

1861년에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폼페이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통일 후 이탈리아 왕국은 폼페이가 위치한 지역을 국가 소유로 편입하고, 약 700명의 작업자를 동원하여 본격적인 발굴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

그 뒤에도 폼페이 발굴은 계속되었다. 현재는 80% 정도 옛 모습을 드러낸 상태이다. 이곳에서 나온 많은 출토품은 현재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유적과 유물들 덕분에 현재 사람들은 ~~~~~

고고학자들은 폼페이 유적의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 우려해 왔다. 여러 재단이 유적 보존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폼페이는 규모가 크고 문제도 복잡해 훼손을 막기 쉽지 않았다. 2013년에는 유네스코가 폼페이가 '위기의 세계유산' 목록에 ~~~~~

**Skimming 읽기:**  
읽기 전에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먼저 읽고 글을 읽으면 집중해서 읽게 되고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257쪽 '도움 자료 1' 책갈피를 열어 주세요. 책갈피에 적힌 원인과 결과 질문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밑줄을 긋고 자기 생각을 책에 적어 가며 글을 읽어 봅시다.

### 폼페이의 최후

폼페이는 로마제국의 중요한 도시로서 600년 이상 번성하였던 이탈리아의 나폴리만 연안에 있는 폼페이는 날씨가 좋고 경치도 아름다워서 로마의 부호들이 별장을 지으려고 몰려들던 곳이었다. 활기차고 아름다운 도시로 인구 규모가 1~2만 명이나 되었고, 거리에는 상점과 집,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품이 즐비했다. 시민들은 야외 공연장과 공중목욕탕을 즐겨 찾았다. 폼페이의 도시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가까이에 베수비오 화산이 있는 것이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갑작스럽게 폭발했고,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은 순식간에 폼페이를 뒤덮어 버렸다. 아름다운 도시는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졌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은 이미 화산석 밑에 폼페이가 묻혀 있었고, 깊이는 4m에서 10m 정도였다. 화산의 폭발로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화산석이 폼페이를 덮었고, 경관은 크게 바뀌었다. 한때 항구 도시였던 폼페이는 항구 기능을 잃고, 지금은 바다로부터 떨어져 있다. 많은 사람이 이 대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바위나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죽기도 했고, 화산에서 내뿜는 독가스에 질식사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도시 폼페이는 영원히 사라졌다.

**폼페이의 최후**  
**-원인과 결과 질문-**

1. 폼페이가 번성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요?
2. 베수비오 화산 폭발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3. 폼페이가 다시 발견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4.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문제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5. 왜 보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나요?



역사에서 사라졌던 폼페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592년이였다. 수로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유적이 발견되었다. 폼페이의 유적이 발견되었지만, 당시에는 이곳이 폼페이인지 몰랐고 발견된 유적들도 비밀에 부쳐졌다. 1748년에 발굴이 시작되자 땅속에서 집들과 음식물, 그리고 한때 공포 속에서 허둥댔던 폼페이 시민들의 모습들도 나왔다. 광장, 목욕탕, 원형극장, 약국 등 여러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발굴이 계속되면서 1763년 8월 20일에 ‘폼페이 시민의 공화국’이라는 비문이 발견되었고, 마침내 이 도시가 폼페이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1861년에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폼페이의 모습은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통일 후 이탈리아 왕국은 폼페이가 위치한 지역을 국가 소유로 편입하고, 약 700명의 작업자를 동원하여 본격적인 발굴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탈리아 국왕 빅토르 에마누엘 2세는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를 발굴 대장으로 임명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굴했다. 피오렐리는 도시를 9개 지역으로 나누어 발굴했고, 발견되는 개별 주택마다 번호를 매겼다. 발굴 보고서를 담은 정기 간행물도 발행하여,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수리와 보존이 함께 이루어졌다. 발굴단은 층층이 쌓여 있는 잿더미의 공간에 석고를 부어 넣어서 당시에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해 내기도 했다.

그 뒤에도 폼페이 발굴은 계속되었고, 현재는 80% 정도 옛 모습을 드러낸 상태이다. 이곳에서 나온 많은 출토품은 현재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에



▲ 베수비오 화산이 보이는 폼페이 유적지



▲ 폼페이 유적지의 유물

소장되어 있다. 이 유적과 유물들 덕분에 현재 사람들은 폼페이 시민의 생활 모습과 화산 폭발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발굴된 유적의 보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폼페이에 묻혀 있던 유물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이는 땅속에 공기와 습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굴되면서 급속도로 훼손되었다. 풍화, 침식, 햇빛, 부적절한 발굴과 복원 방법, 외래 식물과 동물, 관광객, 기물 파손 및 도둑질이 모두 유적에 손상을 끼쳤다.

고고학자들은 폼페이 유적의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 우려해 왔다. 여러 재단이 유적 보존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폼페이는 규모가 크고 문제도 복잡해 훼손을 막기 쉽지 않았다. 2013년에는 유네스코가 폼페이가 ‘위기의 세계유산’ 목록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유럽연합은 ‘그랑데 프로젝트 폼페이’라는 대형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후 폼페이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해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



▲ 폼페이 유적에서 발굴된 생활용 토기와 석고로 재현한 인체 모형

1 '원인과 결과' 질문에 답해 봅시다.

01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 결과 폼페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근처에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79년에 갑자기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돌이 비처럼 쏟아졌고, 그 결과 도시 전체가 4~6m 아래에 묻혀 대규모 인명 피해와 함께 폼페이는 완전히 사라졌다.

02 폼페이가 2,000년 동안 잘 보존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며, 발굴된 후 훼손이 심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폼페이는 땅속에 공기와 습기가 거의 없는 상태로 묻혀 있어 오랜 세월 잘 보존되었지만, 발굴 이후 햇빛·바람·습기·관광객·부적절한 복원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서 급격히 훼손되었다.

03 18세기와 19세기 발굴 과정에서 사용된 '과학적 발굴 방법'이 폼페이를 보호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써 보세요.

>>> 피오렐리가 도시를 구역으로 나누고 집마다 번호를 붙이는 등 체계적인 발굴 방식을 도입하자 유물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었고, 석고 주입법을 활용해 당시 시민들의 모습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04 폼페이 유적이 '비밀에 부처졌다'는 사실의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정리해 보세요.

>>> 폼페이 유적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도시의 유적인지 알지 못했다. 또한 발견 사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긴 기간 동안 유적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 결과 오랫동안 체계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폼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200년 가까이 늦어지게 되었다.

05 폼페이가 갑자기 완전히 사라진 사건과 다시 모습을 드러낸 사건을 원인과 결과에 맞게 설명해 보세요.

>>>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는 갑자기 한 순간에 완전히 매몰되었고, 그 결과 도시가 수백 년 동안 잠쪽 같이 사라졌다 다시 발견될 때는 1592년 수도 공사 중 우연히 발견 되었는데 갑자기 한 순간에 사라져 버렸을 때와 달리 오랜세월 뒤에 1748년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고 1763년에 '폼페이 시민 공화국'이라는 비문이 발견되어 공식적으로 폼페이 도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06 발굴이 계속되면서 유적 훼손 문제가 커진 원인을 두 가지 이상 찾아 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서술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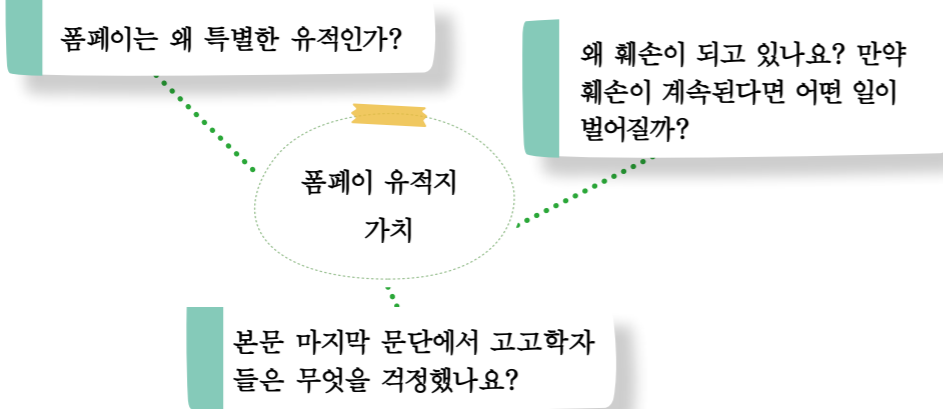
>>> 유적은 발굴 이후 풍화, 침식, 관광객 부적절한 보존 등 여러 원인 때문에 심하게 훼손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경고 후 '그랑데 프로젝트 폼페이'가 시작되어 국제적 보존 활동이 강화되었다.

2 폼페이 유적지를 왜 보존해야 하는지 '원인과 결과' 구조로 글을 써 봅시다.

😊 제목은 각자 다양하게 중심 생각이 들어나게 제목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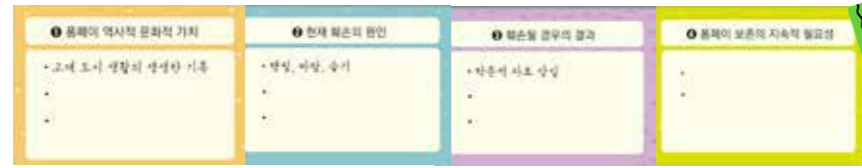
이렇게 해요

1 모둠을 구성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2 개별학습: 각자 257쪽의 '도움 자료 2' 카드에

- ①번 카드: 서론(폼페이 유적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 ②번 카드: 본론 1(현재 훼손의 원인)을
- ③번 카드: 본론 2(훼손될 경우의 결과)를
- ④번 카드: 결론(폼페이 보존의 지속적 필요성)을 써요.



3 소집단 학습: A3용지에 '서론-본론 1(원인)-본론 2(결과)-결론' 으로 칸을 나누어서 모둠원이 각자 쓴 카드를 모아 분류해요.

4 각 칸에 있는 카드를 종합해서 내용을 정리해요.

5 '서론-본론-결론'의 틀로 다시 짜 보아요.

- 서론: 폼페이는 특별한 유적인가?(가치와 의미)
- 본론: 훼손이 일어나는 원인 + 그 결과
- 결론: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한 조치

6 37쪽에 글을 써보세요.

서론

제목: 폼페이는 로마 시대의 도시 생활을 온전히 보여 주는 매우 특별한 유적이다. 상점과 목욕탕, 공연장, 집터 등 고대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 보존하는 것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필수 과제이다. 유적 발굴 이후 급속한 훼손이 진행되면서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론 원인

폼페이 유적의 훼손은 주로 발굴 후 노출된 환경적·인위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무려 2천 년간 땅속에서 공기와 습기가 차단된 상태로 보존되었던 유적들은 발굴되자마자 풍화, 침식, 햇빛 노출에 취약해졌으며, 부적절한 발굴 및 복원 방법, 외래 식물·동물의 침입, 관광객의 기물 파손과 도둑질까지 겹치면서 손상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원인들은 폼페이의 독특한 보존 방법인 잿더미 속 밀폐 상태가 깨진 데 따른 필연적 결과로, 과학적 발굴 초기부터 예견된 문제였다.

본론 결과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결과는 유적의 실질적 파괴와 문화적 손실로 나타난다. 현재 발굴된 유적의 80%가 훼손 위험에 처해 있으며,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된 출토품마저 위협받고 있다. 2013년 유네스코의 '위기의 세계유산' 경고처럼, 방치 시 폼페이는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고대 시민의 일상과 베수비오 대폭발 당시 공포의 순간을 생생히 증언하던 역사적 기록을 잃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폼페이 유적 보존은 단순한 유물 보호를 넘어 로마 제국의 번영과 멸망을 증언하는 인류 보편적 유산을 지키는 일이다. '그랑데 프로젝트 폼페이' 같은 프로젝트와 지속적 국제 협력을 통해 원인을 제거하고 결과를 최소화함으로써, 후세대가 고대 도시의 생생한 모습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무리

● 1단원을 마무리 지어 봅시다.

▣ '나이아가라 폭포'를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 ①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중 하나이다. 폭포의 일부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나머지는 미국 뉴욕 주에 걸쳐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온타리오 호와 이리 호를 연결하는 나이아가라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다. 폭포는 강의 중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분당 약 50만 톤의 물이 깊은 협곡으로 쏟아진다.
- ② 과학자들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이 지역에서 빙상이 물러난 뒤 형성되었다고 추정한다. 빙하는 지표면의 모습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수로와 하천이 생겼다. 그 결과, 이리 호의 물이 범람하여 나이아가라 폭포가 만들어졌다. 과학자들은 이 폭포의 나이가 약 2만 년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 ③ 나이아가라 폭포는 단단한 백운석 석회암층 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부드러운 세일층이 깔려 있다. 세일은 석회암보다 잘 깎여 나가기 때문에, 단단한 석회암층이 가장자리에서 돌출된 형태를 이룬다. 이런 구조 덕분에 폭포는 날카로운 경사로 곧게 떨어지며 장관을 만들어 낸다.
- ④ 오랜 세월 동안 폭포의 외층은 때때로 무너져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이러한 침식 작용으로 인해 폭포의 가장자리는 점차 강의 상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침식 속도는 폭포마다 차이가 있는데, 미국 폭포에서는 매년 약 7.5~18cm 정도, 호스슈 폭포에서는 매년 약 90cm 정도 깎이고 있다.
- 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에게 놀라운 볼거리를 제공해 왔다. 관광객들은 폭포 위쪽 전망대에서 장엄한 경관을 내려다보거나, 폭포 뒤편의 '바람의 동굴'이라 불리는 특별 구역에서 폭포의 웅장함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다. 밤이 되면 폭포 전체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 장관을 이룬다. '안개 아가씨호'라는 증기선은 관광객을 태우고 폭포 아래를 유람하며, 눈부신 물안개 속으로 사람들을 안내한다.
- ⑥ 또한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자신의 용기와 모험심을 시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였다. 1859년에 찰스 블론딘은 줄타기를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건넜다. 나흘 뒤, 그는 눈가리개를 한 채 다시 폭포를 건넜다. 한 달 후에는 어깨에 사람을 업고 세 번째 도전을 했으며, 그 후에는 죽마를 타고 또다시 폭포위를 건넜다. 이러한 찰스 블론딘의 줄타기 도전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놀라움과 감동을 주었다.

▣ 의견 문장을 모두 찾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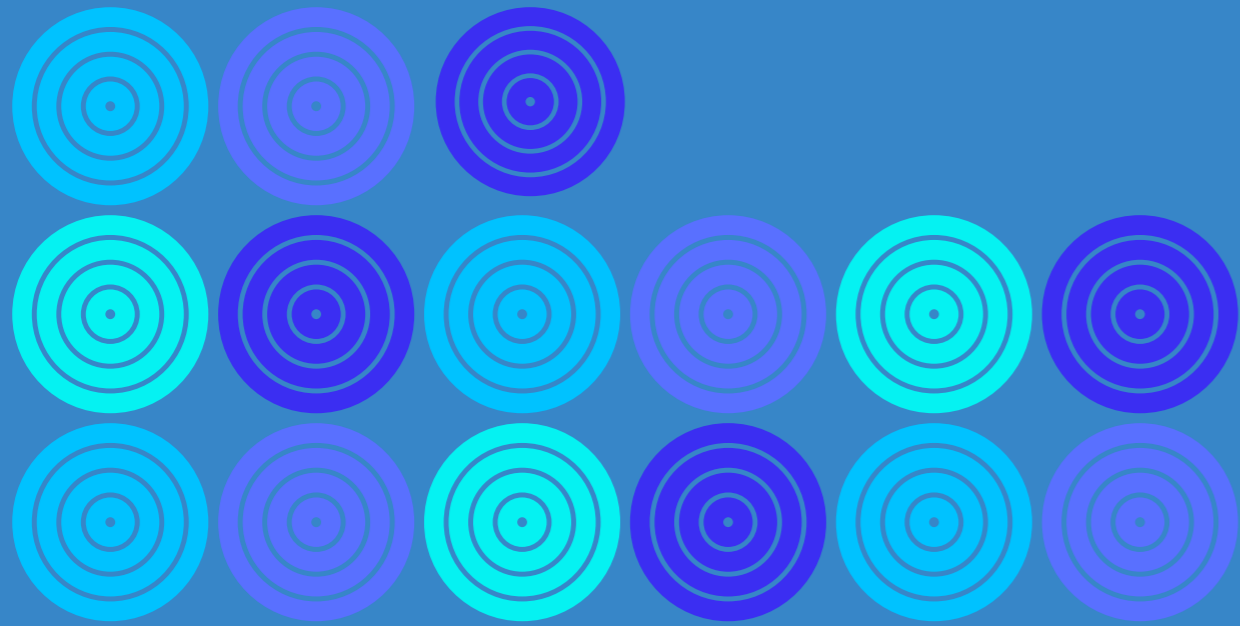
- >>> ①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중 하나이다.
- >>> ② 과학자들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이 지역에서 빙상이 물러난 뒤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 >>> ③ 찰스 블론딘의 줄타기 도전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주었다.

▣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번호를 써 보세요.

- 빙상이 물러난 뒤 새로운 수로가 생기며 나이아가라 폭포가 형성되었다. 1
- 침식 작용으로 폭포의 가장자리가 매년 조금씩 상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3
- 폭포의 단단한 석회암층 아래 세일층이 깎여 나가며 폭포의 경사가 만들어졌다. 2

▣ ③~④ 문단을 읽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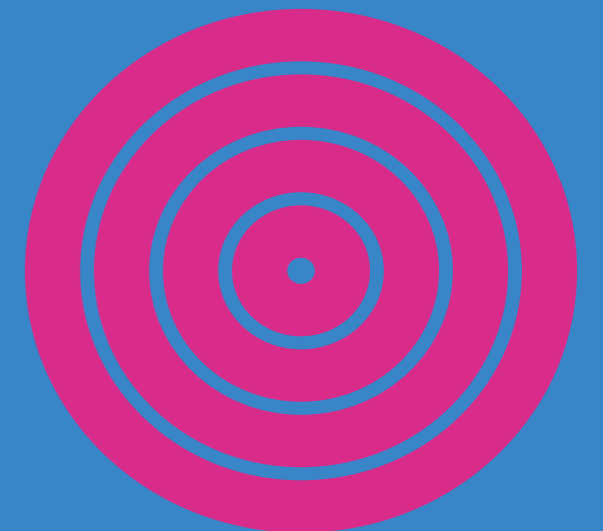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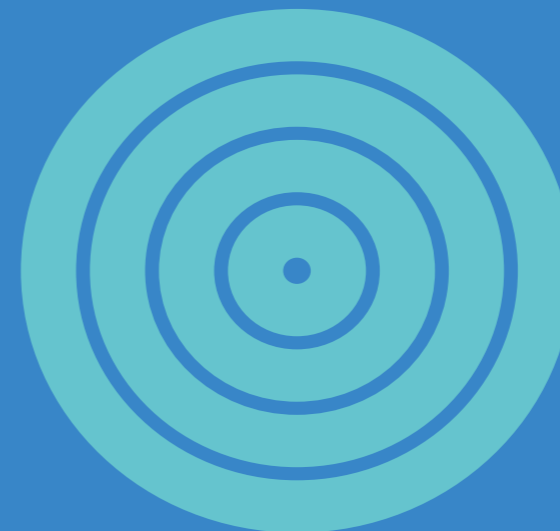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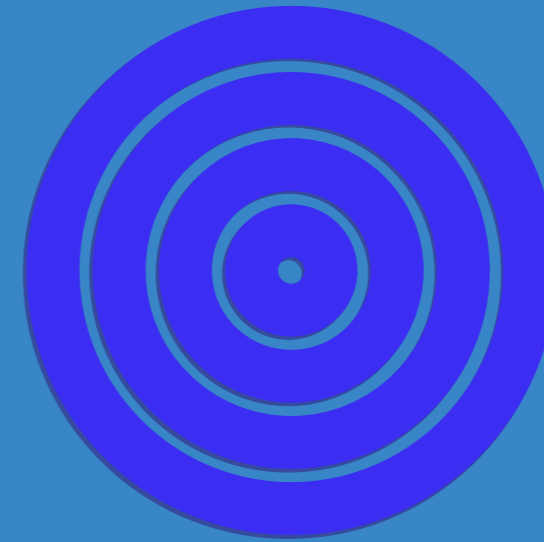
>>> 폭포 아래의 부드러운 세일층이 단단한 석회암층보다 빠르게 깎여 나간 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 폭포의 가장자리가 점점 상류 방향으로 이동한다.



추론하기

중심 문장

중심 생각



추론하기 · 중심 문장 · 중심 생각 무엇을 배울까요?



잘 정리한 약초



약초를 보관하는 가죽 주머니

인디언 약사는 자연에서 답을 찾는 지혜로운 치유자였다. 인디언에게 약은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지식과 전통적 문화가 담긴 특별한 비법이였다. 약사들은 따끔따끔한 물푸레나무 껍질, 인삼, 송진, 노루발풀 같은 약초를 찾아 오랫동안 산과 들을 걸으며 자연의 변화를 살폈다. 그들은 약초를 캐기 전에 산신령에게 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치렀으며, 약초를 함부로 다루거나 서둘러 모으는 법이 없었다. 채취 과정에서는 불과 향을 피우고 노래를 부르며 정성을 다했고, 이렇게 얻은 약초는 잘 말려 알맞게 썰어 특별한 가죽 주머니에 저장했다. 약초를 다루는 일은 허락받은 소수에게만 맡겨질 만큼 중요했다.

약초는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는 데 널리 쓰였다. 약초마다 효능은 달랐는데, 물푸레나무 껍질은 감기와 발열을 가라앉히는 데, 노루발풀과 느릅나무 잎은 위장병 치료에, 월계수 뿌리는 벌레에 쏘인 부위를 낫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

\* 이 글을 자세히 읽어 보면, 인디언 약사는 단순히 약초를 캐는 사람이 아니라 약초의 효능을 잘 알고, 정해진 절차와 의식에 따라 약초를 채취하며, 철저히 보관하여 공동체의 건강을 돌보는 전문적인 직업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쓰이는 이러한 사실들을 글 속에 직접적으로 모두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단서를 통해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자는 문장 속에 제시된 정보를 하나하나 종합하여, 글에 명시되지 않은 의미를 추론해 냅니다. 이처럼 ‘추론하기’란 글 속에 있는 사실과 단서를 바탕으로 그 뒤에 숨은 의미나 글쓰이의 의도를 짐작하고 이해하는 사고 과정입니다.

\* 각 문단에는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 문장’이라고 하며, 문단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인디언 약사 글에서 첫 문장은 ‘인디언 약사는 자연에서 답을 찾는 지혜로운 치유자였다.’입니다. 뒤이어 약초를 찾는 과정, 의식을 치르는 방식, 약초를 다루는 정교한 절차가 소개되는데, 이 모든 내용은 첫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중심 문장을 뒷받침합니다. 중심 문장을 찾는 일은 문단 속 정보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여러 문단의 중심 문장이 모이면 글 전체의 핵심을 하나로 엮는 중심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디언 약사의 전문성, 약초를 다루는 태도, 공동체에서의 지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글의 중심 생각은 ‘인디언 약사는 자연에 대한 지식과 전통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건강을 책임지던 전문적인 치유자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심 생각은 글쓰이가 전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이며, 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추론하기, 중심 문장 찾기, 중심 생각 정리하기는 글을 깊이 있게 읽기 위한 필수적인 사고 과정입니다. 추론하기는 보이지 않는 의미를 찾아내는 힘을 기르고, 중심 문장은 문단의 핵심을 파악하도록 도우며, 중심 생각은 전체 내용을 통합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길줍니다.

☑ 이 단원에서 ‘우리의 힘’, ‘투탕카멘 왕의 무덤’, ‘도시 교통 문제’와 같은 다양한 글을 읽으며, 이 세 가지 읽기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고 글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 추론하기 · 중심 문장 · 중심 생각 이렇게 읽어요



**읽기 전에:**  
그림, 사진, 질문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상해 보아요.



**읽으면서:**  
글에서 추론하기, 중심 문장, 중심 생각을 파악하며 읽어요.



**읽고나서:**  
추론하는 활동, 중심 문장 찾기 활동,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요.



**선택 과제:**  
사고 확장 활동을 해요.

## 활동 1

추론하기

무리의 힘

- 추론하며 글을 이해해요.



야생개 무리가 어미 들소와 새끼 들소를 포위하고 있는 장면



사진을 보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 들개 무리



▲ 길목을 지키는 들개들



▲ 들개



▲ 누



▲ 영양



▲ 야생개 무리는 조를 나누어 몸집이 큰 들소도 사냥을 한다.



글의 행간을 추론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무리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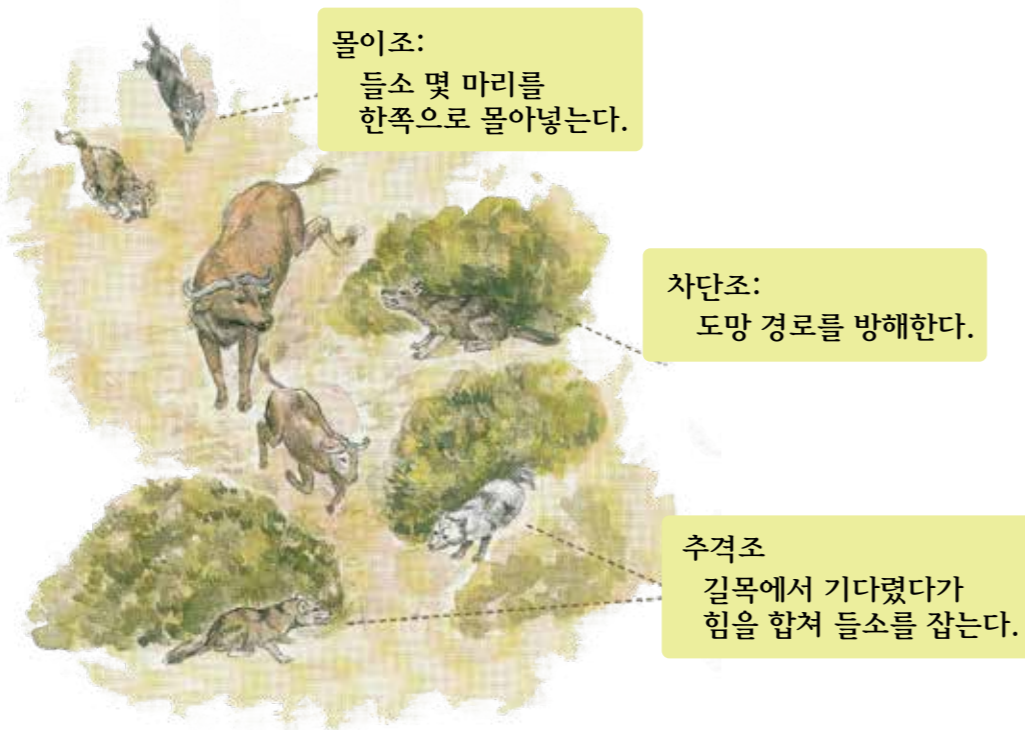
사자는 백수의 왕이다. 힘이 세고 위풍당당한 모습에 그렇게 불린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프리카의 작달막한 들개가 우람한 사자보다 사냥을 더 잘한다. 사냥의 성공률이 사자보다 3배나 높다. 들개는 평균 몸무게가 35kg으로 몸집이 작은 편이고, 부채 같은 큰 귀를 가지고 있다. 온몸에 황갈색의 털이 거칠게 나 있고 여기저기 흰색 반점들이 있어 무섭기보다는 익살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무리를 지으면 달라진다. 40마리쯤 모이면 무서운 맹수로 들변하여 자기보다 몸집이 몇 배나 큰 짐승도 잡는다.

들개는 무리의 결속력이 매우 강하다. 대가족이 무리 지어 사는데, 가족을 이루는 방식이 독특하다. 무리에서 새끼를 낳는 암컷은 보통 알파 암컷 한 마리뿐이며 이 암컷은 우두머리인 알파 수컷과 짝을 이루어 새끼를 낳는다. 한 번에 평균 8~10마리를 낳으며, 무리의 모든 들개가 힘을 합쳐 새끼들을 돌본다. 새끼들은 처음에는 굴속에서 어미의 젖을 먹다가, 조금 자라 굴 밖으로 나오면 다른 들개들이 사냥한 고기를 씹어 부드럽게 만들어 먹인다. 새끼들은 거의 다 자라면 사냥에 함께 나서게 된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사자는 사냥이 끝나면 수컷이 먼저 먹지만 들개는 새끼들부터 먹인다. 새끼들은 약 1년 동안 이러한 배려를 받으며 자란다. 이처럼 한배에서 태어나 무리 전체의 보살핌 속에 자라기 때문에 들개 집단의 결속력과 일체감은 매우 두텁다.

들개의 무리는 매우 조직적으로 사냥한다. 사냥을 떠나기 전, 무리 전체가 함께 모여 준비하는데 이때 여러 마리가 '채채기'와 비슷한 소리를 내면 사냥을 시작하자는 신호다. 알파 수컷뿐만 아니라 무리의 다른 들개들이 채채기 신호에

- ◆ 알파: 'α'는 그리스 문자로, 집단 속에서 우두머리나 지배적 위치를 뜻할 때 사용된다.  
알파 암컷(Alpha female): 무리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암컷을 가리킨다.

동참하면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냥 전략은 지구전인데, 주로 추격전을 벌여서 사냥감을 지치게 한 뒤 덮치는 방식이다. 역할을 분담하여 물이조, 차단조, 추격조로 나누어 사냥한다. 물이조가 사냥감을 몰아 혼란에 빠뜨리면, 차단조가 중간에 끼어들어 도망가는 것을 방해하고, 추격조는 끝까지 쫓아가서 덮친다. 사냥 대상에 따라 전술도 달라진다. 몸집이 큰 얼룩말이나 누 같은 동물을 노릴 때는 정면에서 달려들어 놀라게 하고, 갈팡질팡하면 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새끼를 집중적으로 추격한다. 영양처럼 원을 그리듯 재빠르게 도망치는 동물은 직선으로 질러 들어가 무리의 홀트리고 뒤떨어진 개체를 쫓아가서 잡는다. 이처럼 협동적이고 치밀한 전략 덕분에 들개의 사냥 성공률은 60%에서 많게는 80~90%에 이를 만큼 높다.



- ◆ 지구전: 승부를 빨리 내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끌어 가며 싸우는 전쟁이나 시합.
- ◆ 누: 덩치가 큰 초식동물(소과에 속함), 들개의 주요 사냥감 중 하나.
- ◆ 영양: 체구가 작고 매우 날렵한 초식동물(영양과), 빠른 속도와 민첩성이 특징.
- ◆ 개체: 전체나 집단에 상대하여 하나하나의 날개를 이르는 말.

사냥 기술로 보면, 육지에서는 들개가 최고의 사냥꾼이다. 그렇다면 바다에도 이런 사냥꾼이 있을까? 바로 '바다의 늑대'라 불리는 범고래다. 등은 검은 색이고 배는 흰색으로 말끔한 신사 같지만 사냥할 때는 무서운 포식자다. 범고래도 들개처럼 무리의 결속력이 강하고 조직적으로 사냥한다. 이 때문에 고래상어조차 범고래의 무리에 걸려들면 속수무책이다.

전 세계의 바다에서 서식하는 범고래의 사냥법은 매우 교묘하다. 들개처럼 물이조, 차단조, 추격조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사냥한다. 예를 들어, 극지방의 얼음덩어리 위에 있는 물범을 노릴 때는, 차단조가 얼음 가장자리를 돌며 도망길을 차단한다. 그리고 물이조가 일렬로 돌진하면서 큰 파도를 일으킨다. 물범이 균형을 잃고 얼음에서 떨어지면, 추격조가 순식간에 덮친다.



▲ 범고래 서식 분포 지도



▲ 얼음 위에서 쉬고 있는 물범

바닷가에 있는 바다사자를 사냥할 때는 대담한 전술을 쓴다. 물이조가 파도 속에 몸을 숨기고 해안 가까이 접근하면, 차단조는 바깥쪽에서 도망길을 막는다. 모래사장에 있는 바다사자를 향해서 물이조의 한두 마리가 몸을 밀어 넣듯 해안으로 돌진한다. 이때 범고래의 몸이 모래 위에 걸쳐버리면 바다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사자를 덮쳐서 바다로 끌고 나온다. 겁에 질린 바다사자가 스스로 바다로 뛰어들면 추격조가 쫓아가 잡는다.

▼ 바다 사자를 사냥하는 범고래





청어를 사냥할 때는 물이조가 먼저 청어 떼를 몰아 한곳에 모은다. 이어 차단조가 원을 그리며 돌면서 청어들을 공 모양으로 뭉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입으로 거품을 내뿜거나 꼬리로 수면을 쳐 무리가 흩어지지 않게 한다. 마지막으로 추격조가 꼬리로 세계 내리쳐 청어를 기절시키면, 실신한 청어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러면 추격조가 먼저 먹고, 이어서 차단조가 먹고, 마지막에 나머지 무리 전체가 돌아가며 식사한다.



▲ 아이슬란드 북극권 북쪽에서 청어를 먹고 있는 범고래

범고래의 사냥 성공률은 70%에서 많게는 90%에 이른다. 상어의 성공률이 약 50%에 불과한 것을 보면, 범고래가 바다에서 최고의 사냥꾼임을 알 수 있다. 상어는 무리의 결속력이 약하고 조직력이 부족하므로 성공률이 낮다. 사자도 무리 생활을 하지만 들개만큼 결속력이 높지 않고 조직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다. 이처럼 무리의 힘은 결속력과 조직력에서 나온다.



1 추론하기 질문에 대한 답을 써 봅시다.

- ▣ 알파 암컷 한 마리만 새끼를 낳고, 무리 전체가 새끼를 함께 돌보는 방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무리 전체가 한 번에 많은 새끼를 집중적으로 돌보면 새끼들의 생존률이 높아진다. 또한 모든 성체가 보호와 사냥을 나누어 맡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결국 무리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된다.

- ▣ 사냥 전에 여러 들개가 '재채기 신호'를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냥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여러 들개가 신호에 참여해야만 사냥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재채기 신호는 '지금 사냥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무리의 의견을 모으면 더 많은 개체가 협력할 수 있어 사냥 성공률이 높아진다.



# 추론하기 01 무리의 힘

▣ 범고래 무리가 청어를 몰고 차례로 먹는 모습을 통해, 범고래 무리의 어떤 특징을 추론할 수 있나요?

>>> 범고래 무리는 역할을 나누고 순서를 지키며 협력하는 동물이라는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물이조, 차단조, 추격조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먹을 때도 추격조→차단조→전체 무리 순서로 먹는 것을 보면, 범고래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질서 있게 협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들개와 범고래의 사냥 성공률이 높은 이유를 추론해 보세요.

>>> 들개와 범고래는 모두 혼자가 아니라 무리로 사냥하며 역할을 나누어 협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들개는 물이조·차단조·추격조로 나누어 사냥감을 지치게 하고, 범고래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사냥감을 몰고 차단하며 공격한다. 이러한 조직적인 협동과 강한 결속력 덕분에 두 동물은 사냥 대상을 효율적으로 고립시키고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으므로, 사냥 성공률이 높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활동 2

중심 문장 · 중심 생각

투탕카멘왕의 무덤

● 중심 문장과 중심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이해해요.



투탕카멘 왕의 무덤 입구



사진과 글을 보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투탕카멘왕은  
 고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며  
 약 19세 전후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날 널리 알려진 이집트 왕 가운데 한 명이다.  
 투탕카멘 왕이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

어디에  
무덤이 있는 거야?

?



중심 문장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투탕카멘 왕의 무덤

- 1 파라오의 무덤은 이집트 왕권과 종교적 믿음을 보여 주는 화려한 장례 문화의 상징이었다. 수천 년 전 파라오가 죽으면 거대한 장례 의식이 열렸고, 무덤 안에는 권력과 부를 드러내는 금과 은, 값비싼 보석, 정교한 가구, 신상과 제사용 도구들이 가득 채워졌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무덤들은 대부분 도굴을 당해 원래 모습을 잃었고, 20세기 초까지 고고학자들은 온전한 형태의 파라오 무덤을 찾아내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 2 1922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와 후원자 카나본 백작 조지 허버트는 이집트 왕들의 계곡에서 파라오 투탕카멘 무덤을 찾아냈다. 약 3300년 전에 장례를 치른 투탕카멘의 무덤은 단 한 번도 도굴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었다. 카터가 마지막 문을 열던 순간 '나는 터질 듯한 흥분에 휩싸였다'고 기록했을 만큼 내부는 황금 조각상, 금으로 장식된 가구, 의식용 물품, 화려한 장신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발견은 고대 이집트 장례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1922년 투탕카멘의 미라와 관을 살펴보는 하워드 카터



▲ 이집트 룩소에 있는 투탕카멘 왕과 부인 안케센아멘의 동상.

3 투탕카멘의 무덤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연히 여러 조건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투탕카멘의 무덤 입구는 매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흙더미와 돌무더기에 덮여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람세스 6세의 무덤을 짓는 과정에서 나온 폐자재를 이곳에 버려 놓고, 그 위에 인부들의 오두막까지 세워 도굴꾼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게다가 투탕카멘은 18세에 갑자기 죽어 큰 무덤을 만들 시간이 없었고 재임 기간도 짧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잊혀진 파라오’였다. 이런 여러 사정이 겹치며 그의 무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 밖에 머물렀다.

4 투탕카멘의 무덤은 규모는 작지만 5천 점이 넘는 유물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 ‘고고학의 기적’이라 불린다. 시신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카터는 많이 아쉬워했지만, 가치 있는 금장 관과 보석 장식품들은 그 아쉬움을 충분히 보완했다. 전실에는 황금 전차와 침대, 가구, 무기, 의복이 가득했고, 부속실에는 음식, 술, 향료 등 생활용품이 놓여 있었다. 매장 실에는 신들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네 겹의 금장 목제 관 안에 황금가면을 쓴 미이라가 있었다. 마지막 보물창고에서는 신상, 금, 보석 장신구, 동물 미이라, 배 모형 등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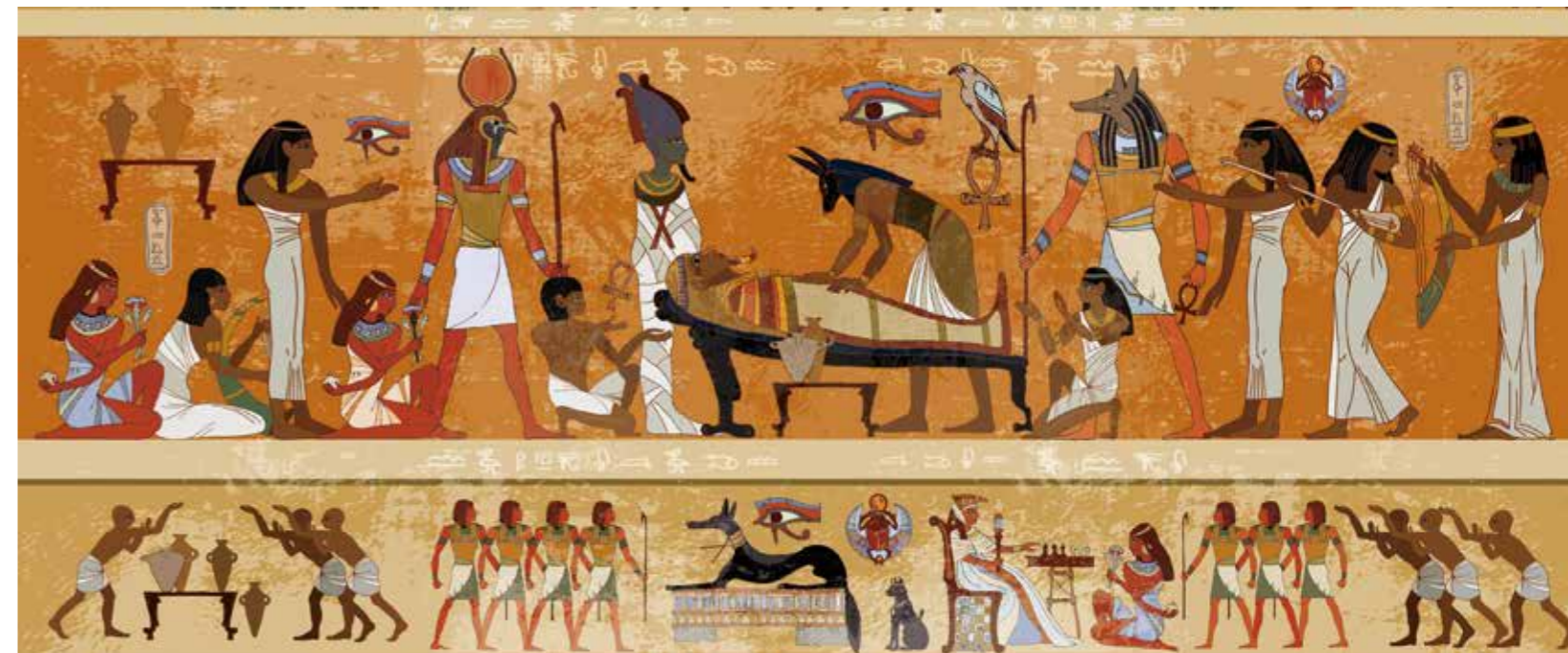
◀ 투탕카멘왕의 황금 가면

투탕카멘왕의 관 ▶  
금, 유리, 수정,  
흑요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5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은 왕의 권위와 장례 문화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그중에서도 황금 가면이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 황금 가면은 11kg의 순금에 청금석과 터키석을 정교하게 장식해 만들어졌으며, 장례 의식의 위엄과 파라오의 신성함을 드러낸다. 이 밖에도 운석 철로 만든 단검, 여섯 대의 황금 전차, 동물 모양의 장식 침대, 화장품·향료·와인 항아리 등 다양한 공예품과 생활용품이 발견되었다. 또한 부활을 상징하는 오시리스 신상과 죽은 자를 보호하는 아누비스 신상이 함께 출토되어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적 세계관을 보여 준다. 이러한 유물들은 투탕카멘 시대의 생활과 신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6 투탕카멘 무덤 발굴 과정에서 ‘파라오의 저주’ 소문이 크게 퍼졌다. ‘파라오 무덤에 들어오는 자는 죽으리라’라는 저주문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실제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발굴 다음 해, 카나본 경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소문이 커졌다. 심지어 그가 죽던 시각에 영국에 있던 애완전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발굴 단원 가운데 몇 명이 세상을 떠나자 저주의 소문이 더 확산되었다. 하지만 발굴 책임자 하워드 카터는 건강하게 오래 살았고, 언론이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해 소문을 키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나머지 생애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데 바치며 학자로서의 길을 걸었다.



▲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그린 투탕카멘의 무덤 벽화

**1** 문단의 중심 문장을 쓰고, 문단을 2문장으로 요약해 봅시다.

	<b>2</b> 문단: 투탕카멘 무덤의 발견과 그 역사적 의미
중심 문장	>>> 하워드 카터와 카나본 백작은 이집트 왕들의 계곡에서 도굴되지 않은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했다.
2문장 요약	>>> 1922년 하워드 카터와 카나본 백작은 약 3300년 전의 투탕카멘 무덤을 발견했다. 이 무덤은 도굴되지 않아 황금 유물과 장신구들이 온전히 남아 있었고, 고대 이집트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b>3</b> 문단: 투탕카멘 무덤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
중심 문장	>>> 투탕카멘의 무덤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연히 여러 조건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2문장 요약	>>> 투탕카멘의 무덤은 흙더미와 오두막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았고, 왕의 짧은 재임 기간 때문에 크게 알려지지 않아 도굴을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그의 무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다.

**2** 중심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장을 찾아 써 봅시다.

▣ ④ 문단의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찾아 써 보세요.

**중심 문장**

투탕카멘의 무덤은 규모는 작지만 5천 점이 넘는 유물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 ‘고고학의 기적’이라 불린다.

**뒷받침 문장**

>>> 전실에는 황금 전차, 침대, 가구, 무기, 의복 등 값진 물품들이 가득 있었다.

>>> 부속실에는 음식, 술, 향료 같은 생활용품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 매장실에는 신들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네 겹의 금장 목제 관 안에 황금가면을 쓴 미이자가 있었다

>>> 마지막 보물 창고에서는 신상, 금보석 장신구, 동물 미이라, 배 모형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⑤ 문단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장을 찾아 써 보세요.

### 중심 문장

>>>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은 왕의 권위와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그중에서도 황금가면이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다.

### 뒷받침 문장

>>> 황금가면은 장례 의식의 위엄과 파라오의 신성함을 잘 드러낸다.

>>> 다양한 공예품과 생활용품이 발견되었다.

>>> 오시리스 신상과 아누비스 신상은 종교적 의미를 보여 준다.

>>> 이러한 유물들은 투탕카멘 시대의 생활과 신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3.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써 봅시다.

>>>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온 유물은 도굴된 적이 없어서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의 장례 의식과 문화 그리고 종교적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 활동 3

중심 문장 중심 생각

도시의 교통 문제

● 중심 문장과 중심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이해해요.



고대 도시의 포장도로와 보행자 도로



사진과 지도를 보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

징검돌을 왜 만들었지?



▲ 도로의 징검돌



▲ 고대 로마의 도로망-굵은 선



중심 문장과 중심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도시의 교통 문제

- 1 로마인들은 기원전 312년에 최초로 포장도로를 깔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 영토에는 전국을 관통하는 도로망이 차례로 구축되었다. 로마의 도로는 흔히 사람의 대동맥에 비유된다. 처음에는 군용 도로로 만들어졌지만, 도로에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사절단, 공무원, 시민, 노예들과 다양한 물자들이 오갔다. 도로를 통해서 교역이 활발해지자, 로마는 정치, 군사 및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 2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장군, 정치가와 저술가로 유명하지만, 교통 공학자이기도 했다. 로마의 시장과 원형 경기장의 주변에 교통이 너무나 혼잡하였기 때문에 그는 ‘교통 체증 대책’을 세워야만 했다. 먼저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도록 해가 뜬 시각부터 10시간 동안 그 주변은 마차의 통행을 금지했다. 도로 양편에는 길바닥보다 높게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설치했는데, 이는 마차가 보도를 넘어 들어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징검돌을 길바닥에 박아서 마차의 속도를 늦추게 하였다. 일방통행 도로를 만들었고, 도심에 주차 금지 구역도 만들었다. 이렇게 카이사르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질서를 세웠다.
- 3 그 후 교통수단은 꾸준히 발달하여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산업과 도시가 성장하면서 승용차, 버스, 트럭이 도심 곳곳을 오가게 되었고, 도로는 점점 더 붐비게 되었다. 이동이 편리해진 만큼 교통사고의 위험도 커졌으며 자동차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통 체계는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교통수단의 발달이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혼잡과 안전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도 함께 생긴 것이다. 이제는 자동차의 이동만을 우선하기보다 사람의 안전과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카이사르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 대책을 마련했던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

4 197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드디어 ‘보넬프’ 운동이 일어났다. 보넬프는 ‘안전한 생활 공간’이란 뜻이다. 이 운동은 도로를 안전한 생활 공간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자동차 소음에 지친 주민들이 밤에 나와 도로포장을 뜯어내고 여기저기에 돌무더기로 쌓아놓았다. 자동차들이 돌무더기를 피해 다니느라 속도를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도로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져 나갔다. 이 운동은 벨기에를 시작으로 유럽 그리고 미국과 일본까지 세계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다. 자동차의 왕국인 우리나라도 보넬프 운동의 취지를 받아들였다.

5 보넬프 운동은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로를 사람과 차량이 함께 쓰는 공유 공간으로 바꾸고 둘째, 도로를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가며 셋째, 차량의 속도를 적절하게 제한하라는 것이다. 우선 주거 지역에서는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걷고 아이들이 마음껏 공을 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과속 방지턱 설치, 굴곡 길 도입, 차로 축소와 보도 확장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었고, 도로마다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속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이런 정책 변화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 설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 캐나다 토론토 거리에 있는 교통 표지판  
-여기는 주거 지역이니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를 우선시하며 조용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

6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서울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도로를 만들기 시작했다. 과속 방지턱, 차로 좁히기, 굴곡 도로 및 일방통행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왔다. 최근에는 ‘사람 중심 도로 설계 지침’을 제정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 도로’도 지정하고 있다. 차량 속도도 필요에 따라서 시속 20km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는 주말에 ‘차 없는 날’이 지정되고 있다. 주말에 자동차가 없는 도로를 여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 표지판  
주말 아침 10시~밤10시  
차 없는 거리  
보행자 우선 도로

◆ 보행자 우선 도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이므로, 걸어가는 사람은 길의 어느 부분에서든 다닐 수 있고, 이 길을 통과하는 차량은 사람에게 양보하며 지나가야 한다

1 문단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써 봅시다.

- 1 문단에서 로마 도로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낸 문장은 무엇인지 생각 하며 중심 문장을 써 보세요.

**중심 문장**

>>> 로마의 도로는 로마를 정치·군사·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게 한 중요한 기반이었다.

- 2 문단에서 카이사르가 한 일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중심 문장을 쓰고, 뒷받침 문장을 써 보세요.

**중심 문장**

>>> 카이사르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질서를 만들었다.

**뒷받침 문장**

- >>> 시장과 원형 경기장 주변이 혼잡하여 대책이 필요했다.
- >>> 해가 뜬 시각부터 10시간 동안 마차 통행을 금지했다
- >>> 도로 양편에 보도를 설치해 보행자를 보호했다.
- >>> 마차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징검다리 돌을 박았다.
- >>> 일방통행 도로와 주차 금지 구역을 만들었다.

- 3 문단에서 자동차 시대의 교통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을 써 보세요.

**중심 문장**

>>> 교통수단의 발달로 자동차 중심 사회가 되었지만, 혼잡과 안전 문제가 커지면서 이제는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이 필요해졌다.

- 4 문단은 왜 ‘본엘프 운동’을 소개하고 있나요? 중심 문장을 쓰고, 뒷받침 문장을 써 보세요.

**중심 문장**

>>> 본엘프 운동은 도로를 사람 중심의 생활 공간으로 바꾸자는 운동이었다.

**뒷받침 문장**

- >>> 본엘프는 ‘살기 좋은 마당’이라는 뜻이다.
- >>> 도로를 생활 공간으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 >>> 주민들이 도로포장을 뜯고 돌무더기를 쌓아 자동차 속도를 줄였다.
- >>> ‘도로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 >>> 이 운동은 여러 나라로 퍼졌다.

5 문단은 본엘프 운동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중심 문장을 쓰고 뒷받침 문장을 써 보세요.



3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위한 사람 중심 생활 도로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고, 그에 어울리는 교통 표지판을 디자인해 봅시다.

**중심 문장**

>>> 본엘프 운동은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드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뒷받침 문장**

- >>> 첫째, 도로를 사람과 차량이 함께 쓰는 공간으로 바꿨다.
- >>> 둘째, 도로를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진정시켰다.
- >>> 셋째, 차량의 속도를 제한했다.
- >>> 주거지역에서는 보행자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 >>> 과속방지턱, 굴곡길 보도 확장 등의 안전 대책이 마련되었다.

2 이 글의 중심 생각을 써 봅시다.

**중심 생각**

>>> 도로는 시대마다 교통 환경이 바뀌어 왔지만, 결국 '사람 중심의 교통 질서와 도로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 중심 생활 도로 계획 설명서를 도표를 작성해도 좋고, 글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교통 표지판은 모둠 수업으로 66쪽과 71쪽 표지판을 참조하여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도로 이름	따뜻한 발걸음 거리
계획 목적	
도로 구조	
설계 내용	
휴식 공간	작은 마을 정원
교통 표지판	
기대효과	어린이 안전

내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동네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동네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떤 교통 표지판이 필요할까요?  
왜 설치를 해야 할까요?



-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위한 사람 중심 생활 도로 계획 설명서 -  
우리 동네를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 중심의 생활 도로를 계획하였다. 이 도로는 자동차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생활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도로이다.

첫째, 우리 동네의 생활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한다. 자동차가 천천히 달리면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고, 보행자와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로 곳곳에 과속 방지턱과 굴곡 도로를 만들어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도록 한다.

둘째,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넓은 보도를 만든다. 보도에는 나무와 화단을 두어 걸기 좋은 길로 만들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한다. 학교 근처에는 차량 속도를 더 낮추는 어린이 보호 구역도 만든다.

셋째, 주말에는 우리 동네의 중심 길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작은 공연이나 장터도 열 수 있도록 하여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거리를 만든다.

이러한 사람 중심 생활 도로가 만들어지면 우리 동네는 더 안전하고, 더 조용하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마무리

- 2단원을 마무리 지어 봅시다.
- ▣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 ① 인류학자들은 이라크 북부 지방에서 고대 농경 마을을 발굴했다. 이 농경 마을이 생성된 시기는 기원전 7000년에서 6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 이름이 자르모이다. 24개의 진흙담을 둘러친 집을 가지고 있는 영구적인 정착지였다.
- ② 자르모는 약 4천 평 정도 되고, 자르모의 인구는 약 150명 정도였다. 말할 것도 없이 자르모의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와 마찬가지로 사냥도 하고 음식물을 채집했다. 하지만 그들은 선조와는 다른 관심사도 있었다. 자르모 마을 사람들은 원시 보리와 렌즈콩의 일종인 밀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염소, 양, 개를 길들였다는 증거도 있다. 그곳에서 토기, 물대로 짠 바구니, 방바닥의 깔개, 흙으로 빚은 다산신이 발견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그들에게 종교가 있었고, 공예술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방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자르모의 고대인들이 농경에 대해서 더욱 많은 기술과 지식을 얻게 되자 물이 더욱 풍부한 평야를 찾아 나섰다. 기원전 5000년경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비옥한 땅을 발견했다. 그래서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 라고 이름을 지었다.
- ④ 그 후 수천 년 동안 계속 발전했다. 아주 좋은 기후와 비옥한 땅, 그리고 개선된 농경술로 농작물이 풍부해지자 모든 사람이 다 농민이 될 필요가 없었다. 일부의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농작물과 교환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교환하고 거래하는 도시로 변했다. 이렇게 단순한 농경 마을이 점차 발전해서 도시가 형성되었다.



◀ 고대 농경 마을 자르모 지도

01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써 보세요.

- ① 문단: 자르모는 기원전 7000~6500년경 조성된 이라크북부의 고대 농경 정착지였다.
- >>> ② 문단: 자르모 사람은 초기 농경 사회였고 종교 활동을 했다.
- >>> ③ 문단: 자모르인들은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유역으로 이동했다.
- >>> ④ 문단: 농경의 발달로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여 점차 도시로 발전하였다.

02 각 문단의 소제목을 써 보세요.

- >>> ① 문단: 고대 농경 정착지 자르모의 발견
- >>> ② 문단: 자모르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 >>> ③ 문단: 더 비옥한 땅을 찾아 메소포타미어로 이동
- >>> ④ 문단: 농경 발전이 이끈 도시의 형성

03 글의 제목을 써 보세요.

- >>> 제목: 도시 문명의 첫걸음

04 ② 문단의 내용에서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을 적어 보세요.

원시 보리,  
밀 재배  
양, 염소, 개  
가축을 키움

>>> 자모르는 초기 농경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였음을  
알 수 있다.

05 ④ 문단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도시가 발달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세요.

>>> 도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농업 생산력 증가, 잉여 생  
산물, 분업과 교역의 발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06 이 글의 중심 생각을 써 보세요.

>>> 자모르는 농경 기술이 발전하고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자,사람들이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고 다양한 일을 나누어 맡으며 한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인류 최초의 도시가 탄생하는 기반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 3. 글의 구조

## 시작하며

### 글의 구조 무엇을 배울까요?

\* 글의 내용을 그림이나 도표로 시각화하면, 글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읽을 때 문장만 따라가다 보면 자칫 전체 흐름을 놓치기 쉽지만, 내용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정리하면 글의 큰 틀과 세부 정보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드러나면 복잡해 보이던 내용도 흐름이 뚜렷해지고, 중요한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 정리는 문단 사이의 관계나 비교되는 부분, 강조되는 요소 등을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시각화된 구조를 살펴보면 글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므로 글 전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내용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두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핵심 내용을 빠르게 떠올릴 수 있어 복습하거나 발표를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글을 요약하거나 자기 생각을 다시 정리할 때도 이러한 구조를 참고하면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정리는 글을 이해하는 과정뿐 아니라 이해한 내용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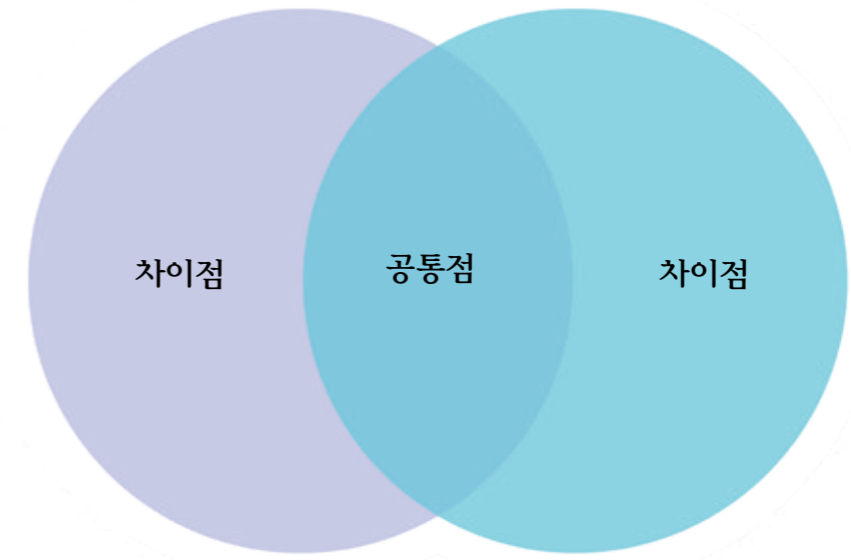
시각적 정리 방식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열하는 비교·대조 구조, 중심 생각을 위쪽에 두고 세부 내용을 아래로 펼쳐 나가는 피라미드 구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 구조, 중심 주장에 여러 근거를 연결해 나타내는 주장·근거 구조 등이 그 예입니다. 글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면 내용을 더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1 비교·대조 구조

비교·대조 구조의 글을 벤다이어그램으로 도식화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나누어 제시하면 두 대상의 성질이나 역할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어떤 요소가 두 대상을 구분 짓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러한 비교·대조 방식은 설명문이나 정보를 알리는 글에서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 효과적이며, 두 대상의 특징과 중요한 차이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구조는 글의 중심 생각을 위쪽에 두고, 그 아래에 관련된 근거와 세부 내용을 단계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입니다. 중심이 되는 생각에서 출발해 점점 구체적인 정보로 내려가기 때문에 글의 전개 흐름을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활용해 내용을 정리하면 핵심 내용과 세부 정보의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독자는 중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글을 분석하거나 요약할 때 피라미드 구조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 3 문제 해결 구조

문제 해결 구조의 글을 읽을 때는 글이 어떤 순서로 전개되는지 살피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의 글은 보통 ‘문제 제시, 문제 정의, 해결 방법 제시, 최선의 해결 방안 선택’과 같은 절차를 따라 전개되므로 각 단계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야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제시한 부분을 살펴보고 글에서 다루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이 단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해결 방안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쓴이가 어떤 상황을 문제로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이 단락에는 문제의 원인, 영향, 문제의 범위 등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독자는 이 설명을 통해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을 비교 검토해서 읽습니다. 글쓴이는 보통 2~4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각 방법의 장점과 한계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글의 다음 단계에서 왜 특정 방안이 선택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주목합니다. 글쓴이는 여러 해결책 중 하나를 고르고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글의 주장을 완성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가’, ‘제시된 근거가 타당한가’를 생각하며 읽으면 글의 논리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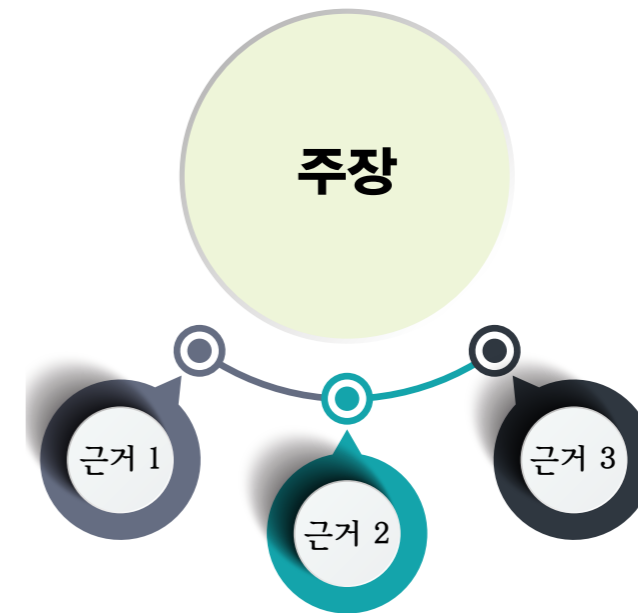
문제 해결 구조의 글을 읽을 때 이러한 단계를 머릿속에 그리며 읽으면 글의 전개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글쓴이가 어떤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인식하며 읽는 습관은 복잡한 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문제 제시
- 문제 정의
- 문제 해결 방법 제시와 비교 검토
- 최선의 해결 방안

### 4 주장과 뒷받침 근거 구조

주장과 뒷받침 근거 구조는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의견을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개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먼저 중심 주장을 분명히 제시한 뒤, 그 주장이 타당함을 보여 주는 근거를 덧붙여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근거는 사실, 통계 자료, 전문가의 견해, 구체적인 사례처럼 믿을 수 있는 정보일수록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이 구조를 이해하면 글쓴이의 생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글의 신뢰성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주장과 관련이 약하면 글의 설득력은 떨어지므로, 독자는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살피며 비판적으로 읽는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깊이 이해하는 힘을 기릅니다.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는 두 문화의 정치, 문화, 일상생활, 종교를 비교·대조하며 글을 읽고, ‘미래를 여는 힘’에서는 피라미드 구조로 글을 분석합니다. 또한 ‘어린이 당뇨병’에서는 문제 해결 구조, ‘멸종 위기의 백상아리’에서는 주장과 근거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읽기  
방법

글의 구조 이렇게 읽어요



읽기 전에:  
'글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틀을 살펴보세요.



읽으면서:  
비교와 대조 구조, 피라미드 구조, 문제해결 구조, 주장과 근거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글을 읽어요.



읽고나서:  
각 활동의 글의 구조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요.

활동  
1

비교·대조 구조

그리스와 로마 문화

● 비교 대조하며 글을 이해해요.



로마 석양 무렵의 콜로세움 야외극장



지도와 벤다이어그램 표를 보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 그리스와 로마 지도

▣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점과 같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 그리스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직접 모여 법과 정책을 결정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 ◆ 로마 공화주의: 로마에서는 시민이 대표를 뽑아 정치를 맡겼다. 대표를 통한 간접 정치



비교 대조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그리스와 로마

고대 지중해에서 꽃피운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은 현대 문명의 뿌리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대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민주공화국인데, 이는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로마의 공화주의가 혼합된 정치제도인 셈이다. 두 문명은 정치뿐만 아니라 철학, 예술, 과학, 법, 문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에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고대 그리스의 문명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 600여 년 존속했다. 당시 대표적인 도시 국가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이다. 고대 아테네는 대부분의 공직을 추첨으로 뽑고, 시민들이 직접 정부에 참여하는 역사상 최초의 민주국가였다.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이 번갈아 전투의 최선봉에 서는 전사 집단의 귀족국가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비교적 소박하게 살았다. 도시의 집들은 거리 쪽에는 창문을 거의 내지 않고 안쪽에 안뜰을 두고 그 둘레에 방을 배치한 구조였다. 이 안뜰은 가족생활 중심으로 햇빛과 바람이 드는 공간이었다. 그리스인들은 하루 두 끼를 먹었다. 아침에는 콩이나 완두콩 요리를 주로 해 먹었고, 저녁에는 치즈, 올리브, 빵, 고기 위주로 푸짐하게 식사했다. 남녀 모두 '키톤'을 입고 샌들을 신었는데, 이는 직사각형 천을 몸에 두르고 편으로 어깨쪽을 고정된 옷이다.



◀ 키톤 옷

그리스인들은 다양한 신을 숭배했다. 그리스의 신화에는 신과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들은 신들을 기리는 신전을 아름답게 지었다. 가장 유명한 신전이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네를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이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는 바로 아테네 여신의 이름을 딴 것이다. 오늘날에도 유적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남아 있다. 또한 매년 신들을 기리는 축제가 성대하게 열렸다. 가장 유명한 축제는 올림픽 경기였고



▲ 파르테논 신전

이 축제는 올림피아의 신전에서 제우스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진행되었다.

고대 로마 문명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후 5세기까지 1,300년 가까이 존속했다. 고대 로마는 주요 공직을 선거로 뽑고, 정치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는 세계 최초의 공화국이었다. 용감한 로마인들은 주변의 민족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마침내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 그들이 확립한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형평성이다. 그것은 법을 다양한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고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인의 집에는 아트리움이라는 넓은 홀이 가운데 있고, 그 둘레에 침실, 식당 및 접객실이 있었다. 아트리움은 손님 맞이 공간으로 그리스 안뜰에서 발전한 형태였다. 식사는 하루 세 끼였다. 아침 식사에는 빵, 치즈, 올리브, 말린 과일 및 포도주로 간단하게 먹고, 점심 때는 빵과 채소나 치즈로 가볍게 먹었다. 저녁 식사는 가장 풍성했으며, 종종 손님을 초대하여 연회처럼 화려하게 차렸다. 로마인의 옷은 간소하고 실용적이었다. 남녀 모두 기본적으로 '튜니카'라는 옷을 입었는데 이는 통 모양의 천에 어깨 부분만 구멍을 내어 팔을 넣고, 허리띠로 묶어 입는 간단한 옷이었다. 남자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 위에 '토가'를 덧입었다.



▲ 이탈리아 스타비아 지역에 있는 로마 상류층이 별장으로 사용한 전형적인 아트리움 구조의 집의 내부 모습과 튜니카를 입고 토가를 걸친 로마인

로마인들은 많은 신을 숭배했다. 나중에 그리스의 신들과 여신들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새로운 이름도 붙였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로마의 여신 비너스가 되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인들은 다양한 축제를 열기로 유명했는데, 축제는 주로 콜로세움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야외극장에서 열렸다. 콜로세움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가장 인기 있는 행사는 전차 경주였는데, 서커스라고 불리는 타원형의 길고 넓은 경기장에서 열렸다. 중앙에 분리대가 있고, 그 주위로 마차들이 달렸으며, 경주로 뒤편에 계단식 관람석이 설치되었다. 고대 로마에서 가장 큰 서커스는 키르쿠스 막시무스였다. 관중을 15만에서 25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 로마의 콜로세움 야외극장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철학, 예술, 문학, 종교와 같은 문화를 뛰어난 것으로 인정했고, 이를 자신들의 생활과 제도 속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스가 도시국가 중심의 문명이었다면, 로마는 여러 지역을 통합한 제국의 문명으로 성장했다. 그리스에는 많은 도시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했지만, 로마에서는 수많은 도시가 정복되어 하나의 제국으로 편입되었다. 규모와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두 문명은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1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 ‘비교·대조 표’를 완성해 봅시다.

항목	차이점		공통점
	그리스	로마	
존속 기간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 600여 년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 후 5세기까지 1,300년	°지중해 지역에서 발전한 고대 문명
정치 제도	직접 민주정: 추천제 시민 참여 중심. 최초의 민주 국가	공화정: 선거·권력 분립	°현대 정치제도의 기반 제공
대표 도시국가	아테네, 스파르타 도시 국가	>>> 도시국가에서 제국으로 확장	>>> °시민 제도 발달
일상 생활	키톤 착용, 두 끼 식사	>>> 튜니, 토가 착용 세 끼 식사	>>> °신화·축제·예술 철학 발달
문화 종교	여러 신 숭배, 신전, 올림픽, 아테네 신화 중심	>>> 다신교, 그리스 신화 변용, 콜로세움·전차경주	>>> °후대 문명에 큰 영향
사회 확장 방식	독립적 도시 국가 중심	>>> 정복과 통합을 통한 제국 형성	>>> °서양 문명의 기틀을 마련
문명의 방식	독창적·철학·예술 중심	>>> 실용적·법·행정 중심	

2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질문에 답해 봅시다.

01 그리스의 민주 정치와 로마의 공화 정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고대 그리스의 민주 정치는 시민들이 직접 모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으로, 주요 공직도 추천으로 선발하였다. 반면 로마의 공화 정치는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나라를 운영하도록 하는 간접 정치 형태였으며, 여러 집단이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따라서 두 정치 제도는 시민 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정치 결정 방식과 권력 운영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02 그리스와 로마의 생활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생활 방식은 식사, 주거, 복장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스인은 하루 두 끼의 소박한 식사를 했지만, 로마인은 하루 세 끼를 먹고 저녁을 풍성하게 차렸다. 그리스의 집은 안뜰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지어졌고, 로마의 집은 넓은 아트리움과 여러 방이 있는 도시적 구조였다. 그리스인은 키톤이라는 간단한 옷을 입었고, 로마인은 튜니카와 공식 자리에서 토가를 걸쳤다. 이처럼 두 문명은 환경과 사회적 조건의 차이로 서로 다른 생활 문화를 발전시켰다.

**03** 현대의 '민주공화국' 제도가 그리스와 로마의 어떤 정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 현대의 민주공화국 제도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그리스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을 발전시켰다. 이 전통은 현대 민주주의의 시민 참여 원리의 기반이 되었다. 로마는 대표를 선출하고 권력을 나누는 공화정 체계를 만들었다. 따라서 현대 민주공화국은 그리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 원리가 결합되어 형성된 제도이다.

**04** 그리스와 로마의 공통점을 한 문단의 글로 쓰세요.

»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지만, 여러 면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두 문명 모두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현대 민주 정치의 기반을 마련했고, 예술·철학·과학·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양 문명의 기틀을 세웠다. 또한 두 문명 모두 다신교를 믿으며 신화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종교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를 기념하는 축제와 공공 행사가 활발하게 열렸다. 이런 공통된 기반을 바탕으로 그리스와 로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그 결과 서양 문명의 중요한 토대가 형성되었다.

**05** 이 글의 중심 생각을 써 보세요.

»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은 서로 다른 정치, 사회, 생활 문화를 지녔지만, 인류의 사상과 제도의 기틀을 세워 현대 문명의 뿌리가 되었다.

활동  
2

피라미드 구조

미래를 여는 힘

● 피라미드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이해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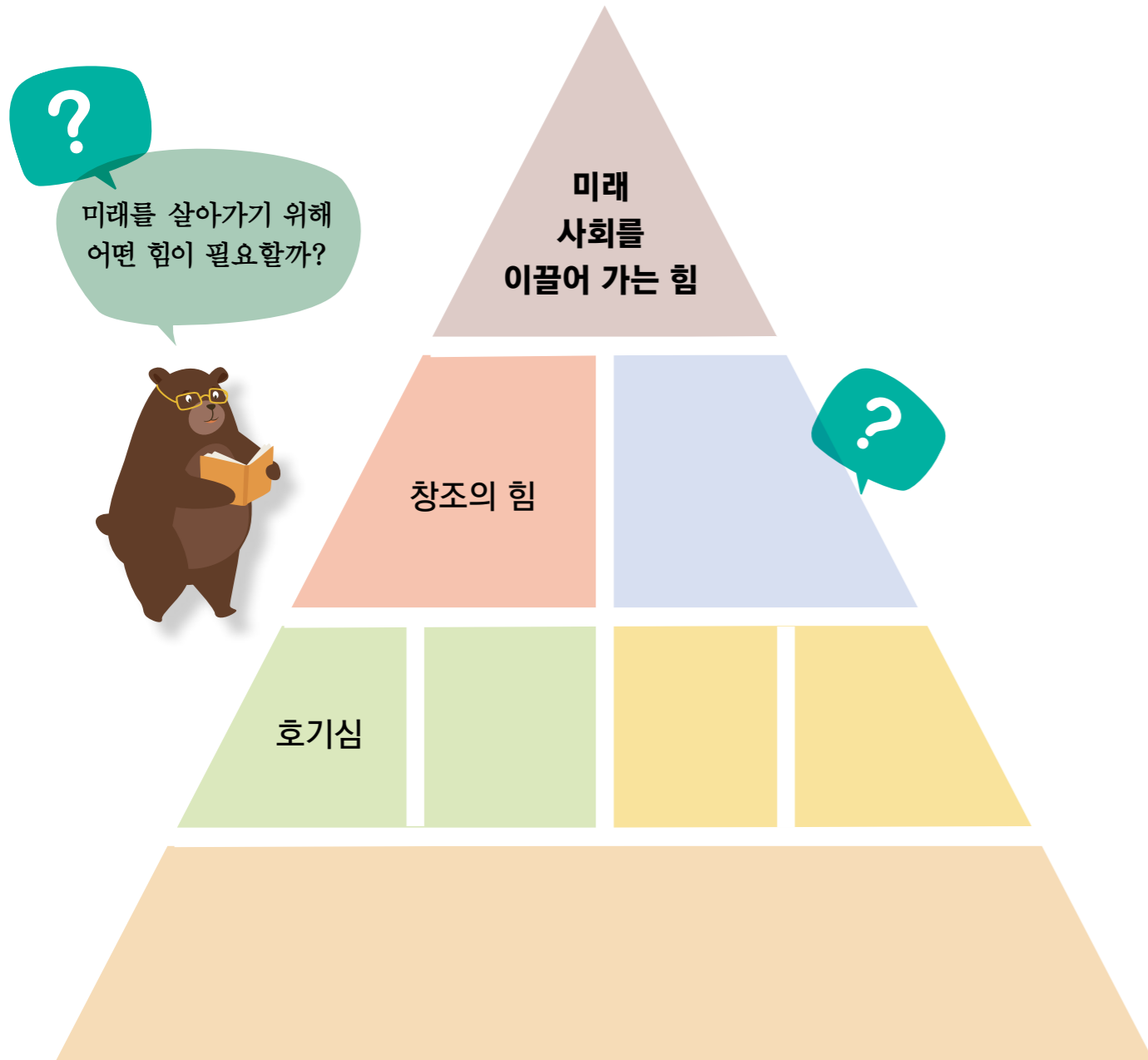


창의력과 호기심, 용기와 도전의 날개를 색깔과 선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듯한 칸딘스키의 추상화



피라미드 구조를 시각화한 표와 낱말을 보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 ‘미래를 여는 힘’을 읽기 전에 아래 피라미드 구조와 낱말을 읽고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세요.



피라미드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미래를 여는 힘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서 시험 운행을 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수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창조의 힘과 개척정신이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면 새로운 문명 속에서 방향을 잃고 변화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미래 사회의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창조의 힘과 개척 정신을 길러야 한다.

창조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그 시작점은 바로 호기심과 탐구심이다. 호기심은 ‘이건 왜 그럴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하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작은 호기심 하나가 새로운 발명과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질문에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졌고, 지구를 보호하려는 고민에서 친환경 에너지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호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호기심에서 떠오른 생각을 끝까지 탐구하고 확인하려는 마음, 즉 탐구심이 있어야 한다. 탐구심은 해답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고 실험하며 배우려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탐구심이야말로 창조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호기심은 창조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탐구심은 그 문을 끝까지 열어 주는 열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창조의 힘이 자란다.

개척 정신은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스스로 열어 가려는 마음이다. 그 중심에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도전과 용기가 자리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발전이 이루어진다.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디고, 우주를 탐사하며, 심해 생물을 연구하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도전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

아가는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환경 문제, 디지털 윤리, 인공지능의 책임 같은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때 개척 정신은 더욱 빛난다. 개척 정신은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

창조의 힘과 개척 정신은 서로 다른 능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이어져 작용한다. 호기심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한다면, 개척 정신은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이루어 내게 한다. 이렇게 창조의 힘과 개척 정신이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힘을 갖출 수 있다. 3D 프린터, 드론, 인공지능 기술 역시 작은 호기심과 꾸준한 탐구심에서 출발해,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 속에서 완성된 성과들이다.

학교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운 문제나 새로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탐구하며 실험하려는 자세가 곧 창조의 힘이고, 과감히 시도하는 자세가 개척 정신이다.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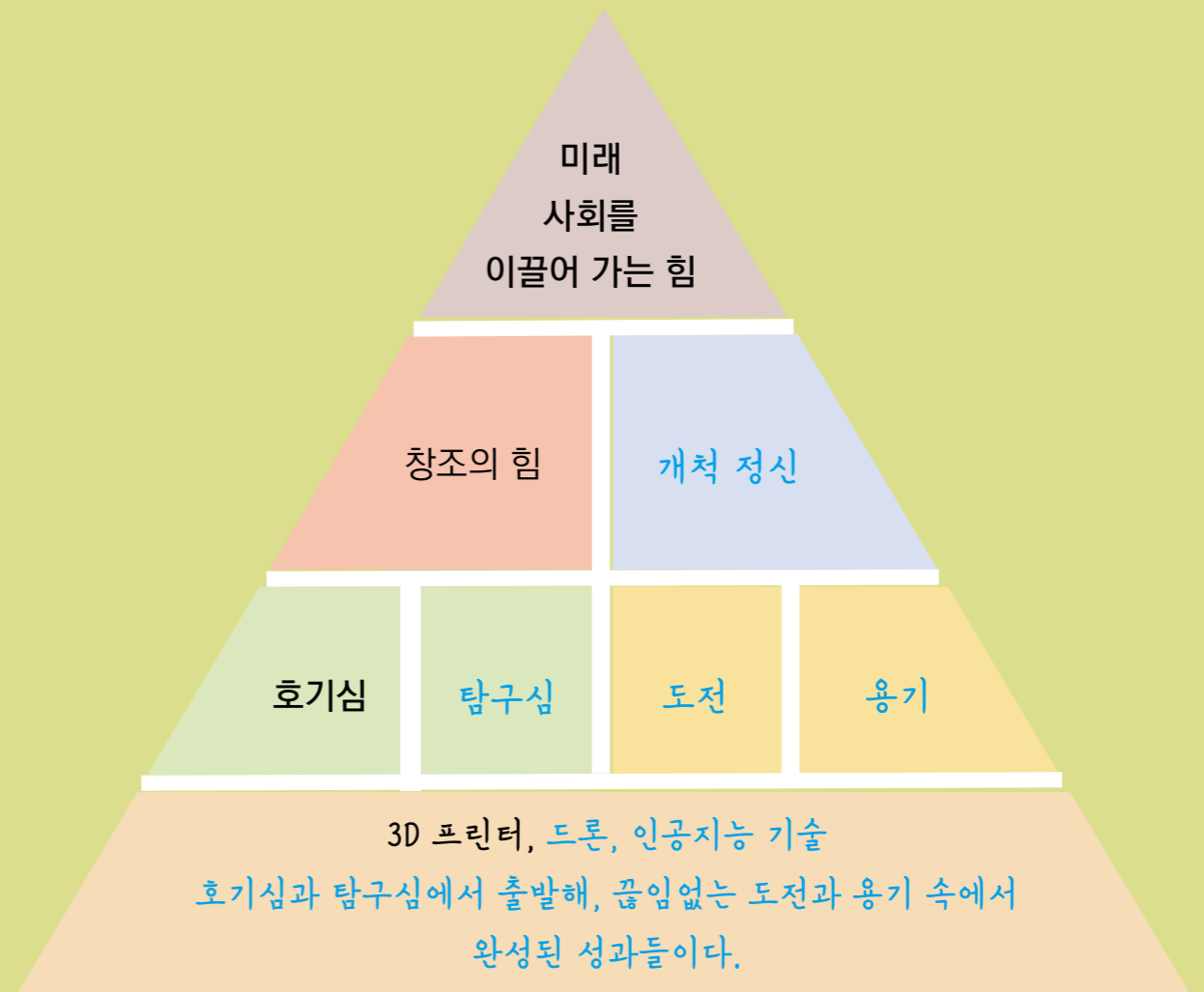
21세기는 기술 그 자체보다 사람의 창의력과 개척 정신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이다. 호기심과 탐구심은 창조의 뿌리이고, 도전과 용기는 개척의 날개이다. 이 네 가지 힘을 함께 키워 갈 때 우리는 미래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갖추게 된다. 창조의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개척 정신으로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일의 주역이다. 앞으로 우리는 창조의 힘과 개척 정신으로 미래를 스스로 열어 가야 한다.



1 '미래를 여는 힘'을 읽고 피라미드 구조로 시각화해 봅시다.

이렇게 해요

- ❶ 모둠별로 큰 종이에 피라미드 구조 틀을 그려요.
- ❷ 259쪽의 '도움 자료3'의 카드를 뜯어요.
- ❸ 먼저 낱말이 적힌 카드를 모둠원과 상의하며 피라미드 구조 틀에 분류해서 놓아요.
- ❹ 빈 카드에 모둠원이 나누어서 필요한 낱말을 더 써요.
- ❺ 새로 적은 카드를 피라미드 구조 틀에 분류해서 놓아요.
- ❻ 모둠원과 피라미드 구조를 어떻게 써 넣을지 토의하고 아래 표를 완성해요.



2 질문을 읽고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며 글을 정리해 봅시다.

01 창조의 힘이 중요한 이유를 써 보세요

>>> 창조의 힘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며 그 출발점이 되는 호기심과 탐구심이 발명과 발견을 이끌어 낸다. 호기심과 탐구심이 함께 작용할 때 창조적 생각이 깊어지고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02 개척 정신이 중요한 이유를 써 보세요.

>>> 창조의 힘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며, 그 출발점이 되는 호기심과 탐구심이 발명과 발견을 이끌기 때문이다. 호기심과 탐구심이 함께 작용할 때 창조적 생각이 깊어지고,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03 핵심어인 ‘호기심, 탐구심, 도전, 용기’를 넣어 중심 생각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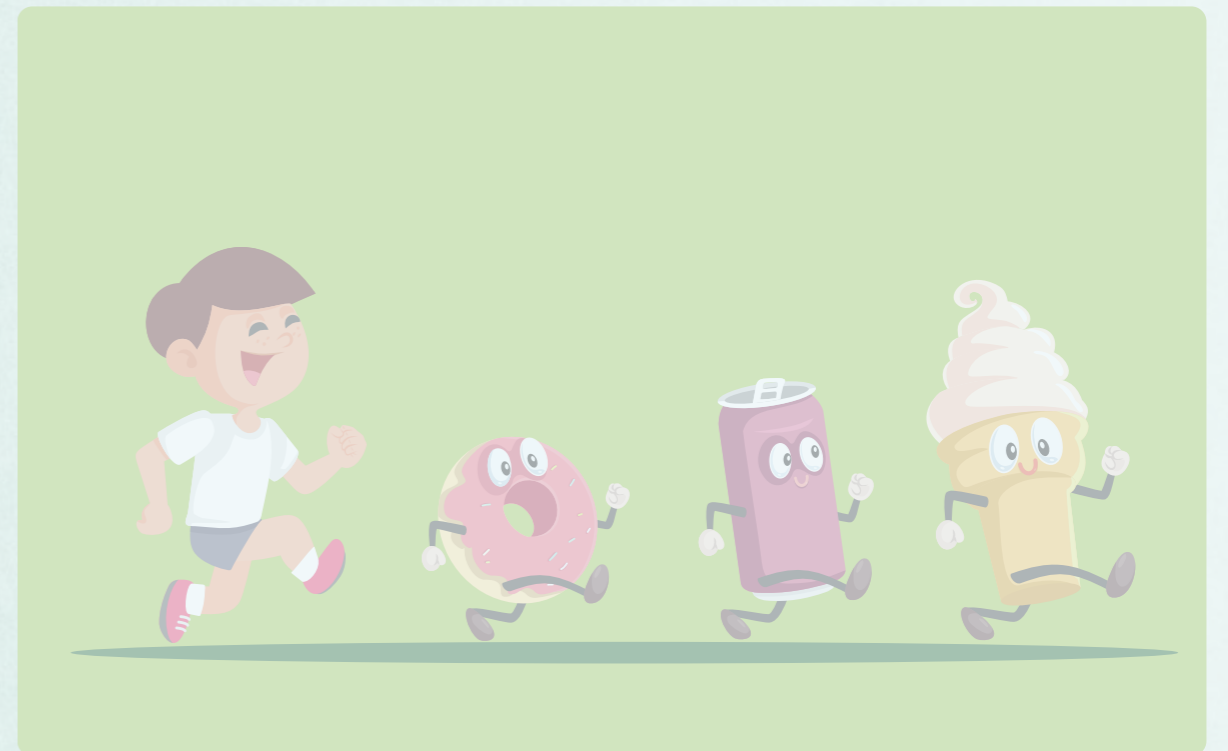
>>> 호기심은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탐구심은 그 생각을 실제로 발전시키는 힘이 된다. 도전은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며, 용기는 실패를 넘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네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창조의 힘과 개척정신을 이룬다.

활동  
3

문제 해결 구조

어린이 당뇨병

- 문제 해결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이해해요.



단 음식과 음료를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나요?



질문과 그림을 보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 어린이 당뇨병 건강하게 관리해요!

❖ 당뇨병은 어떤 병인가요?

❖ 왜 당뇨병이 생길까요?



❖ 어떻게 치료 하나요?

❖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 관리가  
중요해!



문제 해결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어린이 당뇨병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 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당뇨병을 어른만의 병으로 생각하지만, 어린이도 걸릴 수 있으며 그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어린이 당뇨’, ‘어른 당뇨’라고 나누어 불렀지만, 지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구분한다.

제1형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병이다. 주로 유전적 요인이나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며, 식습관과는 큰 관련이 없고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를 위해서는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나오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병이며,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고칼로리 음식을 주로 하는 식습관 등이 주요 원인이다.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병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어린이 당뇨병은 유형에 따라 원인과 관리 방식이 달라지는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제1형 당뇨병일 경우는 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 같은 기계를 사용하기도 하고, 올바른 식사와 운동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어린이 혼자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부모님과 선생님의 도움, 그리고 의료진의 관리가 꼭 필요하다. 최근에는 인슐린 펌프를 단 인형도 나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배우도록 돕고 있다. 제2형 당뇨병일 경우 치료의 핵심은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며,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 통곡물, 단백질 음식 등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하루 1시간 이상 걷기, 달리기, 줄넘기 같은 운동을 하는 게 좋다. 학교에서도 탄산음료 자판기를 줄이고, 체육 시간을 늘리며, 급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1형이든 제2형이든 어린이가 당뇨병에 걸렸을 때는 전문적인 의료인,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어린이 당뇨 전문의는 인슐린 조절이나 전반적인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간호사는 당뇨를 조절 관리하고, 영양사는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사회복지사는 당뇨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방황할 때 심리적으로 도와야 한다. 나아가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까지도 세심하게 관리해 주는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 어린이 당뇨 환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당뇨 캠프나 당뇨 소식지를 발간하여 어린이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런 기회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문제 제시      어린이 당뇨병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 문제 정의      당뇨병이 무엇이며 왜 생기나요?
- 문제 해결 방법 제시      치료 방법과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선의 해결 방법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어린이 당뇨병'을 읽고 문제 해결 구조로 정리해 봅시다.

● 문제 제시

» 최근 어린이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당뇨병이 어른만의 병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지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으로 구분해 진단한다

● 문제 정의

»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병이다. 제1형은 주로 유전적 요인이나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며, 식습관과는 큰 관련이 없고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제2형은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인슐린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문제 해결 방법 제시

» 어린이 당뇨병은 유형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진다. 제1형은 인슐린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인슐린 주사와 혈당 조절 기계 사용이 필요하며, 부모, 교사, 의료진의 지속적인 도움이 중요하다. 반면 제2형은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어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치료의 중심이 된다. 학교에서도 건강한 급식과 운동 환경을 마련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 최선의 해결 방법

>>> 어린이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1형과 제2형의 차이를 고려하되, 의료진·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나누어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당뇨 캠프 등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법이다.

2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 봅시다.

01 글쓴이는 왜 ‘의료인, 가정, 학교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을까요?

>>> 글쓴이가 의료인, 가정, 학교, 사회의 협력을 강조한 이유는 어린이 당뇨병 관리가 한 사람이나 한 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슐린 조절, 식습관 관리, 운동,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주체가 함께 역할을 나누어 협력해야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를 할 수 있다.

02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새로운 방법을 더 제안하겠습니까?

>>> 혈당 관리 스마트 기기 개발 부모 대상 교육 강화, 학교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아동용 식단 앱 운영 등 기술과 교육을 결합한 방식을 제안합니다.

활동 4

주장과 근거 구조

멸종 위기의 백상아리

●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글을 이해해요.



백상아리가 바다표범을 삼키고 있는 장면



사진과 주장과 근거 구조를 보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 백상아리: 악상엇과의 하나. 상아리는 이빨의 어원으로 순우리말이고, 백(□)은 한자어로 흰색이란 뜻이다. 영어로는 Great White Shark이다.



주장과 근거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멸종 위기의 백상아리

영화나 책에서 본 장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상아리를 사냥고 위험한 동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백상아리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생물이다. 백상아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바다 생태계에서 백상아리가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는 일은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백상아리는 수족관에서도 제대로 살기 어려울 만큼 특별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동물이다. 세계 어느 수족관에서도 백상아리를 오래 기른 사례가 없는 이유는 단순히 사냥기 때문이 아니라, 백상아리가 넓은 바다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가는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백상아리는 하루에 100킬로미터 이상을 헤엄쳐야 하고, 헤엄치는 동안 아가미로 바닷물을 흘려보내며 산소를 얻는다. 좁은 수조에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없어 호흡이 어렵고, 낮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먹이도 거의 먹지 않는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백상아리를 사육하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죽고 말았다. 이처럼 백상아리는 자연 그대로의 넓은 바다에서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섬세한 동물이다. 이러한 모습은 백상아리를 보호하는 일이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바다 환경을 함께 지키는 일임을 보여 준다. 백상아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바다 생태계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백상아리는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최상위 포식자이다. 백상아리는 아주 강한 턱과 톱니 모양의 이빨, 그리고 '로렌치니 기관'이라는 특별한 감각 기관이 있어서, 물개나 바다표범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도 잡아 낼 수 있다. 이런 백상아리가 사라진다면 중간 포식자인 물개나 바다표범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어 하위 먹이종인 작은 물고기들이 급격히 줄어서 바다의 먹이 사슬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상어가 줄어든 뒤 중간 포식자가 너무 늘어나서

해초 숲과 산호초가 파괴된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백상아리를 지키는 일은 바다 생태계 전체를 지키는 일과 같다.

백상아리는 인간의 활동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며, 멸종 위기에 놓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지구 온난화이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백상아리가 먹던 물고기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백상아리는 먹이를 찾아 더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해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 집어 장치이다. 이 장치에 모여든 여러 해양 생물을 잡는 과정에서, 백상아리도 잡혀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남획이다. 상어 지느러미를 자르는 삭스핀 요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상어가 지느러미만 잘린 채 바다에 버려졌다. 이런 방식은 편닝이라고 하는데, 백상아리를 포함한 상어들이 죽는 원인 중 하나이다. 1980년대 이후 인도양과 대서양에서 엄청난 수의 상어가 이러한 방식으로 죽었고, 백상아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네 번째 이유는 백상아리는 사람을 공격하는 식인 상어라는 오해이다. 영화 죠스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 실제로 백상아리가 사람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예는 거의 없다. 다만 상어가 낚선 것에 대한 호기심에서 무는 경우가 있는데,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호주에서는 관광객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백상아리의 사살을 허용하는 정책이 있었다. 해변 근처에 상어가 나타나지 못하게 그물을 설치하거나, 발견된 상어를 사살하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와 환경 단체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해양 생태계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반대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호주 동부 해안의 백상아리는 50년 동안 90%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많은 압력을 받고, 사살 정책을 대폭 축소시켰다.

백상아리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한 동물을 지키는 것을 넘어 바다 전체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은 이미 백상아리를 **◆** 취약 등급

◆ 집어: 고기 뼈를 모으는 일

집어 장치: 물고기뼈를 유도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만든 장치

으로 지정했고, 여러 나라가 포획을 금지하고 보호 구역을 만드는 등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백상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함께 행동해야 한다.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기, 해양 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기, 바다 오염을 줄이기, 백상아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변에 알리기 등을 할 수 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백상아리가 다시 건강하게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먼저 올바르게 알고 행동할 때 바다와 백상아리도 함께 지킬 수 있다.

### 국제자연보호연맹의 멸종 위기 등급 분류

#### EX 멸종

현재 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EW 야생에서 멸종

사육 재배 토착 서식지에서만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CR 심각한 위기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 EN 멸종 위기

야생에서 멸종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 VU 취약

◆ 인간의 개입이 없으면 멸종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NT 준위기

가까운 미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LC 우려 없음

야생에서 널리 분포하고 풍부합니다.

#### DD 정보 부족

멸종 위험을 평가하기에 정보가 부족합니다.

#### NE 아직 평가 되지 않음

아직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은 백상아리를 **◆** 취약 등급으로 지정하였다.

1 '멸종 위기 백상아리'를 읽고 주장과 뒷받침 근거 구조로 정리해 봅시다.

주장

>>> 백상아리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생물이다.

근거 1

>>> 백상아리는 하루에 100킬로미터 이상을 헤엄쳐야 호흡과 생존이 가능한 매우 섬세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동물이다. 백상아리는 자연 그대로의 넓은 바다에서만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백상아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살아가는 바다 환경을 함께 보전한다는 뜻이며, 이는 바다 생태계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근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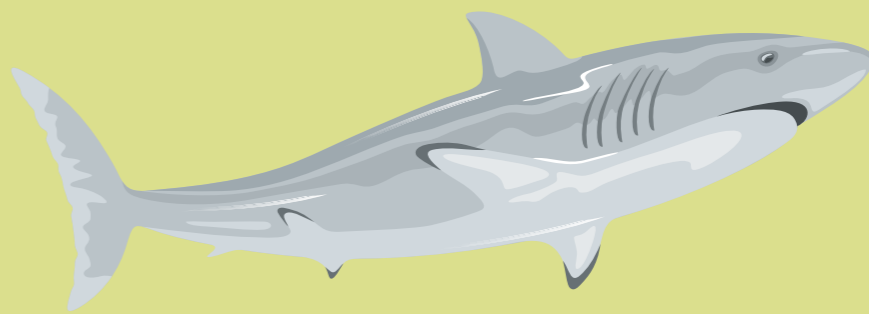
>>> 백상아리는 바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이다. 백상아리가 사라지면 물개나 물범 같은 중간 포식자가 지나치게 증가해서 하위 먹이종인 어류가 줄어들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백상아리를 보호하는 것은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핵심 근거가 된다.

근거 3

>>> 백상아리가 급격히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활동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로 먹이가 사라지고, 집어 장치에 걸려 죽는 사례가 많으며, 삭스핀을 얻기 위한 남획으로 1980년대 이후 엄청난 수가 사라졌다. 또한 '식인 상어'라는 오해 때문에 호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백상아리를 사살하는 정책이 오랫동안 시행되었다. 실제로 호주 동부 해안에서는 백상아리가 50년 동안 90%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잘못된 인간 활동이 백상아리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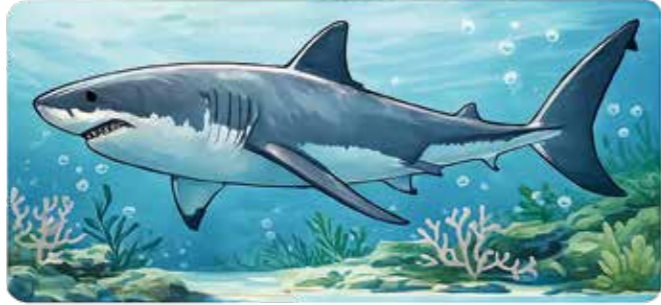
근거 4

>>> 백상아리는 이미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에서 멸종 위험이 큰 '취약 등급'으로 지정된 종이다. 여러 나라가 백상아리 포획을 금지하거나 보호 구역을 만들며 국제적인 보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백상아리를 보호하는 일이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 준다.



## 2 '멸종 위기 백상아리'에 대한 레드북을 만들어 봅시다.

## 레드북



생물 이름: 백상아리

국제 멸종 위기 등급: 취약 등급

위기에 처한 이유: 백상아리가 멸종 위기에 처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먹이 물고기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집어 장치에 걸려 죽는 경우도 많다. 또한 상어 지느러미를 얻기 위한 남획과 백상아리를 식인 상어로 오해해 사살한 정책도 개체 수가 줄어든 원인이 되었다.

국제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 노력(국제 노력):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백상아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은 백상아리를 취약 등급으로 지정하였고, 여러 나라에서도 포획을 금지하며 보호 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노력: 백상아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해양 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며 바다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또한 백상아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 실천이다.

레드북: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라는 국제 환경 단체가 어떤 생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계별로 알려 주는 책

## 마무리

3단원을 마무리 지어 봅시다.

▣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 물 분쟁 시대

- ① 세계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인류가 물을 둘러싼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내리는 비의 양이 줄고, 산업 및 생활용 물 사용량은 계속 증가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물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유엔은 2030년경 전 세계 인구의 약 30억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물을 둘러싼 분쟁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 준다.
- ② 물 부족은 단순히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사람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이다. 현재도 세계 약 11억 명이 깨끗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고, 위생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더러운 물로 인해 질병이 쉽게 퍼진다. 깨끗한 물만 안정적으로 공급되었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특히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필요한 최소한의 물조차 확보하지 못해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물 부족은 안전과 생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 ③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개인과 사회는 물 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는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고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사용한 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이나 빗물을 정화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물 사용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은 초기 비용이 크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물 부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결책이다. 셋째,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강과 호수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제 협약을 체결하는 일도 필요하다. 다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협상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숲을 보호하고 하천을 복원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은 긴 시간

마무리

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물이 저장되고 순환되는 자연 환경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처럼 해결 방안들은 모두 의미가 있지만 즉각적 효과, 지속 가능성, 실현 난이도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다.

- 4 여러 방안을 종합해 보면,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협력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물은 한 나라만의 자원이 아니며, 강과 호수를 함께 사용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국제 협약을 통해 물을 공정하게 나누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협력이 이루어질 때 물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숲 보호, 하천 복원, 담수화 기술과 같은 장기적 해결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미래 세대가 사용할 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물 부족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과제이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우리는 물 분쟁 시대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1 '물의 분쟁 시대'를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 표시를 해 봅시다.

01 1 문단에서 글쓴이가 '물 분쟁 가능성'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기술 발전의 한계를 먼저 비판한다.
- ② 미래 분쟁을 단정적으로 예언해 설득력을 더한다.
- ③ 특정 국가의 물 관리 실패를 들어 주장을 전개한다.
- ④ 물 부족 사례를 감정적으로 호소하여 독자의 불안을 자아낸다.
- ✓ ⑤ 기후 변화와 물 사용 증가라는 원인을 제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02

2 문단에서 물 부족을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는 문제'로 보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물 재활용 기술 개발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 ② 기후 변화로 비가 줄고 물 사용량이 증가한다.
- ③ 국제 협약 체결이 국가 간 이해관계로 어려움을 겪는다.
- ④ 유엔이 2030년 물 부족 인구를 30억 명으로 예측한다.
- ✓ ⑤ 세계 11억 명이 깨끗한 식수를 얻지 못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03

3 문단에서 제시된 해결 방안 중 장기적 구조 개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물 절약을 생활화한다.
- ✓ ② 숲을 보호하고 하천을 복원한다.
- ③ 물 재활용과 빗물 정화 기술을 발전시킨다.
- ④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단기 지원을 늘린다.
- ⑤ 강과 호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국제 협약을 체결한다.

04

3 문단에서 여러 해결 방안을 비교하고 검토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모든 해결 방안이 실현 불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 ② 국제 협력의 어려움을 드러내 다른 방안을 우선시하기 위해서다.
- ✓ ③ 각 방안의 즉각적 효과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 ④ 개인적 물 절약의 한계를 강조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 ⑤ 기술적 해결책만이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05

글에서 '국제적 협력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최선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 ① 물이 국경을 초월한 공유 자원이기 때문이다.
- ② 개인적 물 절약의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 ③ 자연 환경 복원이 가장 빠른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 ④ 단기적 지원만으로 미래 갈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기술적 해결책만이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06

글의 전체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사례 중심으로 문제만 설명
- ② 원인 분석 후 해결책 없이 마무리
- ③ 기존 방안 비판 후 새로운 대안 제시
- ④ 하나의 해결책만 제시하고 우월성만 주장
- ✓ ⑤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법을 비교해서 최선의 방법을 제시

07

다음 중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은 무엇인가요?

- ① 물 절약만 실천하면 물 분쟁은 완전히 사라진다.
- ② 물 부족 문제는 기술만 발전시키면 쉽게 해결된다.
- ③ 물 부족은 특정 지역의 문제이므로 그 지역이 해결해야 한다.
- ✓ ④ 물 부족 문제 해결은 인류 전체가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⑤ 물 부족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물의 분쟁 시대'를 주장·근거 구조의 글로 바꾸어 써 봅시다.

>>>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협력이다. 현대 사회에서 물 부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물을 둘러싼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 첫째, 물은 한 나라만의 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가 같은 강과 호수를 공유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가 물을 많이 사용하면 다른 나라가 피해를 보게 된다. 기후 변화로 비가 내리는 양이 줄고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둘째, 물 부족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세계에는 아직도 약 11억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으며, 위생 시설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 관련 질병에 걸리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몇몇 지역에서는 하루 필요한 최소한의 물을 확보하지 못해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 셋째, 물 문제는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강의 물 사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물을 공정하게 나누어 쓰도록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이처럼 물 부족 문제는 한 나라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각 나라가 함께 기술을 공유하고, 물을 절약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국제 사회가 협력할 때 비로소 물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가 사용할 물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물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은 국제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4.

# 깊이 읽기 I

## 깊이 읽기 I 무엇을 배울까요?

\* 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이 어떻게 구성되고 전개되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 편의 글 속에는 사실과 의견, 사건의 흐름, 원인과 결과, 중심 문장과 중심 생각, 비교와 대조, 등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는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해 요소들을 따로따로 배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한 편의 글을 읽으며 여러 요소를 동시에 적용해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 1 사실과 의견에 대한 질문

글을 읽을 때는 먼저 사실이 무엇을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견이 어떤 관점에서 나온 판단인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며, 의견은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주장이나 관점을 드러냅니다. 이 둘을 구별하여 읽으면 글의 흐름을 더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글쓴이가 어떤 이유로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 일이 일어난 차례에 대한 질문

일이 일어난 차례를 정확히 파악하면, 글의 구조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들 사이의 연결 관계와 전개 방식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읽는 것은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고 글 전체의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3 추론하기에 대한 질문

글쓴이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읽는 이가 스스로 이해해야 하는 숨은 의미가 존재합니다. 글을 읽을 때에는 문장 사이에 놓인 단서, 그리고 글 전체의 흐름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론은 단순히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글에 제시된 사실, 행동, 상황의 변화, 표현

방식 등을 근거로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감정, 이유, 결과 등을 논리적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추론하며 읽으면, 글쓴이가 직접 설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이해하게 되어 중심 의미, 인물의 의도, 사건의 전개 이유 등을 더 깊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을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4 중심 문장과 중심 생각에 대한 질문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단과 글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 문단 안에는 여러 정보가 제시되지만, 그 가운데 문단의 핵심 의미를 대표하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입니다. 중심 문장이 글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문단의 흐름과 뒷받침 문장들을 종합하여 문단이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을 스스로 도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문단의 중심 내용을 연결해 보면, 글쓴이가 전체 글을 통해 전하려는 중심 생각, 즉 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심 생각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글 전체의 전개 방식과 글쓴이의 의도를 고려하여 도출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글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 구조 속에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5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질문

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은 대부분 우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흐름 속에서 전개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나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결과를 살펴보면 글의 구조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히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다'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 원인이 동시에 작용했는지, 결과가 다시 다음 사건의 원인으로 이어지는지 등을 연결지어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글을 읽을 때 사건의 흐름을 이러한 관계 속에서 파악하면, 글쓴이가 드러내고자 한 전개 과정과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 단원에서는 위의 5가지 질문 외에 글의 구조에 대한 질문 등으로 글을 종합적으로 읽는 능력을 키워 봅시다. 루스벨트의 긍정적인 꿈 키우기, 침팬지의 친구 제인 구달, 아루트로 토스카니니, 조지아 오키프와 긍정의 꿈 글을 읽고 내 꿈에 대한 글도 써 봅시다.

읽기  
방법

## 깊이 읽기 I 이렇게 읽어요



읽기 전에:

'깊이 읽기 I'의 글을 읽기 전에 배경 지식을 넓히는 활동을 해 보아요.



읽으면서:

'깊이 읽기 I'의 '시작하며'에서 제시한 다섯 질문 등을 생각 하며 글을 읽어 보아요.



읽고나서:

글을 읽고 중심 문장, 중심 생각, 비교·대조, 원인과 결과 등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요.

활동  
1

깊이 읽기 I

루스벨트의  
긍정적인 꿈 키우기

- 종합적으로 사고하며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뉴욕 허드슨 강변에 있는 루스벨트의 동상



진한 글씨의 낱말만 훑어 보고 글을 예상해 봅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지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일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몸이 허약해 자주 병을 앓았고, 또래보다 체력이 뒤처져 자신감이 부족했다.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자신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책에서 읽은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용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루스벨트는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조용히 거울 앞에 섰다. 눈을 찡그리고,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고, 밝게 웃는 표정을 지어 보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어떤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을까?’ 한참을 거울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굳은 표정, 주저하는 시선, 자신감 없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그때부터 루스벨트는 매일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얼굴이 굳어서 웃는 흉내만 겨우 낼 수 있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표정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하곤 했다. 이러한 자기 암시는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의 행동과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표정이 변하자 마음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자 행동이 변했다. 그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고, 이전보다 자신감 있게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 루스벨트에게 거울 앞에서의 연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Scanning 읽기:

읽기 전에 각 문단의 주요 낱말을 먼저 읽고 글을 읽으면 집중해서 읽게 되고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종합적 사고를 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루스벨트의 긍정적인 꿈 키우기

- 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지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일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몸이 허약해 자주 병을 앓았고, 또래보다 체력이 뒤처져 자신감이 부족했다.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자신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책에서 읽은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용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 ② 루스벨트는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조용히 거울 앞에 섰다. 눈을 찡그리고,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고, 밝게 웃는 표정을 지어 보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어떤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을까?’ 한참을 거울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굳은 표정, 주저하는 시선, 자신감 없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그때부터 루스벨트는 매일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다.
- ③ 처음에는 얼굴이 굳어서 웃는 흉내만 겨우 낼 수 있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표정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하곤 했다. 이러한 자기 암시는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의 행동과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표정이 변하자 마음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자 행동이 변했다. 그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고, 이전보다 자신감 있게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 루스벨트에게 거울 앞에서의 연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 ④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또 한 번 큰 시련이 찾아왔다. 39세에 걸린 소아마비가 그의 하반신을 평생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누구라도 절망했을 상황이었지만, 루스벨트는 예전처럼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다시 한 번 자신을 단단하게 세웠다. 재활 훈련을 이어 갔고, 정치 활동도 계속했다.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길을 찾아 나아갔다. 그의 아내 엘리너는 남편의 끈기와 용기를 보며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 5 루스벨트는 결국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었고,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말했다.

“올바른 정신에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힘이 있었지만, 과장되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 때로는 친구에게 말하듯 차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국민을 설득했다. 그는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지도자였다.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아내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생각한 뒤 결정을 내렸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다.

- 6 루스벨트의 삶을 돌아보면, 그를 가장 강하게 만든 힘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 앞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긍정의 힘이었다. 그 힘은 질병, 위기, 절망을 넘어서는 원동력이 되었고, 결국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되었다. 루스벨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 준다.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 루스벨트의 우표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글을 읽고 인상 깊었던 문장은 무엇인가요?

동기 부여

>>> 용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2 ③ 문단의 중심 문장을 써 보세요.

중심 문장

>>> 루스벨트에게 거울 앞에서의 연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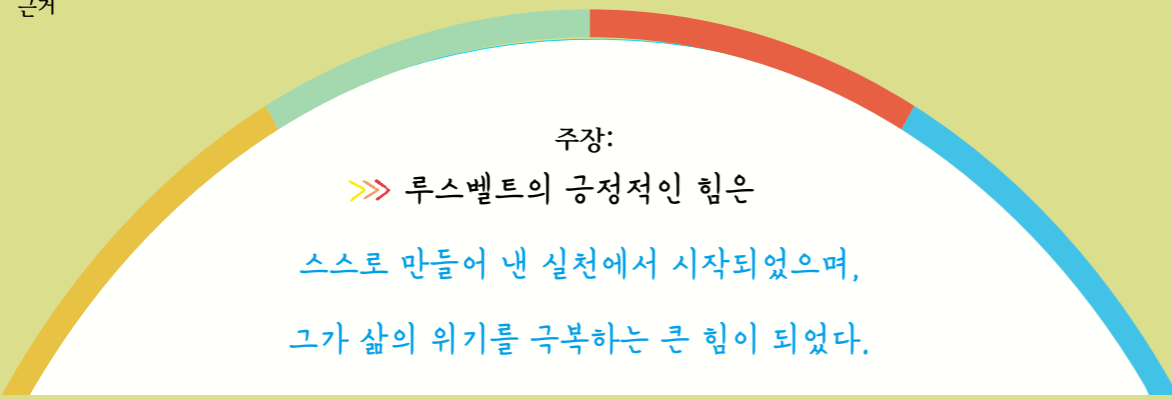
3 루스벨트가 웃는 연습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대조해 설명해 보세요.

비교 대조

>>> 루스벨트는 웃는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몸이 허약하고 자신감이 부족해 매사에 소극적이었으며, 표정도 굳어 있어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거울 앞에서 꾸준히 웃는 연습을 하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암시를 반복한 뒤에는 밝은 표정을 짓게 되었고, 행동도 적극적으로 변했으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4 루스벨트의 긍정의 힘은 그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주장 근거



근거 1	근거 2	근거 3
>>>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으로 자기 암시를 하여 자신감을 회복했다	>>> 소아마비라는 큰 시련도 같은 방식으로 극복했다.	>>> 대통령이 되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지도자가 되었다.

5 루스벨트는 '올바른 정신에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라고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정신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 표시를 해 보세요.

추론하기

- ① 감정적으로 국민을 강하게 설득하려는 의지.
- ② 국민의 비판을 먼저 생각하며 조심하는 마음.
- ③ 위기 상황을 피하고 안전한 선택만 하려는 태도.
- ④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태도.
- ✓ 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희망과 용기를 갖고, 긍정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

활동 2

깊이 읽기 I 제인 구달

● 종합적으로 사고하며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제인 구달 우표



사진과 지도와 글을 읽고 글을 예상해 봅시다.



제인 구달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곰베 국립공원'에서  
야생 침팬지를 연구했어요.  
매일 산에 올라 침팬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답니다.



종합적 사고를 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제인 구달

- 1 제인 구달은 그레이비어드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제인은 커다란 침팬지의 털 색깔을 보고 그레이비어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여러 차례 멈추어 서서 제인이 따라올 수 있게 했다. 둘은 산속 계곡에서 함께 물을 마셨다. 제인은 바닥에서 빨간 야자열매를 주워서 그에게 건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서 제인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제인은 이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하고, 탄자니아의 '곰베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있었던 가장 행복했던 날로 기억한다.
- 2 제인 구달은 영국의 런던에서 1934년에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소설을 읽고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195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인은 비서로 일을 시작했다. 1956년 5월에 케냐에 있던 학교 친구가 초대하자 열심히 여비를 모아서 케냐로 떠났다.
- 3 한 달 후 제인은 케냐에 도착해서 루이스 리키 박사를 만났다. 리키 박사는 선사시대 인류를 연구하는 유명한 과학자였다. 그는 침팬지를 관찰하고 연구할 사람이 필요했다. 제인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리키 박사는 학력에는 관심이 없었고, 열린 마음과 지식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는 제인이 침팬지를 연구하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 4 그때까지 야생 침팬지 연구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다. 제인은 침팬지를 가까이서 관찰하려면, 먼저 침팬지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5시 30분에 일어나서 침팬지가 사는 숲 근처로 갔다. 거기서 얇전하게 조용히 있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침팬지들은 그녀의 등장에 익숙해졌다. 은빛 얼굴에 난 털 때문에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라는 이름을 지어준 침팬지에게 제인 구달이 빨간 열매를 집어 그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그레이비어드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열매를 받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짚 주었다. 이것은 침팬지들이 서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이었다. 그동안 야생에서 침팬지에게서 그런 신뢰를 얻었다는 보고를 한 연구자는 없었다. 그 순간



을 제인 구달은 잊을 수 없었다.

"경외감과 경이로움 그리고 기쁨이 느껴졌어요. 세상을 가로지르는 소통이었어요."

- 5 어느 날 아침 제인은 그레이비어드와 다른 침팬지들이 나뭇가지에서 결가지를 떼고 잎을 벗겨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곤 나뭇가지 끝을 씹어서 부드럽게 하더니 흰개미 구멍에 찢러 넣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빼내니까 끝에 흰개미들이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었다. 그레이비어드는 나뭇가지를 사냥 도구로 만들어서 흰개미를 잡아먹었다. 제인의 발견에 과학자들이 크게 놀랐다. 그때까지 그들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키는 구달이 보낸 전보에 '우리는 인간을 재정의하거나 침팬지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6 제인은 침팬지에 관한 중대한 발견을 하나 더 했다. 과학자들은 침팬지가 초식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침팬지들이 콜로부스 원숭이를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 한 무리의 침팬지가 나무 위 높은 곳에 있는 콜로부스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에워싸고, 한 녀석이 올라가서 잡는 장면을 목격했다. 제인은 침팬지가 사람처럼 육식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침팬지의 원숭이 사냥은 기존의 생각을 뒤엎는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었다.
- 7 콰베에서 연구하는 동안 제인은 영국에 여러 번 다녀왔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케임브리지에서 학사 학위 없이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여덟 명뿐이었다. 제인은 1965년에 박사가 되었다. 그녀의 연구는 침팬지들의 도구 사용, 복잡한 감정, 사회적인 유대, 조직적인 전쟁, 육아 교육 등 인간을 닮은 면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연구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른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 8 2025년 10월 1일, 제인 구달은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세계 곳곳을 다니며 환경 보호와 야생 동물 보전에 대해 강연을 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경 보호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③ 문단의 중심 문장인 의견 문장을 써 보세요.

중심 의견  
문장 문장

>>> 그는 제인이 침팬지를 연구하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2** ③ 문단의 뒷받침 문장인 사실 문장을 찾아 써 보세요.

뒷받침 사실  
문장 문장

- 한 달 후 제인은 케냐에 도착해서 루이스 리키 박사를 만났다.
- 리키 박사는 선사시대 인류를 연구하는 유명한 과학자였다.
- 그는 침팬지를 관찰하고 연구할 사람이 필요했다.

>>> • 제인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리키 박사는 학력에는 관심이 없었고, 열린 마음과 지식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다.

**3** 제인이 침팬지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과 그 결과 나타난 변화를 써

원인 결과  
보세요.

**원인** >>> 제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조용히 숲으로 가서 침팬지들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결과** >>> 침팬지들이 제인의 존재에 익숙해지며 신뢰하게 되었고,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다.

4 제인 구달의 연구가 인류 연구에 큰 영향을 준 원인과 결과를 글의 내용으로 설명해 보세요.

**원인** >>> 제인은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과** >>>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는 인간뿐이라는 생각이 바뀌었다.

5 제인 구달의 연구는 침팬지들의 도구 사용, 복잡한 감정, 사회적인 유대, 조직적인 전쟁, 육아 교육 등 인간을 닮은 면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과학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결과** >>> 인간이 다른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6 만약 내가 제인 구달처럼 야생 동물 연구자가 된다면, 어떤 연구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글의 사례와 내 생각을 써 보세요.

>>> 야생 동물을 연구하려면 제인 구달처럼 동물을 존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매일 새벽에 숲에 가서 조용히 기다리며 침팬지의 신뢰를 얻은 것처럼, 연구자도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속도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꾸준히 관찰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활동 3

깊이 읽기 I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 종합적으로 사고하며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우표



어떤 내용일지 질문을 만들어 글의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 질문 만들기

- 시력의 한계를 극복한 어린 토스카니니

질문: 시력이 좋지 않았던 그는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했을까?

- 예기치 못한 기회, 19세에 지휘자가 되다

>>> 질문:

- 첫 무대를 압도한 젊은 지휘자의 힘

>>> 질문:

- 완벽을 추구하는 음악가로 성장하다

>>> 질문:

- 한 음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연주

>>> 질문:

- 예술과 신념을 지킨 세계적 거장

질문: 어떤 신념을 보여 주었을까?



SQ3R 읽기:

읽기 전에 제목과 사진 그리고

132쪽의 글을 읽어 보고 질문을

만들어 적어 보세요. 질문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 보세요.



질문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인 파르마의 음악원에 첼로를 연주하는 소년이 있었다. 심한 근시라서 가까이 있는 악보조차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악보도 제대로 못 보면서 무슨 연주를 하겠어?”

친구들이 놀렸지만,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악보를 눈앞에 바짝 대고 들여다보며 밤늦도록 한 음 한 음 모두 외웠다.

“악보를 볼 수 없다면 머리로 기억해 두면 돼. 첼로를 연주하는 내 손은 아주 날래니까.”

소년은 자신의 악보뿐만 아니라 다른 연주자들의 악보까지 외워버렸다. 이 소년이 훗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 토스카니니였다.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는데 뜻밖에도 19세에 지휘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1886년 브라질 순회공연에서 베르디의 아이다를 공연하던 날, 지휘자와 악단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겨 지휘자가 공연 직전에 자리를 떠나 버린 것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악단은 누군가가 지휘를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전곡을 완전히 외우고 있었던 토스카니니에게 부탁했다. 지휘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그는 단원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지휘봉을 잡았다.

토스카니니는 2시간 반 동안 젊은 지휘자다운 활기와 뛰어난 음악적 표현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는 무대에 서는 순간, 마음속에 그려둔 소리를 단원들에게 전하듯 지휘를 시작했다. 지휘봉이 가볍게 공기를 가를 때마다 선율이 더욱 선명해졌고, 소리와 악기는 정확한 호흡으로 맞물려 조화로운 울림을 만들어 냈다. 청중은 이름조차 몰랐던 젊은 지휘자가 보여 준 진지한 열정과 높은 음악성에 놀랐고, 공연이 끝나자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토스카니니는 본격적인 지휘자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이탈리아의 오페라 극장을 비롯해 유럽과 미국에서 활약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악보를 완벽히 외우는 습관은 토스카니니만의 독특한 특징이 되었고, 한 음도

틀리지 않게 연주해야 한다는 그의 철저함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긴장시켰다. 언젠가 총연습을 하다가 ‘그 음은 올림표(#)가 아니라 내림표(b)야!’라고 소리쳤다. 단원들이 확인해 보니 인쇄 오류로 악보에 내림표가 올림표로 찍혀 있었다고 한다.

토스카니니는 명쾌하고 강렬하게 지휘했다. 그는 리듬의 흐름을 정확히 잡고 악기들이 서로 얽히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했다. 때로는 폭풍처럼, 때로는 실바람처럼, 소리의 완급이 분명했다. 단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연주하면 즉시 연주를 멈추고 다시 맞출 정도로 완벽을 추구했다. 그런 엄격함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와 함께 연주했던 단원들은 ‘토스카니니의 열정에 감화되어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게 되었다.’라고 회상했다.

토스카니니는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세계 음악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시력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악보를 통째로 암기하던 습관은 세계 음악을 이끌 수 있었던 큰 자산이 되었으며, 그는 오늘날까지도 악보를 마음으로 읽은 지휘자로 기억되고 있다. 노년에도 연습실에 나가 젊은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었고, ‘음악은 진실을 향한 영원한 여정’이라는 자신의 음악 철학을 실천했다. 그는 뛰어난 재능에 더해 진정성과 책임감을 지닌 참된 예술가였다.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된 후 지휘자가 된 토스카니니의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세요.

» 어린 시절의 토스카니니는 심한 근시로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악보를 눈앞에 바짝 대고 밤늦도록 외우는 끈기와 성실함을 보여 주었다.

지휘자로 성장한 이후의 토스카니니는 완벽한 암기 능력과 강한 집중력, 그리고 엄격함과 뛰어난 음악적 표현력으로 세계적인 거장이 되었다. 그는 리듬과 선율의 균형을 세밀하게 조율하며 연주자들을 이끌었고, 확고한 신념과 용기를 갖춘 예술가로 존경받았다.

즉, 어릴 때의 약점을 극복하고 노력과 성실함을 통해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장했다.

**2** 토스카니니가 첫 지휘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원인’과 ‘결과’를 쓰세요.

원인  
결과

원인

» 첼로 연주 부분의 악보만 외운 것이 아니라 악보 전체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지휘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이 준비된 상태였다.

결과

» 첫 무대에서 첫 무대에서 청중과 단원들을 압도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3 말과 행동으로 토스카니니의 성품을 추론해 보세요.

추론하기

글 속 말과 행동	성품 추론하기
악보가 잘 보이지 않아도, 눈앞에 바짝 대고 밤늦도록 한 음 한 음 외웠다.	끈기가 있고 성실하다.
자신의 악보뿐 아니라 다른 연주자의 악보까지 모두 외웠다.	>>> 노력형이다.
악보의 인쇄 오류까지 찾아냈다.	>>> 정확성 · 예리한 음악 감각을 지니고 있다.
잘못 연주하면 즉시 연주를 멈추고 다시 맞추었다.	>>> 엄격하다, 완벽하다.
노년까지 연습실에서 젊은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연습했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다.

4 글의 중심 생각과 뒷받침 근거를 찾아 써 보세요.

중심 생각 근거



활동 4

깊이 읽기 I

조지아 오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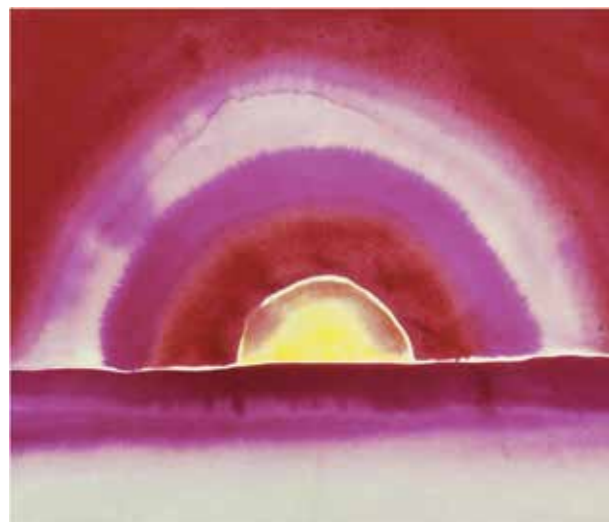
- 종합적으로 사고하며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조지아 오키프



그림과 소개 글을 읽고 예상해 봅시다.



▲해돋이 ▼ 빨간 칸나



▲ 미국 뉴욕에 있는 라디에이터 빌딩의 밤 풍경

조지아 오키프(1887~1986)는 미국 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강렬한 색과 형태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예술가다.



종합적 사고를 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조지아 오키프

그녀 앞에 황토 빛 사막과 쪽빛 하늘이 맞닿아 있는 텍사스의 광경이 수평선 저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다. 처음에는 외롭고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조지아 오키프는 이내 마음 깊숙이 고요한 울림을 느꼈다. '여기가 바로 내 고향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그 안의 멋진 공허가 강렬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텍사스 사막의 강렬함과 고요함을 그림으로 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조지아는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1900년대 초, 여성 예술가가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받는 일은 드물었다. 그녀의 가족도 재능은 인정했지만, '여자가 화가가 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지아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술 학교에 다니던 시절, 그녀는 작은 크기의 세밀한 그림을 자주 그렸다. 선생님은 '그림이 너무 작다.'며 타박했지만, 조지아는 그 말을 오히려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훗날 그녀는 '내가 커다란 캔버스에 대담한 색과 형태를 그리게 된 건 그때의 말 때문이었어요'라고 회상했다.

조지아는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고향을 떠나 뉴욕에서 예술을 공부했다. 그녀는 진지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새로운 색감과 구도를 실험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학비를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자, 생활을 위해 시카고로 옮겨 상업화를 그리는 화가로 일했다. 그러나 광고용 그림을 그리는 일은 그녀에게 예술이 아닌 단순한 일거리처럼 느껴졌다. '내 그림이 상품처럼 팔리는 게 싫었어요.' 결국 조지아는 건강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 요양하게 되었다.

회복한 뒤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다. 마침, 텍사스의 에머럴로 지역에서 교사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바로 이곳에서 그녀는 평생의 영감을 준 끝없이 펼쳐진 남서부 사막의 장관을 처음 마주했다. 강렬한 햇살, 매끄럽게 깎인 산의 운곽

과 불타는 듯한 붉은 바위들이 그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조지아는 그때의 감동을 추상적인 색채와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주는 느낌을 그린다.’라는 그녀의 말은 예술관을 잘 보여준다.

조지아는 자신의 작품 몇 점을 친구 아니타 폴리처에게 보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요.’라고 당부했지만, 아니타는 작품이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해 유명한 사진작가이자 화상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에게 보여 주었다. 스티글리츠는 그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즉시 자신의 화랑에 걸었다. 그와의 만남은 조지아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는 그녀의 예술적 잠재력을 세상에 알리는데 힘썼고, 조지아는 실험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작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예술계는 대부분 남성 중심이었고, 여성 화가에 대한 편견이 깊었다. 그러나 조지아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물을 가까이 확대해 그린 커다란 꽃, 사막의 뿔, 산의 곡선 등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그녀만의 시선이였다. 그녀는 사물을 단순화하고, 색을 통해 감정을 드러냈다. 사람들이 마침내 그녀의 그림이 가진 독창성과 힘을 인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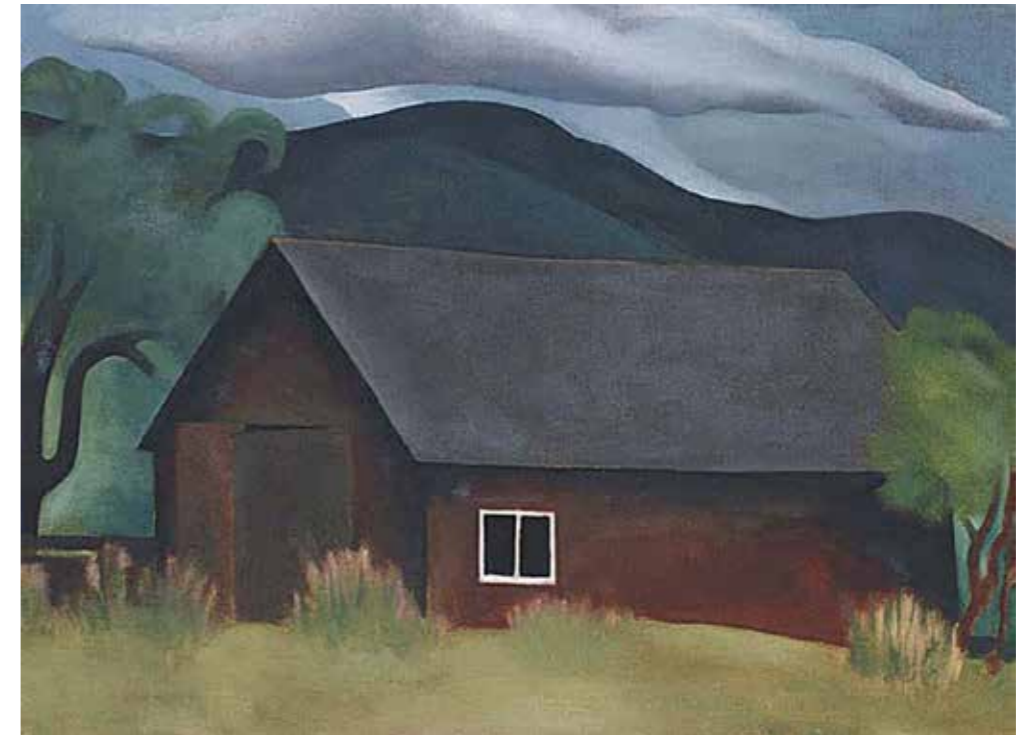
▲ 빨간 칸나



▲ 파랑과 초록의 음악

이후 조지아 오키프는 뉴멕시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집으로 옮겨 평생 자연과 함께 살며 그림을 그렸다. 그곳의 하늘은 매일 다른 색으로 바뀌었고 바위와 모래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끝없이 변화했다. 조지아는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모든 색과 빛이 살아 있는 곳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도시의 소음 대신 자연의 침묵 속에서 영감을 얻었다.

조지아 오키프는 98세가 될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 시력이 약해진 뒤에도, 마음속의 색과 형태를 기억하며 그림을 그렸다. ‘내 눈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나는 여전히 세상을 그릴 거예요.’라는 그녀의 말처럼, 조지아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을 멈추지 않았다. 오늘날 그녀는 ‘미국 근대 미술의 어머니’로 불리며, 자연을 마음으로 본 화가,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여성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다.



▲ 뉴욕주 레이크 조지에 있는 그녀의 화실이었던 판자집 그림

- ◆ 화상: 그림을 파는 사람, 즉 미술 작품을 사고파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 ◆ 화랑: 그림 따위의 미술품을 진열하여 전람하도록 만든 방

질문에 답해 봅시다.

- 차례대로** 1 조지아 오키프의 삶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을 차례대로 번호를 써 보세요.
- 어린 시절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 1 )
  - 스티글리츠가 그녀의 작품을 화랑에 전시했다. ( 5 )
  - 뉴욕과 시카고에서 공부와 상업 화가 생활을 했다. ( 3 )
  - 뉴멕시코로 이주하여 자연 속에서 평생 그림을 그렸다. ( 6 )
  - 텍사스에서 사막 풍경을 처음 보고 깊은 울림을 느꼈다. ( 4 )
  - 예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작은 그림을 그린다고 지적받았다. ( 2 )

**원인 결과** 2 다음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쓰세요

① 조지아 오키프가 커다란 캔버스에 대담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원인과 결과를 써 보세요.

원인	>>> 선생님이 '그림이 너무 작다'고 지적하셨다.
결과	>>>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여 큰 캔버스를 사용하는 대담한 그림으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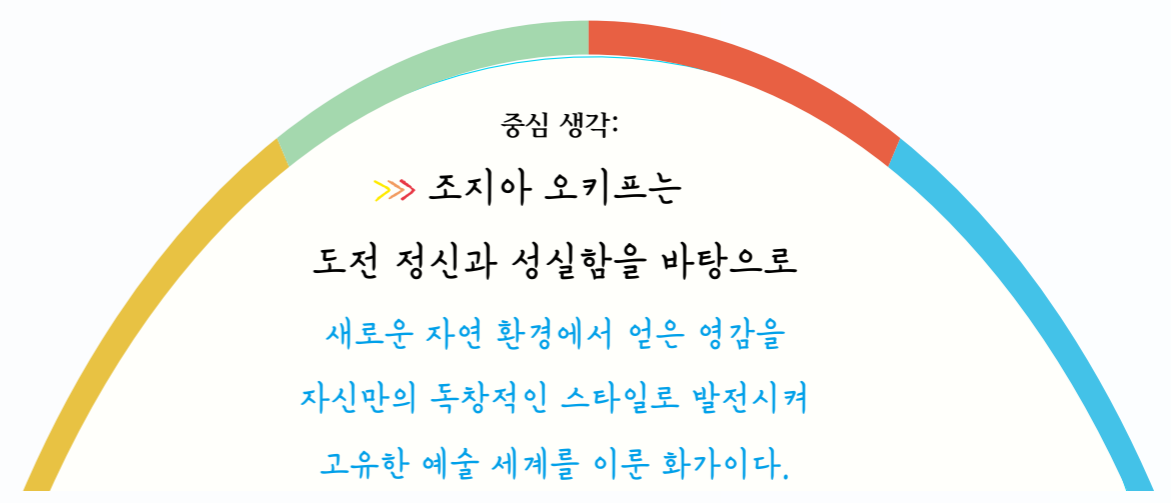
② 스티글리츠가 그녀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된 이유를 써 보세요.

원인	>>> 친구 아니타가 오키프의 작품을 사진 작가이자 화상인 스티글리츠에게 보여줌
결과	>>> 스티글리츠가 작품을 화랑에 걸어 주고 오키프를 예술계에 널리 알렸다.

**추론하기** 3 왜 '나는 내가 본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주는 느낌을 그린다.' 라고 했을까요?

>>> 이 말은 오키프가 자연을 단순히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자연을 다시 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창작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중심 생각 뒷받침 근거** 4 조지아 오키프가 화가로 성공한 계기를 찾아 써 보세요.



내적 요인	환경 요인	관계 요인
>>> 주체성 도전정신 꾸준함	>>> 사막에서 사막에서 얻은 강렬한 영감	>>> 조력자 스티글리츠라는 조력자의 만남

마무리

- 4단원을 마무리 지어 봅시다.
- ▣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긍정적인 꿈

- ① 누구나 꿈꾼다. 하지만 모든 꿈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꿈은 욕심이 되어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어떤 꿈은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사라진다. 반면 긍정적인 꿈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밝힌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꿈을 품은 사람은 일곱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스스로 길을 찾고, 위험을 감수하며, 자랑보다 행동으로 보여 주고, 능동적으로 배우며, 새로움을 창조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며,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태도이다. 이 일곱 가지는 긍정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 ② 긍정적인 꿈은 먼저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스스로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이미 절반은 이룬 것이다. 루스벨트는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해서 자신감을 키웠고, 제인 구달은 학위도 없고 경험도 없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믿고 끝까지 이어 갔다. 그 믿음이 칠판지 연구의 새 역사를 열었다. 이처럼 긍정적인 꿈은 남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확신을 기반으로 자란다.
- ③ 또한 긍정적인 꿈은 도전과 성장을 즐기는 마음에서 나온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다. 토스카니니는 시력이 나빴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악보를 외우고 무대에 섰다. 꿈은 어려움이 없는 길에서 피는 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 내며 피는 꽃이다. 도전이야말로 긍정적인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이다.
- ④ 긍정적인 꿈은 자기만의 길을 가는 용기이기도 하다. 조지아 오키프는 남성 중심의 예술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남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이 느낀 색과 형태를 그대로 그렸다. 긍정적인 꿈은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 가는 힘이다.

- ⑤ 결국 긍정적인 꿈은 결과보다 과정의 태도에 있다. 그것은 더 나은 나를 향한 믿음, 실패 속에서도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끝까지 지켜내는 의지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거창한 목표보다 매일의 한 걸음을 소중히 여겼다. 우리에게도 그런 긍정적인 꿈이 있다면, 지금의 작은 도전이 언젠가 큰 빛으로 자라날 것이다. 꿈은 현실을 도망치는 피난처가 아니라, 현실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다.

1 루스벨트, 제인 구달, 토스카니니, 조지아 오키프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 긍정적인 꿈과 성품이 있다.

2 네 인물의 성품과 도전 방법을 비교해 보세요.

	루스벨트	제인 구달	토스카니니	조지아 오키프
약점 (어려움)	병약함	학위 없음 연구 경험 없음	심한 근시	여성 화가 편견
어떻게 극복	거울 보고 웃는 연습	꾸준한 관찰 동물 사랑	악보 전체 암기 꾸준한 연습	독창적 표현
성품	꾸준함 자기 혁신	끈기 꾸준함 열정	성실함 철저함	창의성 자기 확신
전환점	자기 이미지 변화	칠판지 행동 관찰	19세 공연 지휘자	스티클리츠 와의 만남

3 나는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 표시를 해 보세요.



-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는 편이다
- 작은 성취라도 꾸준히 기록한다
- 남과 비교하기보다 나의 속도를 존중한다
-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
- 실수해도 다시 시도한다
- 나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4 내 꿈에 대한 글쓰기를 하기 전에 모둠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써 보세요.

◎ 무엇에 대해 글을 쓸지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 내 꿈을 키우는 힘
- 긍정적인 꿈을 가진 나
- 오늘의 한 걸음이 내 꿈이 된다
- 성품이 길을 만든다
- 네 인물이 가르쳐 준 내 꿈



- ◎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
- ◎ 네 명의 인물에서 내가 배운 점은 무엇인가?
- ◎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
- ◎ 어떤 성품을 키워야 할까?
- ◎ 긍정적인 꿈의 일곱 가지 중,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 ◎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
- ◎ 내가 꿈을 이루며 만들어 가고 싶은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예시안입니다  
 ● 자기의 꿈에  
 ○ 대해 써 보세요.

제목 내 꿈을 키우는 힘

루스벨트, 제인 구달, 토스카니니, 조지아 오키프의 삶을 읽으며, 꿈을 이루는 데에는 공통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와 성품'이다. 나도 이 네 인물처럼 내 꿈을 키우기 위해 어떤 성품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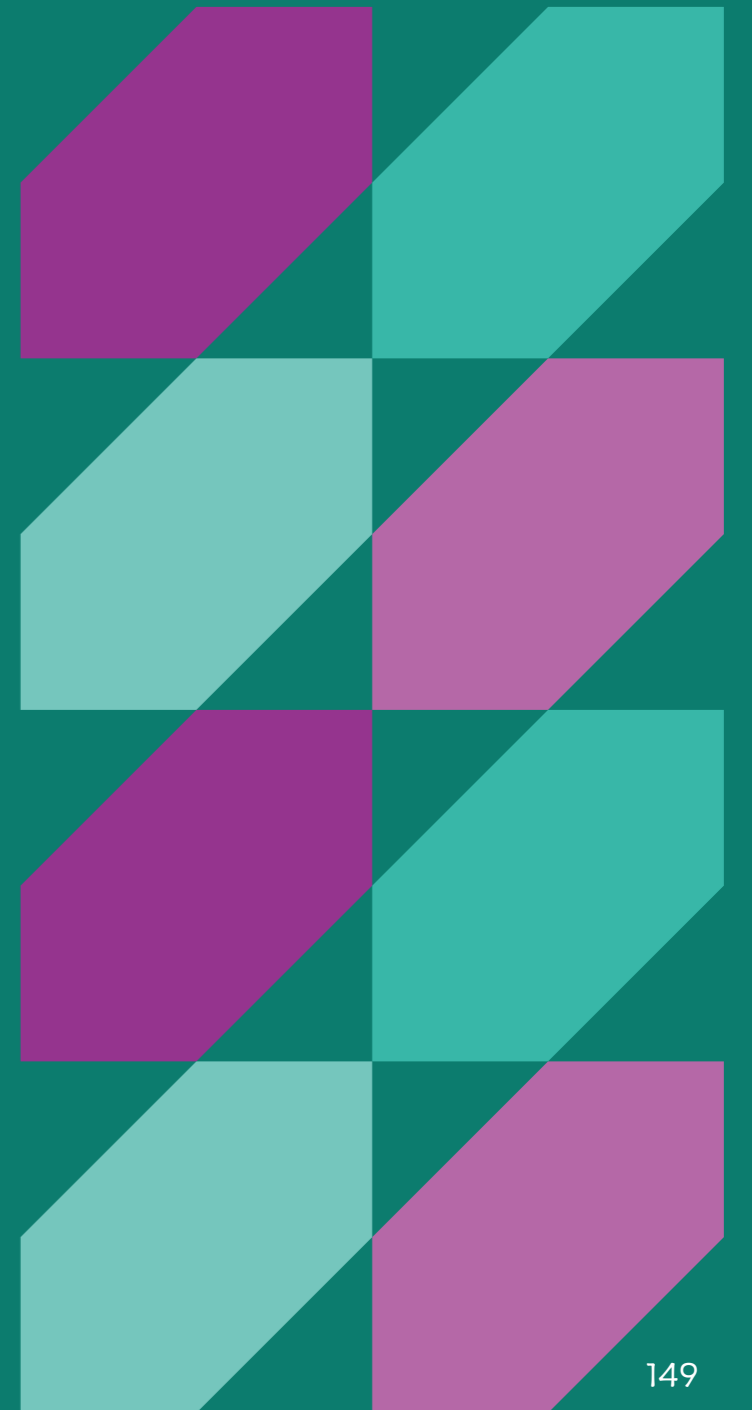
루스벨트는 자신의 약점을 꾸준함으로 이겼고, 제인 구달은 학위가 없어도 자신을 믿고 도전했다. 토스카니니는 시력을 극복하려고 악보를 외웠으며, 오키프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다. 네 인물 모두 어려움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꿈은 재능보다 성품에서 자란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것이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꾸준함, 호기심,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루스벨트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 제인 구달처럼 호기심을 끝까지 놓지 않는 태도, 토스카니니처럼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나는 매주 과학책을 읽고, 궁금한 것을 질문 노트에 정리하며, 어려운 실험에도 용기 있게 도전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한 걸음은 '하루 10분 과학 노트 쓰기'이다.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걸음이 모이면 큰 빛이 된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 나도 긍정적인 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 5. 깊이 읽기 II



시작하며

깊이 읽기 II 무엇을 배울까요?

이야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동화와 소설뿐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온 신화, 전설, 민담도 모두 이야기의 한 갈래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각 시대와 지역의 문화, 가치관, 삶의 지혜를 담고 있어 읽을수록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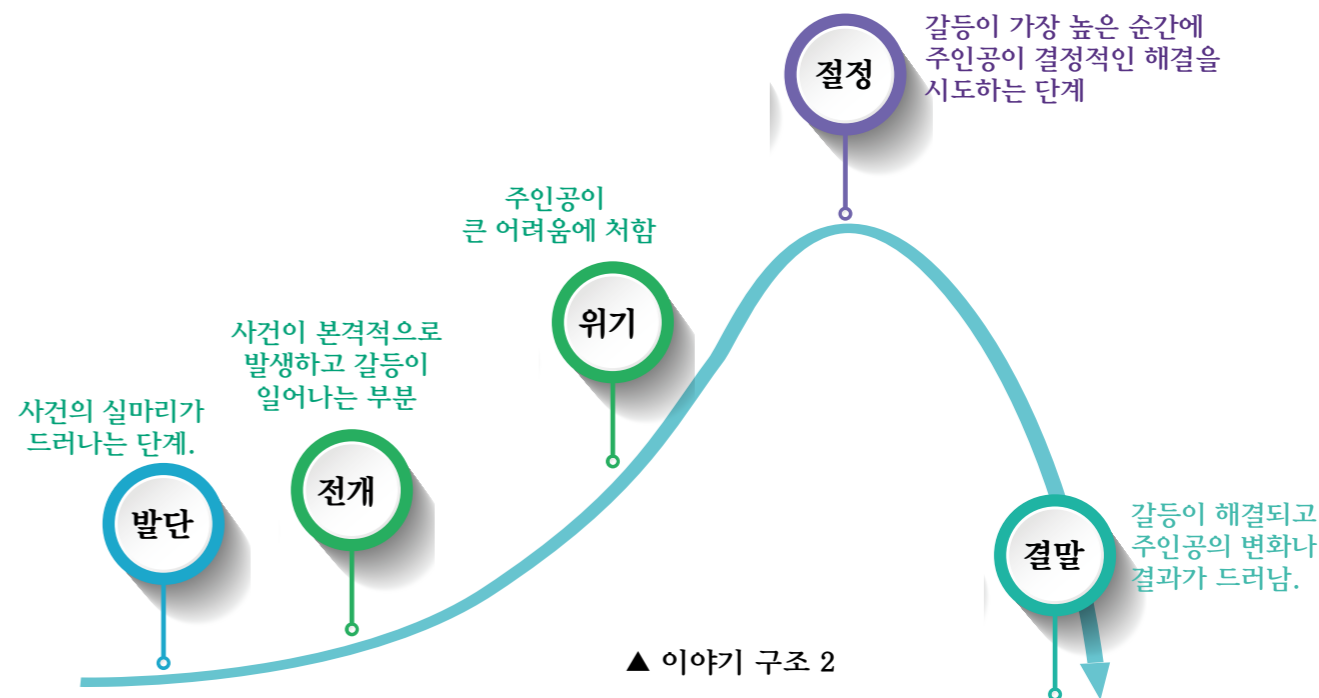
\* 이야기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 주는 배경이 깔려 있으며, 그 속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핵심 인물인 주인공에게 사건이 집중됩니다. 주인공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이 차례로 이어지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문학작품을 읽을 때 읽기 전에 제목과 그림 또는 첫 문단의 글만 읽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훑어 본 다음 이야기 구조를 따라 먼저 내용을 예측하는 독서 토의를 하고, 글을 다 읽은 다음 다시 이야기 구조에 따라 독서 토의를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이 단원에서는 서아프리카 민담 하루하루가 마법, 보르네오의 민담 반쪽이, 이카로스 그리스 신화와 미국의 단편소설 립 반 윙클을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배경		
등장인물		
문제 발생	사건 1	
	사건 2	
	사건 3	
문제 해결		

▲ 이야기 구조 1



▲ 이야기 구조 2

\* 대부분의 이야기는 ‘발단 → 전개 → 위기→절정 → 결말’이라는 기본 구조를 따릅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사건의 순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긴장이 어떻게 높아지며 해결이 어떤 의미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는 틀입니다. 이야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면 작품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을 때는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생각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 질문과 차례 질문으로 사건의 흐름과 핵심 요소를 점검하고,
- 추론 질문으로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인물의 성격, 갈등의 원인, 주제를 생각해 보고,
- 비유와 상징 질문으로 작품의 표현이 담고 있는 정서와 메시지를 느끼며,
- 평가 질문으로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과 오늘날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 문학 작품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과 상상을 넓혀 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야기의 구조와 표현을 차근차근 살펴봄, 이야기가 지닌 서사적 힘과 감동 그리고 세계 여러 문화가 담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을 함께 느껴 봅시다.



**읽기 전에:**

'깊이 읽기 Ⅱ'의 '시작하며'에서 제시한 이야기 구조 1과 이야기구조 2를 잘 이해한 다음 읽기 전 독서 토의를 해요.



**읽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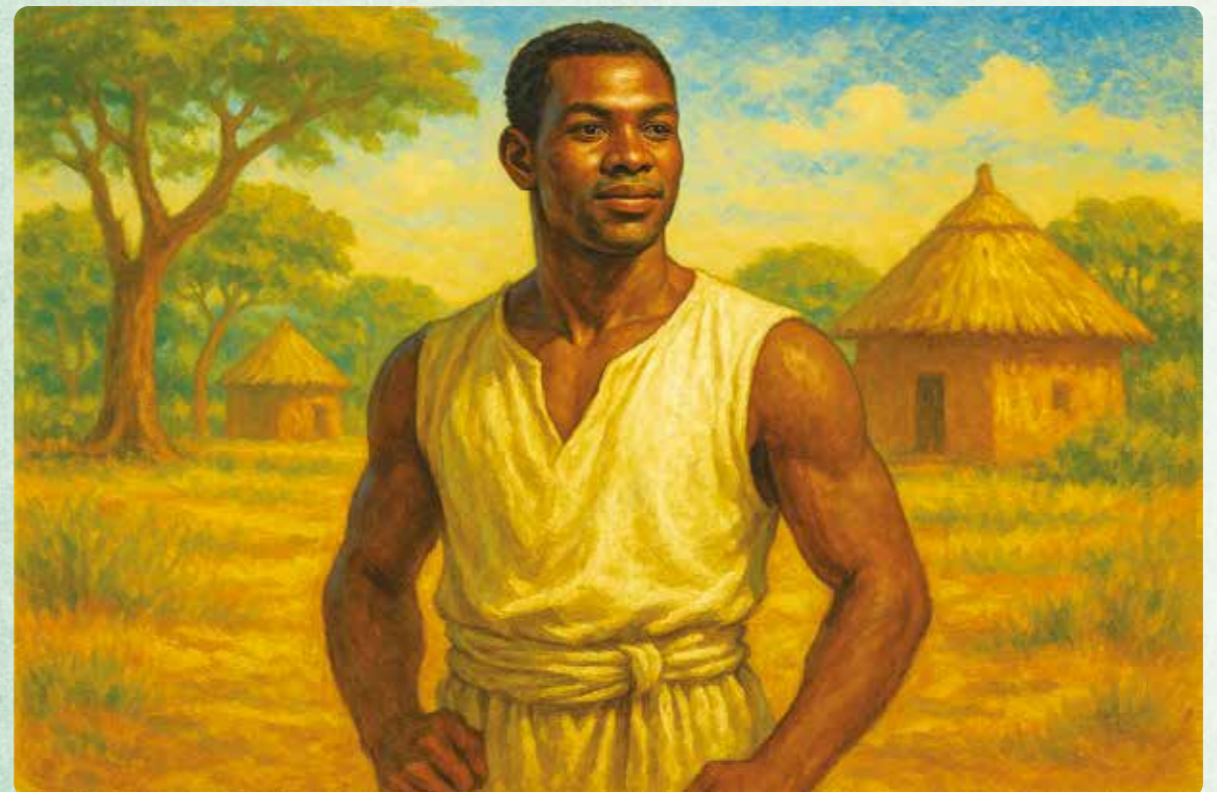
이야기 구조 1과 이야기구조 2를 생각하며 글을 읽어요.



**읽고나서:**

글을 읽고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아요. 질문에 답하면서 작품에 나타난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글의 주제를 파악해 봅시다. 나아가 작품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 이야기 구조를 파악하며 문학 작품을 이해해요.





읽기 전에 독서 토의를 먼저 하고 글을 예상해 봅시다.

▣ 읽기 전에 글의 한 부분만 먼저 읽고, 이야기 구조에 따라 예측 독서 토의를 하세요.

늙은 팀바는 줄곧 빌라를 지켜보고 있었다. 빌라가 빛을 갓지 못해 도망치려 할 때, 팀바는 직접 그를 찾아갔다.

“자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에게 마법을 전해 주었네. 자네가 필요로 하는 때에 그 마법을 전해 주라고 하셨지. 우선 일주일 동안 쉬게나.”

쉬는 것에 익숙한 빌라는 쉽게 약속했다.



- BECK의 이야기 구조 읽기 방법
- 읽기 전에 글의 제목 또는 사진이나 한 문구만 읽고, 배경, 등장인물, 주인공에게 일어난 문제 발생 그리고 주인공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 예측 독서 토의를 해 보아요.

배경		
등장인물		
문제 발생	사건 1	
	사건 2	
	사건 3	
문제 해결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하루하루가 마법

-서아프리카 이야기

빌라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친구인 팀바에게 아들을 보살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럼, 내가 자네 아들을 돌봐주지. 걱정하지 말게.”

팀바의 대답을 들은 빌라의 아버지는 안심하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

빌라의 아버지가 걱정할 것처럼, 빌라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밤새 춤추고 놀다가 낮에는 깊이 잠들곤 했다. 얼마 동안은 아버지가 남겨 준 돈으로 부족함 없이 지냈다. 그러다 보니 빌라는 왕의 딸 정도가 아니면 자신의 신부가 될 수 없다고 떠들고 다녔다.

어느 날 빌라는 좋은 옷을 차려입고 왕을 찾아가 공주를 자신의 신부로 달라고 요구했다. 왕은 크게 웃었다. 왕은 빌라가 왕국에서 가장 게으른 젊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화를 내며 말했다.

“감히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그 말만으로도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살아 있는 동안 매년 채찍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왕의 명령으로 빌라는 광장으로 끌려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매년 채찍질을 당했다. 그럼에도 빌라는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돈만 ping ping 써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빛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늙은 팀바는 줄곧 빌라를 지켜보고 있었다. 빌라가 빛을 갓지 못해 도망치려 할 때, 팀바는 직접 그를 찾아갔다.

“자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에게 마법을 전해 주었네. 자네가 필요로 하는 때에 그 마법을 전해 주라고 하셨지. 우선 일주일 동안 쉬게나.”

쉬는 것에 익숙한 빌라는 쉽게 약속했다. 팀바는 빌라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천 걸음 남짓한 땅에 표시를 하고 말했다.

“18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나뭇가지나 수풀, 돌들을 깨끗이 치워야 한다.”

일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던 빌라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팀바는 조용히 타일렀다.

“첫째, 이진 그냥 땅이 아니다. 사람의 처지를 바꾸는 땅이다. 빗쟁이를 부자로 천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바꾸는 땅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둘째, ‘일’이라는 말을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마라. 그 말을 하면 마법은 모두 헛것이 된다. 내가 시키는 일을 ‘쉬는 것’이라고 생각해라.”

18일이 지나 팀바가 다시 왔다. 빌라가 땅을 깨끗하게 치우고 갈아놓은 것을 보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씨앗이 가득 담긴 가방을 빌라에게 건넸다.

“오늘은 매우 귀중한 마법의 씨앗을 가져왔다. 땅을 파서 씨앗을 약 7cm 깊이로 심고, 흙으로 가볍게 덮어라. 빨리 끝내야 한다. 사흘 안에 비가 내릴 것이다.” 팀바는 왕이 빌라에게 형벌을 내린 이유가 그의 오만함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빌라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왕에게 가서 말했다.

“저는 빌라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왕은 평소에 팀바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마침내 팀바는 왕을 데리고 빌라가 있는 곳으로 갔다. 거대한 옥수수밭을 본 왕은 깜짝 놀랐다. 빌라를 보고는 더욱 놀랐다. 일을 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빌라는 이전과 전혀 달랐다. 눈빛이 빛났고 태도도 씩씩했다. 전보다 훨씬 멋져 보였다.

“네가 빌라라니 믿을 수 없구나. 이 옥수수밭은 얼마나 값진 땅인가! 내가 가진 땅보다 더 넓구나. 이렇게 넓은 땅을 개간한 사람이라면 내 딸과 결혼할 만하다.”

그러나 빌라는 놀랍게도 거절했다.

“안 됩니다. 저는 왕자나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왕은 자신의 땅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왕을 위해 일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 일 없이 지내게 되면 저는 다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은 빌라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아보았다. 그는 빌라가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했다.

“넌 훌륭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내 딸이 기다리고 있다. 어서 오너라.”

팀바는 빌라의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 빌라는 훌륭한 젊은이로 변했고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이야기 구조에 따라 ‘하루하루가 마법’의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배경	서아프리카의 어느 마을	
등장인물	주인공인 빌라, 빌라 아버지, 아버지 친구 팀바, 왕, 공주와 마을 사람들	
문제 발생	사건 1	>>> 왕에게 공주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처벌로 매년 채찍질을 당했다.
	사건 2	>>>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팀바가 빌라에게 마법을 전해 준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쉬라고 한다.
	사건 3	>>> 18일간 땅을 깨끗이 치우고, 마법의 씨앗을 심었다.
	사건 4	>>> 옥수수밭이 자라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빌라는 멋지게 변했다.
문제 해결	>>> 성실함을 갖춘 빌라를 왕이 인정하고 결혼을 허락했다.	

2 빌라가 변화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3단계로 정리해 보세요.

- 1단계 빌라는 게으르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며 살았다.
- 2단계 >>> 팀바가 시킨 대로 18일 동안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었다. 노동을 하면서 빌라는 몸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 3단계 >>> 옥수수밭을 일구어내며 빌라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슬기로운 사람으로 변했다.

3 비유와 상징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알맞은 답에 ✓ 표시를 해 보세요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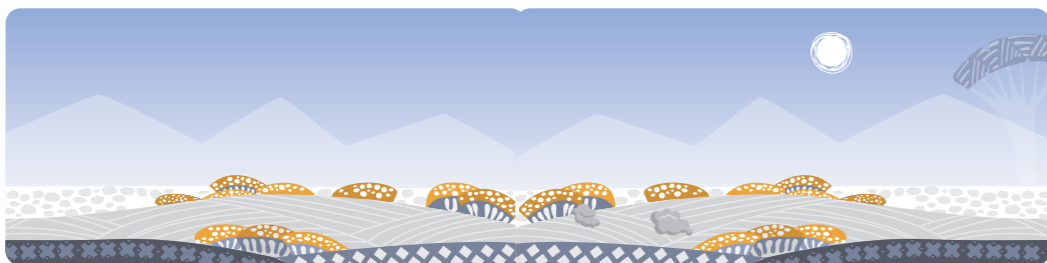
“자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에게 마법을 전해 주었네. 자네가 정말 필요할 때 그 마법을 전해 주라고 하셨지.” 팀바가 말한 ‘마법’은 무엇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인가요?

- 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마법
- ② 노력 없이도 풍요를 가져다주는 물질적 혜택
- ③ 실제로 초능력을 일으키는 특별한 주문이나 힘
- ✓ ④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 삶이 달라지는 ‘노력의 힘’
- ⑤ 왕의 처벌을 피하거나 신분 상승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 영향력

02

팀바가 빌라에게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 ① 일을 숨겨야만 팀바가 빌라에게 준 마법이 효과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 ② 일을 ‘힘들고 싫은 것’이라고 여기는 빌라의 고정된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다.
- ③ 일을 계속 말하다 보면 마을 사람들에게 들켜 마법의 비밀이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일을 말로 표현하면 왕이 내린 형벌을 떠올리게 되어 빌라가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일을 하지 않겠다는 빌라의 약속을 지켜야만 마법의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03

“이건 그냥 땅이 아니다. 사람의 처지를 바꾸는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처지를 바꾸는 땅’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①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생기는 특별한 장소
- ✓ ② 꾸준히 일하고 땀 흘리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 ③ 왕의 허락을 받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땅
- ④ 땅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
- ⑤ 새로운 작물을 심으면 곧바로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

04

팀바가 “오늘은 매우 귀중한 마법의 씨앗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마법의 씨앗’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 ① 게으른 사람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내적 성장의 힘
- ② 자신의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
- ③ 작은 행동이라도 반복하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교훈
- ✓ ④ 별다른 노력 없이도 행운이 저절로 찾아오는 기적 같은 성공
- ⑤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쌓이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05

이야기에서 옥수수밭이 상징하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 ① 마법의 힘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재산과 권력
- ②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얻어진 풍요로운 결과
- ③ 왕의 사위를 의미하는 지위와 신분 상승의 증거
- ④ 왕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했다는 빌라의 행운
- ✓ ⑤ 빌라가 성실하게 일한 끝에 이루어 낸 변화와 성장을 보여 주는 결실

4 “이렇게 넓은 땅을 개간한 사람이라면 내 딸과 결혼할 만하다.”라는 왕의 말에서 무엇을 추론해 낼 수 있나요? 왕이 빌라를 사위로 삼기로 결심한 이유를 써 보세요.

>>> 왕은 넓은 옥수수밭을 만든 빌라의 모습에서, 그가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가 공주와 결혼할 만한 성품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제목이 ‘하루하루 마법’입니다. 제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 ‘하루하루 마법’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초능력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할 때 삶이 눈에 띄게 변하는 일상의 변화의 힘을 상징한다. 즉, 하루하루의 작은 행동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 자체가 마치 마법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활동 2

깊이 읽기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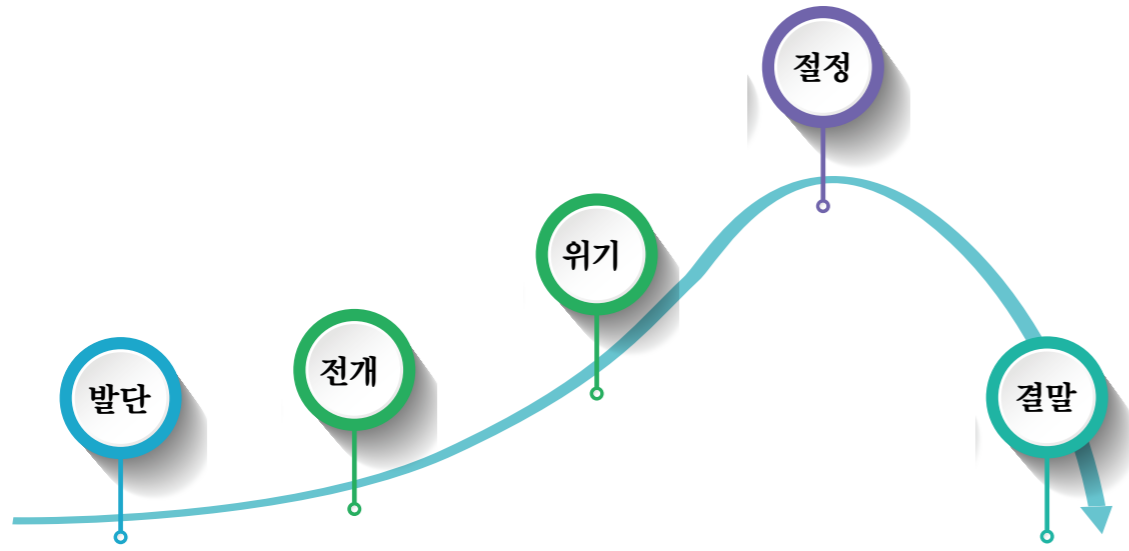
반쪽이

● 이야기 구조를 파악하며 문학 작품을 이해해요.





이야기 구조와 질문을 읽고 글을 예상해 봅시다.



배경		
등장인물		반쪽 ㉠, 반쪽 ㉡, 아름다운 여인, 노부인, 나이 많은 노인, 동네 사람들
문제 발생	사건 1	
	사건 2	
	사건 3	
문제 해결		

- 누가 주인공일까요?
- 이름이 왜 반쪽일까요?
- 반쪽과 반쪽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반쪽이

-보르네오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어떤 집에서 몸의 절반만 있는 반쪽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반쪽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반쪽은 신체가 반쪽뿐임에도 건강하게 자랐다. 다만 자라면서 점점 더 난폭해졌다.

반쪽은 늘 아이들과 싸웠다. 마치 싸움을 찾아다니는 듯했다. 친구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유는 간단했다. 또래에게 늘 속임수를 썼기 때문이다. 아이들만으로는 모자랐는지, 심심하면 어른들까지 골탕 먹였다. 부인들이 빨래하는 곳에서 진흙을 던지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 정원을 파헤치기도 했고,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에게서 아기를 몰래 숨겨 버리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반쪽은 더욱 사나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이 악동을 마을에서 내쫓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 때, 아름다운 여인이 반쪽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당신의 다른 반쪽을 찾아 돌아온다면, 저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하며 약속했다. 누군가가 반쪽에게 친절할 말을 건넨 것은 정말 오랜만이였다. 반쪽은 원래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말이 큰 계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길을 나섰다.

사흘 뒤 그는 다른 마을에 도착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아서, 이곳 사람들은 한 번도 반쪽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보였다. 반쪽은 곧 그 마을을 떠났다. 또 다른 마을로 이동했다. 이번 마을 사람들은 반쪽의 외모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반쪽은 물었다.

“혹시 친절하고 착하기만 한 다른 반쪽을 아는 사람 없나요? 그는 나와 정반대일 거예요.”

그러자 한 노부인이 대답했다.

“내 생각엔 그 아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구나. 옛세를 걸어가면 나오는



마을에 산다더라.”

옛새 뒤, 반쪽은 세 번째 마을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그를 보자 소리쳤다.

“저기 봐! 다른 반쪽이다! 우리 마을 반쪽을 데려와라! 당장 알려야 해!”

곧 두 반쪽은 서로 마주했다. 두 사람은 거의 모든 면에서 똑같아 보였다. 단 한 가지, 눈빛만 달랐다. 한쪽은 미소를 머금은 눈빛이었고, 다른 한쪽은 잔혹하고 매서운 눈빛이었다. 난폭한 반쪽이 먼저 말했다.

“난 너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여행했어, 나의 반쪽아.”

착한 반쪽도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너가 나를 찾지 않았다면, 우린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야.”

착한 반쪽이 이어서 말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나쁜 점을 보지 못해. 그런데 네가 나를 찾았다는 건, 스스로를 돌아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해결 방법을 알려 주었다.

“너희 둘은 깊은 정글 속 동굴로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서 서로 씨름해라. 그러는 동안 두 반쪽은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단, 둘 중 단 한 사람만이 온전한 몸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두 반쪽은 멀리 떨어진 정글 속 동굴로 들어갔다. 둘의 격렬한 싸움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먼 마을까지 들릴 만큼 요란했다. 바람도 모든 방향에서 거칠게 몰아쳤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뿔별 한 개가 길게 흘러갔다.

사흘째 되는 새벽, 잘생긴 청년이 정글에서 걸어 나왔다. 가까이 다가온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착한 반쪽이 승리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했다. 그들은 청년에게 함께 살자고 간청했다. 하지만 청년은 결심이 서 있었다. 그는 난폭한 반쪽이 살던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든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 이야기 구조에 따라 ‘반쪽이’를 정리하여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2 등장인물 '반쪽이'에 대한 질문에 답을 쓰거나 ✓ 표시를 해 봅시다.

01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무엇을 제안했기에 반쪽이가 마을을 떠났나요?

➤ 반쪽이 자신의 다른 반쪽을 찾아 돌아오면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02 난폭한 반쪽이는 왜 여인의 한마디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나요?

- ① 여인이 반쪽에게 멀리 떠나면 큰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 ②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 ③ 여인이 반쪽의 외모가 특별하다며 자랑하라고 칭찬했기 때문이다.
- ④ 여인이 당장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 ✓ ⑤ 친절하 말의 반쪽에게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주어,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03 세 번째 마을에서 또 다른 반쪽을 만났을 때, 다른 반쪽은 어땠나요?

➤ 거의 모든 면에서 똑같아 보였다. 단 한 가지, 눈빛만 달랐다.  
다른 반쪽은 미소를 머금은 눈빛이었다.

04 난폭한 반쪽이와 착한 반쪽이는 외모가 거의 같은데, 눈빛만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① 누가 승리할지 눈빛의 차이만 보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② 착한 쪽이 마을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받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 ③ 서로 다른 마을에서 자라서 외모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 ④ 실제로는 서로 전혀 다른 존재며, 겉모습만 비슷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 ✓ ⑤ 두 반쪽은 원래 하나였던 존재이며,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성격의 두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05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말한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깊은 정글 속 동굴로 들어가서 서로 씨름하면 하나로 합쳐질 것이고 둘 중 단 한 사람만이 온전한 몸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06 정글 속 동굴에서의 씨름 장면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 ① 정글 속 동굴이 얼마나 위험한 공간인지 보여 주기 위한 장면이다.
- ② 바람 소리를 듣고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있는 특유의 공간을 상징한다.
- ③ 주인공이 새로운 기술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통과의를 나타낸다.
- ④ 보르네오의 전통 의식에 따라 씨름을 해서 승자를 가리는 것을 나타낸다.
- ✓ ⑤ 난폭한 성질과 착한 성질이 서로 충돌하며, 주인공이 자신의 나쁜 면을 이겨 내고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내면의 갈등과 변화 과정'을 상징한다.

07 정글에서 나온 청년은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뒤로하고, 예전 난폭한 반쪽이 살던 마을로 돌아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가장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여인이 준 약속이 청년에게 큰 보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② 정글에서의 싸움이 오래 지속되어 청년이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 ③ 외모가 달라졌어도 여인이 자신을 알아봐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 ④ 정글에서 얻은 마법의 힘 덕분에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 ⑤ 난폭했던 반쪽이가 여인의 말로 여행을 떠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착한 반쪽과 하나가 되어 선한 성품으로 성장했음을 암시한다.



08

제목이 왜 반쪽일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 ① 반쪽이는 몸의 절반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외형적 특징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다.
- ②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던 반쪽이의 부족함을 강조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다.
- ③ 이야기 속 여러 마을이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반쪽난 세계'를 표현한 제목이기 때문이다.
- ④ 반쪽이 여인과 결혼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 ✓ ⑤ 난폭한 면과 착한 면이라는 '둘로 나뉜 자아'가 하나로 합쳐지는 성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활동  
3

깊이 읽기 II

이카로스 그리스 신화

● 이야기 구조를 파악하며  
문학 작품을 이해해요.



구원받은 이카로스, 스페인 홀리오 니에토 조각가 작품



등장인물을 살펴보고 글을 예상해 봅시다.

▣ ‘이카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 읽고, 주인공 이카로스에게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예측 독서 토의를 해 보세요.

### 등장인물

**미노스 왕:** 크레타섬을 다스리던 강력한 왕이다. 포세이돈의 저주로 태어난 미노타우로스를 숨기기 위해 거대한 미궁을 만들게 한다.

**파시파에 왕비:** 미노스 왕의 아내로, 포세이돈의 저주로 인해 미노타우로스를 낳게 된다

**포세이돈:** 그리스 신화 속 바다의 신이다. 미노스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분노해 왕비에게 저주를 내려 미노타우로스가 태어나게 한다.

**미노타우로스:** 반은 사람, 반은 황소의 모습을 한 괴물이다. 태어날 때부터 힘이 매우 세고 난폭하여, 미궁 안에 갇혀 지내며 아테네에서 보내온 제물을 먹고 지낸다.

**다이달로스:** 그리스 최고의 발명가이자 장인이다. 미노스 왕의 명령으로 미궁을 설계한다. 그런데 이후 왕의 노여움을 사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감금된다.

**이카로스:** 다이달로스의 아들로, 아버지가 만든 날개를 달고 미궁에서 탈출하는 인물이다.

**아드리아네:** 미노스 왕의 딸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러 온 테세우스를 도와주기 위해 다이달로스에게 도움을 청한다.

**테세우스:** 아테네의 영웅으로 미노타우로스를 쓰러뜨리고 아테네를 구한다. 용감하고 정의로운 인물이며, 아드리아네의 도움으로 미궁을 빠져나온다.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이카로스 그리스 신화

그리스의 크레타섬에는 미노스 왕과 파시파에 왕비가 살고 있었다. 미노스 왕은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고 반인반수의 미노타우로스를 낳게 되었다. 미노타우로스는 자랄수록 점점 난폭해졌다. 미노스 왕은 뛰어난 발명가이자 조각가인 다이달로스를 불러 미노타우로스를 가두어둘 거대한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미로의 궁전을 지어라. 만약 누구라도 빠져나오면 너와 네 아들을 대신 가둘 것이다.”

다이달로스는 미로로 꾸며진 거대한 미궁을 지었다. 그가 지은 미궁은 수많은 방과 복도로 뒤얽혀 있어서 누구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었다. 왕은 그 안에 미노타우로스를 가두어 놓았다.

당시에 아테네는 미노스 왕에게 매년 7명의 소년과 7명의 소녀를 공물로 바치고 있었다. 미노스 왕은 아테네의 공물을 미노타우로스에게 제물로 보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수치를 씻으려고 공물로 보내는 소년들 틈에 섞여서 크레타로 왔다. 드디어 미노타우로스에게 제물을 바치는 날이 되었다. 제물 공양을 위한 제식에서 미노스 왕의 딸인 아드리아네는 늙름한 테세우스를 첫눈에 보고 반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테세우스가 미궁에서 살아나오길 바랐다. 그래서 은밀히 다이달로스를 만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다이달로스가 준 실이에요. 실을 밖에 묶어놓고 풀면서 들어가면 다시 감으며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살아 나오셔야 해요.”

“알겠소.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살아서 나오면, 우리 아테네로 떠납시다.”

테세우스는 미궁에 들어가 괴물을 물리친 뒤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가 자신의 딸에게 탈출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고 단단히 화가 났다. 그래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미

로의 궁전 꼭대기에 가두어 버렸다.

꼭대기 방은 천정이 없어서 비바람에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며 미로를 빠져나갈 궁리를 하였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 깃털을 열심히 모으고 벽에 붙어있는 벌집에서 밀랍도 채취했다. 밀랍으로 깃털을 두 팔과 어깨에 촘촘히 붙였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커다란 날개를 만들 수 있었다. 다이달로스는 날개를 펼치며 아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이카로스야,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기에 밀랍이 녹을 거야. 그렇다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닷물이 날개를 적실 거다. 항상 중간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카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따라 날개를 펼쳤다. 처음엔 두렵고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져서 새처럼 날 수 있었다. 하늘을 훨훨 날아 드디어



크레타섬을 벗어났다. 파란 하늘 아래에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바다는 은빛으로 반짝였다. 이카로스는 점점 자신감이 커졌다.

“아버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건 너무나 멋져요!”

자유 기쁨은 곧바로 자만심으로 바뀌었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희미해졌다. 그는 점점 더 높이 올라 태양 가까이에서 날았다. 뜨거운 햇살에 깃털을 붙인 밀랍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날개의 깃털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다이달로스는 외쳤다.

“이카로스!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내려와야 한다!”

하지만 바람 소리에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카로스의 날개는 부러지고, 푸른 바다로 곤두박질쳤다. 아버지는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바다 위를 헤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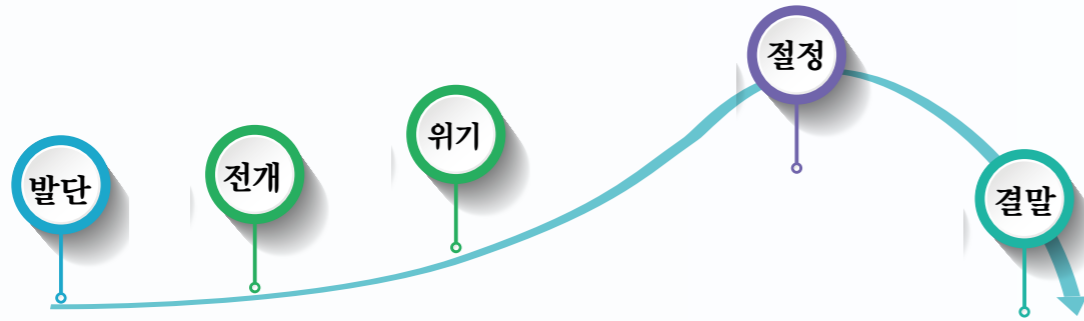
“아들아! 어디 있니? 아아. 조금만 참았어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었을 텐데…….”

다이달로스는 바다에 떨어진 아들의 시체를 겨우 찾아서 작은 섬에 묻었다. 아들이 그리워 ‘이카로스 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림 제목: 풍경 속 이카로스의 추락 / 화가: 브뤼헬 데 올데 (1588년경 그림)  
우측 하단에 추락한 아들 이카로스를 찾아 헤메는 아버지 다이달로스 모습이 그려져 있다.

1 이야기 구조에 따라 ‘이카로스 그리스 신화’를 정리하여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 발단** >>> 미노스 왕의 명령으로 다이달로스가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한 미궁을 만든다.
  - >>> • 테세우스는 제물이 되는 청소년 무리에 섞여 미노타우로스를 해치러 크레타로 온다.

---

- 전개** >>> 아드리아네가 테세우스에게 실마리 비법을 알려 주고,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해치고 탈출한다.
  - >>> 미노스 왕은 분노하여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를 미궁 꼭대기에 가둔다.

---

- 위기** >>> 다이달로스는 아들과 함께 탈출하려고 날개를 제작한다.
  - >>>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경고를 듣지만, 하늘을 나는 자유에 취해 태양 가까이 올라간다

---

- 절정** >>> 태양에 가까이 간 이카로스의 밀랍이 녹아 날개가 부서지고 결국 바다로 떨어진다

---

- 결말** >>> 다이달로스는 아들의 시신을 작은 섬에 묻고 섬 이름을 "이카로스"라고 부르며 아들을 기억한다.

2 ‘이카로스 그리스 신화’에 대한 질문에 답을 쓰거나 ✓ 표시를 해 봅시다.

01

사실 확인

- 다이달로스가 아들과 함께 감금된 곳은 어떤 장소였나요?
  - >>>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가 실마리 비법을 알려 준 것에 화가 나서 그와 이카로스를 미로 궁전 꼭대기에 가두었다.
- 다이달로스는 날개를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나요?
  - >>> 새의 깃털과 벌집에서 모은 밀랍을 이용해 두 팔과 어깨에 붙이는 날개를 만든다.
- 이카로스가 처음 하늘을 날았을 때 어떤 느낌에 취해 있었나요?
  - >>>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이 너무 멋지게 느껴지고 비행에 자신감이 생겼다.

02

원인 결과

- 다이달로스가 ‘너무 높이 날지 마라’라고 경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 태양의 열기로 밀랍이 녹아 날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카로스는 왜 자꾸 더 높이 날아올라 갔을까요?
  - >>> 자유의 기쁨은 곧바로 자만심으로 바뀌어서 더 높이 올라갔다.
- 이카로스가 경고를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 >>> 날개가 녹아 바다에 떨어지고 말았다.

03

추론 하기

- 다이달로스의 날개 제작 장면에서 드러나는 그의 성품은 어떤가요?
  - >>> 탈출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창의성과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 내는 추진력을 지닌 발명가였다.

04

비유 상징

● 다음 중 문학 작품에서 ‘날개’가 상징하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권력
- ②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
- ③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영원함을 나타내는 표식
- ✓ ④ 자유와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능력과 가능성
- 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피할 수 있는 도구이고 안전한 도피처

● ‘이카로스의 날개’가 상징하는 의미를 써 보세요.

➤ 날개는 인간이 가진 자유·꿈·열망·가능성을 상징하지만 ‘이카로스의 날개’는 그 힘을 지혜 없이 사용할 때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카로스 날개의 교훈

다이달로스의 날개는 인간의 가능성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지만 그 가능성은 지혜와 절제가 없으면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카로스의 추락이 말해 준다. 이카로스는 기쁨에 취해 아버지의 충고를 잊고 너무 높이 날아올라 결국 비극을 맞았다. 이 신화는 꿈을 이루려면 열정뿐 아니라 절제, 겸손, 신중함이 필요하며, 높이 나는 것보다 어떻게 지혜롭게 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한다.



활동 4

깊이 읽기 II

립 반 윙클

- 이야기 구조를 파악하며 문학 작품을 이해해요.



▲미국 뉴욕 근교의 씨니 사이드에 있는 학교 앞에 작가 워싱턴 어빙이 쓴 이야기 주인공 립 반 윙클 동상.



읽기 전에 작가와 소설의 배경에 대해 읽어 봅시다.



워싱턴 어빙(1783~1859)은 미국 초기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미국 단편문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뉴욕에서 태어나 여행과 외교 활동을 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환상과 풍자를 담은 작품들을 썼다. 특히 <립 반 윙클>과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은 미국의 자연, 전설,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국적 문학 전통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빙은 생동감 있는 이야기와 현실과 환상을 자연스럽게 섞는 문체로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았으며, 미국 문학이 유럽 중심의 문학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색을 갖추는 데 큰 기여를 한 작가이다.

뉴욕의 허드슨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시야를 압도하는 웅장한 산맥이 나타나는데, 바로 캐츠킬 산맥이다. 이곳은 안개와 햇빛, 계절에 따라 하루에도 여러 번 빛깔과 윤곽이 바뀌어 '신비로운 산'으로 불린다. 깊은 숲과 가파른 계곡이 이어지는 캐츠킬은 과거 원주민의 전설과 유럽 이주민의 이야기들이 겹겹이 쌓여, 자연 풍경 자체가 하나의 설화처럼 느껴지는 공간이다. 워싱턴 어빙의 단편 소설 「립 반 윙클」은 바로 이 산맥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변화무쌍한 자연은 시간의 흐름과 삶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무대로 기능한다.



◀작가 워싱턴 어빙이 살던 집.  
미국 뉴욕 근교의 허드슨강이 내려다 보이는 쉐니 사이드 지역에 있다. 2층 창문 너머로 허드슨강 건너편에 저멀리 캐츠킬 산맥이 아련히 보인다.

◀아래층에 있는 이 방이 집필실이다.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단편 소설을 읽어 봅시다.

## 립 반 윙클

-작가 워싱턴 어빙의 단편 소설

허드슨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본 사람이면 누구나 캐츠킬 산맥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때에 따라 빛깔과 모양이 바뀌곤 한다. 꿈결 같은 이 산의 기슭에 아련하게 연기를 피워 올리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 허름한 집에 립 반 윙클이라는 아주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립은 용감한 군인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크리스티나 요새 공격에도 참가한 립 반 윙클 가문의 자손이었다. 그러나 립 반 윙클 본인은 조상들의 군인다운 성격은 조금도 이어받지 않았다.

립은 아주 정직하고 착했으며, 이웃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그런데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도 언제나 잔소리를 듣기 일쑤였다. 아내는 남편을 보기만 하면 바가지를 긁었다.

그러나 마을 아주머니 사이에선 펍 인기가 좋았다. 입을 모아 립의 아내가 나쁘다고 했다. 아이들도 립이 나타나면 좋아서 왁자지껄 떠들어댔다. 립은 아이들과 어울려 함께 놀아주고 장난감을 만들어 주며 연 띄우기나 구슬놀이를 하며 옛날 이야기도 해주었다. 마을 개들조차 립에게 짖어대는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립은 도대체 돈을 버는 일을 싫어했다. 그렇다고 게으르다거나 참을성이 없지는 않았다. 무거운 창 같은 낚싯대를 쥐고 축축한 바위 위에 앉아, 물고기 한 마리도 물어 주지 않아도 군소리 없이 하루 종일 낚시질을 했다. 립은 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웃 사람의 부탁이라면 거절하는 적이 없었다. 옥수수 껍질 벗기기, 들담 쌓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들일에는 발벗고 나섰다. 또 마을의 아주머니들이 심부름을 해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해주었다. 말하자면 립은 자기 일 이외에 남의 일이라면 즐겨 했다. 하지만 자기 가정이나 발일이 라면 왜 그런지 잘 할 수가 없었다.

립은 자기 밭일은 늘 헛수고였다. 립의 밭에서는 이상하게도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울타리는 언제나 무너져 내렸고, 놀란 소는 도망치다가 양배추밭을 다 짓밟아 놓기 일쑤였다. 같은 잡초라도 탄 밭보다 일찍이 무성해졌다. 또 밭에서 무슨 일이라도 할라치면 꼭 비가 내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물려받은 토지는 그가 맡고부터 야금야금 줄어들어 이제는 겨우 약간의 옥수수밭과 감자밭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립은 행복하고 어수룩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몇 푼을 벌기 위해 일하기보다는 그냥 손쉽게 얻어먹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내버려두면 아무 불평 없이 휘파람을 불면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내는 끊임없이 그의 귀에다 바짝 대고 그가 게으름뱅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면 립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집을 뛰쳐나갔다. 그 밖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집에서 쫓겨 나온 립은 언제나 마을의 만물박사와 게으름뱅이들이 모여드는 데로 가서 마음을 위로하곤 했다. 립이 이들 속에 한몫 끼어 좀 쉬고 있으면 이곳까지 아내가 쫓아오곤 했다.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조차 립을 쫓아 내야 했다. 불쌍한 립은 마침내 기운이 다 빠지고 말았다. 밭일이나 아내의 바가지지를 피하기 위해 엽총을 들고 숲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숲 속에서 나무 등걸에 앉아 주머니에 들어 있는 음식을 꺼내서는 강아지 울프와 함께 먹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여느 때처럼 립은 캐츠킬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갔다. 그날 오후 늦게 아주 지쳐서 절벽 위에 푸른 풀로 덮인 언덕에 벌렁 누웠다. 멀리 넓은 허드슨 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게 보였다.

점점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마을에 닿기 전에 캄캄해질 것 같고, 또 아내가 바가지지를 긁을 것 같아 저절로 긴 한숨이 새어 나왔다. 립이 막 산을 내려가려 할 때였다. 어디선가 멀리서 "립 반 윙클! 립 반 윙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뭔가 잘못 들은 것이겠지 하고 다시 내려가려 하는데 역시 똑같이 부르는 소리가 조용한 저녁 공기를 울렸다. "립 반 윙클! 립 반 윙클!" 울프는 등을 세우고 낮게 짓으며 바짝 그에게 붙어서 무서운

듯 아래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립도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뭔가 섬뜩한 기분이었다. 골짜기 아래에서 이상한 사람이 무거워 보이는 물건을 어깨에 짊어지고 천천히 바위를 넘어오는 것이 보였다. 여간해서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산에서 사람의 모습을 보자 립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는가 싶어 도와주려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립은 다시 놀랐다. 그 사람은 키가 작고 단단한 몸집이었다. 머리털이 헝클어지고 흰털이 섞인 턱수염을 하고 있었다. 입고 있는 옷은 옛날 네덜란드식 차림이었다. 허리를 띠로 묶고 형겁으로 된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어깨에 단단해 보이는 작은 통을 메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술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립을 향해 가까이 와 짐을 좀 받아 달라는 몸짓을 했다. 립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약간 겁이 났다. 하지만 여느 때처럼 선뜻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교대로 짐을 운반하면서 시냇물이 말라 버린 골짜기 바닥 좁은 계곡을 함께 기어 올라갔다. 골짜기를 빠져 나가자 땅이 푹 들어가 오목한 지대에 이르렀다. 한복판 평평한 곳에 괴상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모여 불링과 비슷한 나인 핀즈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도 기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얼굴 생김도 묘했다. 립은 이 지방이 처음 개척될 무렵 네덜란드 풍경화를 보는 듯했다.

그런데 모두가 나인 핀즈 놀이를 하면서도 아주 무뚝뚝한 얼굴로 시무룩하게 말이 없었다. 아직까지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노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 공이 구르는 소리는 마치 천둥이 치는 소리 같았다. 립 일행이 가까이 가자 모두들 갑자기 놀이를 그만두고 마치 동상처럼 서서 언짢은 멍한 얼굴로 노려봤다. 립은 무릎이 떨렸다. 그들은 립에게 술을 따르도록 눈짓했다. 립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들은 잠자코 술을 들이키고는 다시 놀이를 시작했다.

차츰 립도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립은 슬쩍 술을 입에 대보았다. 그런데 맛이 정말 좋았다. 태어날 때부터 술을 좋아했던 립은 또 마시고 싶었다.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또 한 모금을 마시고 싶어 연거푸 마셨다. 마침내 눈이 빙빙 돌았다. 어느새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눈을 뜨자 립은 골짜기에서 처음 노인을 발견한 그 푸른 언덕에 누워 있었다. 어느새 눈부시게 해가 비치는 아침이 아닌가!

"설마, 밤새 여기서 잔 것은 아니겠지?"

립은 잠들기 전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술통을 진 낫선 노인네, 나인 핀즈 놀이를 하던 그 슬픈 듯한 사람들, 그 술병 오, 그 술! 그 몹쓸 술.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면 좋담?"

립은 들고 왔던 총을 찾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번쩍번쩍 잘 기름칠이 되어 있던 자기 엽총 대신 낡은 총이 있을 뿐이었다. 울프도 보이지 않았다. 립은 휘파람을 불며 "울프! 울프!" 하고 불러 봤으나 소용이 없었다.

립은 엿저녁 사람들이 놀던 곳에 다시 한 번 가서 누구든 만나면 개와 총을 돌려 달라고 하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막상 일어서 보니까 어쩐지 몸의 마디마디가 뻑적지근하고 힘이 없었다. 립은 배도 많이 고팠다. 개와 총을 단념하기가 아까웠고 아내를 만나는 것도 두려웠다. 그러나 이 산중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흔들고 녹슨 엽총을 어깨에 멘 뒤 쓸쓸히 집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마을에 내려가자 아는 사람을 하나도 만날 수 없었다. 모두 낮설었다. 어찌 된 일일까. 사람들이 모두 다 약속이나 한 듯 놀란 표정으로 립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립이 자신의 턱을 만져 보니 이것이 웬일일까. 그의 턱수염이 한자나 길게 자라 있지 않은가!

모두 마법에 걸린 것 같았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어제 나간 고향 마을이다. 저기 캐츠킨 산맥이 솟아 있다. 앞에는 은빛 허드슨강이 흐른다. 어느 산이건 어느 골짜기이건 모두 그대로였다. 립은 어리둥절했다. 엿저녁 술이 머리를 흔들려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립은 간신히 자기 집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지붕은 헐고 창도 부서졌으며 대문은 떨어져 나갔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다. 너무 황량해서 립은 그만 아내를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잊고 큰소리로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 보았다.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었다. 립은 급히 밖으로 나와 전에 자주 다니던 마을의 여인숙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 여인숙도 없었다. 그 대신 '유

니온 호텔'이라고 페인트로 써어 있었다. 립은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립 반 윙클을 모릅니까?"

소리쳐 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내가 정말 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된 건가?'

그 때 삼각 모자를 쓴 노인이 립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립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딴 사람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낫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내 몸을 대신했습니다. 엿저녁까지만 해도 나는 바로 나 자신이었는데, 산에서 실컷 잠자는 동안 그들이 내 총을 바꿔치기 하고 모든 것을 은통 뒤바꾸어 놓았으며 심지어 내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늙은 미치광이의 총을 빼앗아 위험한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소곤댔다. 바로 그때였다. 한 젊은 여인이 사람들을 헤치고 이 턱수염이 덩수룩한 늙은이를 보려고 앞으로 나왔다.

이 여인은 통통하게 살찐 사내아이를 팔에 안고 있었는데, 아이는 이 늙은이의 모습에 놀라 '앙'하고 울어 댔다.

"립, 조용히 해. 바보처럼 울지마. 저 할아버진 나쁜 짓은 안하신단다."

이 아이의 이름, 또 그 어머니의 거동, 그리고 또 그 말투, 그런 것들이 립에게 뭔가 생각을 불러 일으켰다.

"부인, 당신의 이름이 뭐요?" 립이 물었다.

"주디스 가드너예요."

"그럼 당신 아버님의 이름은?"

"불쌍한 제 아버지는 립 반 윙클이라고 했는데, 총을 메고 나가서 벌써 20년 동안 어떻게 되셨는지 한 번도 소식이 없답니다. 개만 돌아왔어요. 총으로 자살을 하셨는지 원주민에게 잡혀가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 때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립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는 약간 더듬으며 물었다.

“그럼 당신 모친은 어디 계시오?”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화를 내시면서 발끈하는 통에 혈관이 터지셨지요.”

그 말을 듣고 립은 어쩐지 마음이 놓였다. 정직한 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딸과 아이를 두 팔에 안으며 외쳤다.

“내가 네 아비다!”

사람들은 하루 같은 20년 이야기를 듣고 모두 눈을 크게 떴다. 그 중에는 서로 눈짓을 하며 ‘이런 당치도 않은 일이 있을까?’하고 혀를 내미는 사람도 있었다. 바로 그때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온 피터 반다이크 노인이 말했다. 피터 노인은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마을에서 일어난 희한한 사건과 전해 오는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다.

캐츠킨 산맥에는 옛날부터 기묘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허드슨강과 이 지방을 처음 발견한 헨드릭 허드슨이 자신이 타고 왔던 배의 선원들과 함께 20년마다 나타나서 산 속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간다는 것이다. 허드슨 자신의 모험 발자취를 지켜볼 수 있도록 신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노인의 아버지 역시 이들 허드슨 일행이 옛날 네덜란드 사람의 옷차림을 하고 산의 오목한 곳에서 나인 핀즈를 하는 것을 본 일이 있었고, 노인 자신도 어느 여름날 오후 마치 먼데서 천둥치는 것같이 그들이 공을 굴리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대충 마무리되자 모였던 사람들은 다시 흩어졌다. 립의 딸은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가 함께 살게 되었다. 딸은 살림살이가 잘 정돈된 집에 살고 있었다. 그 남편은 튼튼하고 유쾌한 농사꾼이었다. 립은 이 사나이가 옛날 자기 등에 잘 기어오르던 꼬마 가운데 하나임을 기억했다. 품팔이 밭일을 하며 사는 립의 아들은 자기 일 말고 다른 사람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영락없이 아비와 똑같은 성미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립은 전처럼 산책을 하며 지내는 생활로 돌아갔다. 옛 또래들 몇몇을 금방 찾았지만 이제는 모두 늙어서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벼슬 사귀

고자 하였고, 곧 마을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집에서 별로 할 일도 없고 더구나 아무리 놀고 먹어도 나무랄 사람이 없을 나이였기 때문에 다시 여인숙 대문 벤치에 앉아서 마을의 장로이자 '독립전쟁의 살아있는 역사'로서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이 고장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 아이들까지도 립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물론 그 중에는 립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람의 후예인 노인네들은 거의 모두 립 반 윙클 이야기를 진실로 생각했다. 지금도 여름 오후 캐츠킨 산맥 근방에서 천둥이 쿵쿵거리며 멀리 들려오면 그들은 항상 ‘저 봐, 헨드릭 허드슨과 그 부하들이 나인 핀즈를 하고 있어.’라고 말한다.





1 '배경→등장인물(주인공)→문제 발생(여러 사건)→문제 해결' 구조를 생각하며 아래 질문에 답해 봅시다.

<p><b>• 배경은 어디인가요?</b></p> <p>뉴욕 허드슨강 북쪽에 위치한 캐츠킬 산맥의 산기슭에 아련하게 연기를 피워 올리는 마을이 배경이다.</p>	<p><b>• 립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요?</b></p> <p>아주 정직하고 착한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 친절, 마을 아주머니 사이에선 퍽 인기가 좋았다. 착하고 온순하며 타인에게 친절한 성격이다.</p>	<p><b>• 립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했나요?</b></p> <p>자기 농장은 돌보지 않고 게으른 태도를 보였지만 남의 일은 열심히 부지런히 도와주었다.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었다.</p>
<p><b>• 아내의 바가지를 피해서 주로 어디를 갔나요?</b></p> <p>집에서 쫓겨 나온 립은 언제나 마을의 만물박사와 게으름뱅이들이 모여드는 데로 가서 마음을 위로하곤 했다.</p>	<p><b>• 캐츠킬 산맥에서 립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b></p> <p>아내 잔소리 피해 개 울프와 산에 갔다가 옛 네덜란드인 차림의 노인을 도와주고, 그들이 하는 나인핀즈 놀이 하며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들었다.</p>	<p><b>• 숲속에서 깨어나 보니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b></p> <p>수염이 길게 자라 있고, 개 울프는 사라지고, 엽총 대신 녹슨 총이 있었고, 나인핀즈 하던 원형 극장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p>
<p><b>• 살던 집으로 가보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b></p> <p>집은 폐허가 되어 부서졌고, 아내와 아이들도 없었다.</p>	<p><b>• 마을을 찾아가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b></p> <p>낯선 호텔 앞에서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현실에 충격을 받고 '나는 내가 아닙니다'라고 외치며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딸 주디스를 만나 '내가 네 아버지!'라고 외쳤으나 주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피터 반다이크 노인이 헨드릭 허드슨 선원들의 전설을 설명하며 그의 이야기를 인정했다.</p>	<p><b>• 립은 말년을 어떻게 보냈나요?</b></p> <p>딸 집에서 편안히 지내며 마을 원로로 존경받으며 독립전쟁 전 시대의 산증인으로 젊은이들에게 옛이야기 들려주며 여생을 평화롭게 보냈다.</p>

2 립 반 윙클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추론해 봅시다.

▣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기질을 지닌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남형),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나형), 남을 우선하지만 자신도 챙기는 사람(남나형), 자기를 우선하지만 타인도 배려하는 사람(나남형) 등이 있습니다.

립 반 윙클은 이 중 어떤 유형에 가까울까요? 글에서 근거가 되는 장면을 찾아 모둠원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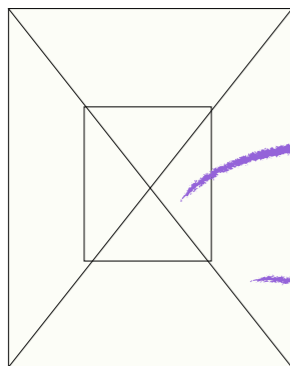
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의 요구와 부탁을 잘 들어주며, 배려심이 크다.</li> <li>• 갈등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li> <li>• 자신의 필요나 감정보다는 타인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li> <li>• 욕심이 적고 물질적 성공보다 관계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편이다.</li> <li>• 단, 자신의 일이나 책임을 뒤로 미루면 생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li> <li>• 타인의 인정에 민감해 스스로의 필요를 잊는 경우도 생긴다.</li> </ul>
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목표 지향적이며 독립심이 강하다.</li> <li>• 자신의 필요와 권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한다.</li> <li>•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li> <li>• 경쟁적인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동기도 높다.</li> <li>• 관계보다 개인의 안정과 성취를 우선할 때가 있다.</li> <li>• 지나치면 타인과 거리가 생기거나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다.</li> </ul>
남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을 돕는 것을 좋아하며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li> <li>• 도움을 주되, 자신의 부담을 조절할 줄 안다.</li> <li>• 책임감이 있어 자기 일과 남의 일을 균형 있게 처리한다.</li> <li>•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한다.</li> <li>•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만족감과 보람을 느낀다.</li> </ul>
나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하다.</li> <li>•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책임감이 높다.</li> <li>• 자기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목표를 계획적으로 실행한다.</li> <li>•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안다.</li> <li>• 기반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돕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려 한다.</li> </ul>

▣ 나는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활동해 보세요.

이렇게 해요



- ① 4명이 한 모둠을 이루어요.
- ② A3 용지에 다음과 같이 칸을 나누어요.



- ③ 내 이름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형을 쓰세요.(남형, 나형 등)
- ④ 모둠 친구 3명이 돌아가며 나의 장점 1가지를 써요.

▣ 모둠 활동 후, 아래 표에 정리해 보세요.

내가 본 나	친구가 본 나
공통점	깨달음

마무리

- 5단원을 마무리 지어 봅시다.
- ▣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오이디푸스와 스팅크스

스핑크스는 얼굴은 여자이고 몸은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을 한 요괴였다. 이 괴물은 그리스의 여신 헤라가 테베 시로 보낸 것이었다. 스팅크스는 테베로 들어가는 길목의 높은 바위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스핑크스는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맞이지 못하면 잡아먹었다. 그러나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테베 시민들은 점점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테베 시민들은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에게 왕이 될 자격과 왕비와 결혼할 권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용감한 사람들이 테베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차례로 나섰다, 모두 스팅크스에게 잡아먹히고 돌아오지 못했다. 여러 해 동안 테베 사람들은 끝없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 중이던 젊은이 오이디푸스가 이 길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테베에서 벌어지는 스팅크스 사건에 대해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스팅크스는 오이디푸스를 불러 세우고 수수께끼를 냈다.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낮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이나?”

오이디푸스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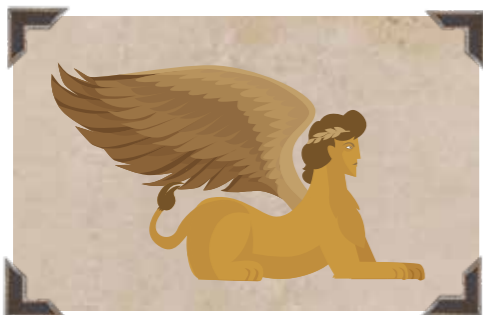
“사람입니다. 아기일 때는 네 발로 기어 다니고, 어른이 되면 두 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 세 발로 걷게 됩니다.”

정답을 들은 스팅크스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핑크스가 사라지자 테베 사람들은 오랜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다. 시민들은 오이디푸스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왕으로 추대했다. 오이디푸스는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테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준 영웅이 되었다.

1 이야기 구조로 ‘오이디푸스와 스팅크스’를 정리하여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등장인물



<스핑크스>

스핑크스는 여자의 얼굴에 몸은 사자처럼 생겼고 날개가 돋친 요괴.



<오이디푸스>

여행 중이었던 젊은이.

배경

그리스 테베 시로 들어가는 길목.

문제 발생

스핑크스가 테베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모두 잡아먹었는데 아무도 정답을 맞히지 못해, 많은 시민이 희생되고 테베는 공포에 빠져 테베 시민들은 더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도시 전체가 침체와 공포의 도시로 변했다.

문제 해결

스핑크스 문제를 모르는 채 여행하던 오이디푸스가 테베로 들어섰는데, 오이디푸스에게 수수께끼를 냈다  
 “아침엔 네 발, 낮엔 두 발, 저녁엔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오이디푸스는 즉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오이디푸스는 비유법을 알아 문제를 해결했다.  
 폭력이나 힘이 아니라 비유법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다.

2 질문의 알맞은 답을 찾아 ✓ 표시를 해 봅시다.

01

사실 이유

오이디푸스가 스팅크스를 물리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스팅크스의 정체를 미리 알고 대비했기 때문
- ② 스팅크스의 공격을 힘으로 막아 냈기 때문에
- ③ 숨어 있다가 스팅크스의 약점을 노렸기 때문에
- ④ 스팅크스에게 테베 시민들을 대신해 협상을 제안했기 때문에
- ✓ ⑤ 스팅크스가 낸 수수께끼의 비유법을 알아채고 해석하여 정답을 맞추었기 때문에

02 테베 시민들이 오이디푸스를 왕으로 추대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인 결과

- ① 스피렁크스가 오이디푸스를 칭찬했기 때문에
- ② 오이디푸스가 테베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 ③ 테베 시민들이 새로운 왕을 선출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 ④ 오이디푸스가 귀족 출신이어서 정치적 정당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 ✓ ⑤ 오이디푸스가 스피렁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테베 시민들에게 평화를 찾아 주었기 때문에

03 오이디푸스가 목숨이 걸린 긴장된 상황에서도 수수께끼를 침착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인가요?

추론 심화

- ① 오이디푸스는 테베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 ② 스피렁크스가 문제를 풀 때까지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 ③ 스피렁크스가 낸 수수께끼가 이미 유명한 문제였기 때문에
- ④ 오이디푸스가 평소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었기 때문에
- ✓ ⑤ 오이디푸스는 위협 상황에서도 언어의 비유법을 알고 이성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04 스피렁크스의 수수께끼는 이야기 전체의 주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유 상징

- ① 자연의 순환과 계절 변화
- ② 사회 제도와 정치 체계의 변동
- ③ 신화 속 괴물들의 다양한 능력
- ④ 신들이 인간에게 내리는 시험의 종류
- ✓ ⑤ 인간이 살아가며 겪는 성장 · 성숙 · 쇠퇴라는 삶의 보편적 단계

05 오이디푸스와 스피렁크스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제

- ① 새로운 도시는 새로운 왕을 필요로 한다.
- ② 강한 힘을 가진 자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 ③ 위험한 존재는 반드시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 ④ 수수께끼를 풀 줄 아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 ✓ ⑤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지혜와 통찰력이 큰 힘을 발휘한다.

03



기원전 470년 그리스 아티카 지역의 도자기에 그려진 오이디푸스와 스피렁크스 모습.

# 6. 주제 학습





주제 학습을 하며 글을 읽고 책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준비

주제 학습 어떻게 할까요?

1 주제: 정의와 사랑

2 정의 여신  
정의의 저울  
공정의 추

3 황새의 심판  
낙랑 공주와  
호동 왕자

4 임방 사또의 지혜  
정의와 공정

5 20년 뒤  
정의와 우정

6 1달러의 가치  
정의와 사랑

7 공평의 추  
사랑의 추  
공정의 추

전시회 이름을 정하고  
초대장과 포스터를  
만들어요.

역할을 나누어 자료를  
조사해서 다양한 책이나  
동영상 등을  
만들어요.

공정의 추, 공평의 추  
사랑의 추  
책을 만들자.

모의 재판을  
해 보자.

모의 재판  
시나리오도  
써 보자.

나는 정의 여신과  
저울과 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작가 인터뷰도  
해 보자

우리 '책 전시회'  
포스터도 만들자.

우리 반 책 전시회  
홍보하는 동영상도  
만들어 보자.

포스터와 초대장에  
장소, 날짜 그리고 또  
무엇이 들어가야 하지?

읽기  
방법

주제 학습 이렇게 읽어요



읽기 전에:

글을 읽기 전에 주제 학습에 대해 생각해 보고 글을 읽어요.



읽으면서:

각 활동의 주제를 생각하며 글을 읽어 보아요.



읽고나서:

주제에 따른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내용을 파악해요.



책 전시회

책 만들기, 모의 재판하기, 작가 인터뷰 동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해요.

활동  
1

주제 학습

- 종합적 사고로 글을 읽고 이해해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

정의의 저울과 공정의 추

황새의 심판

낙랑 공주와 호동 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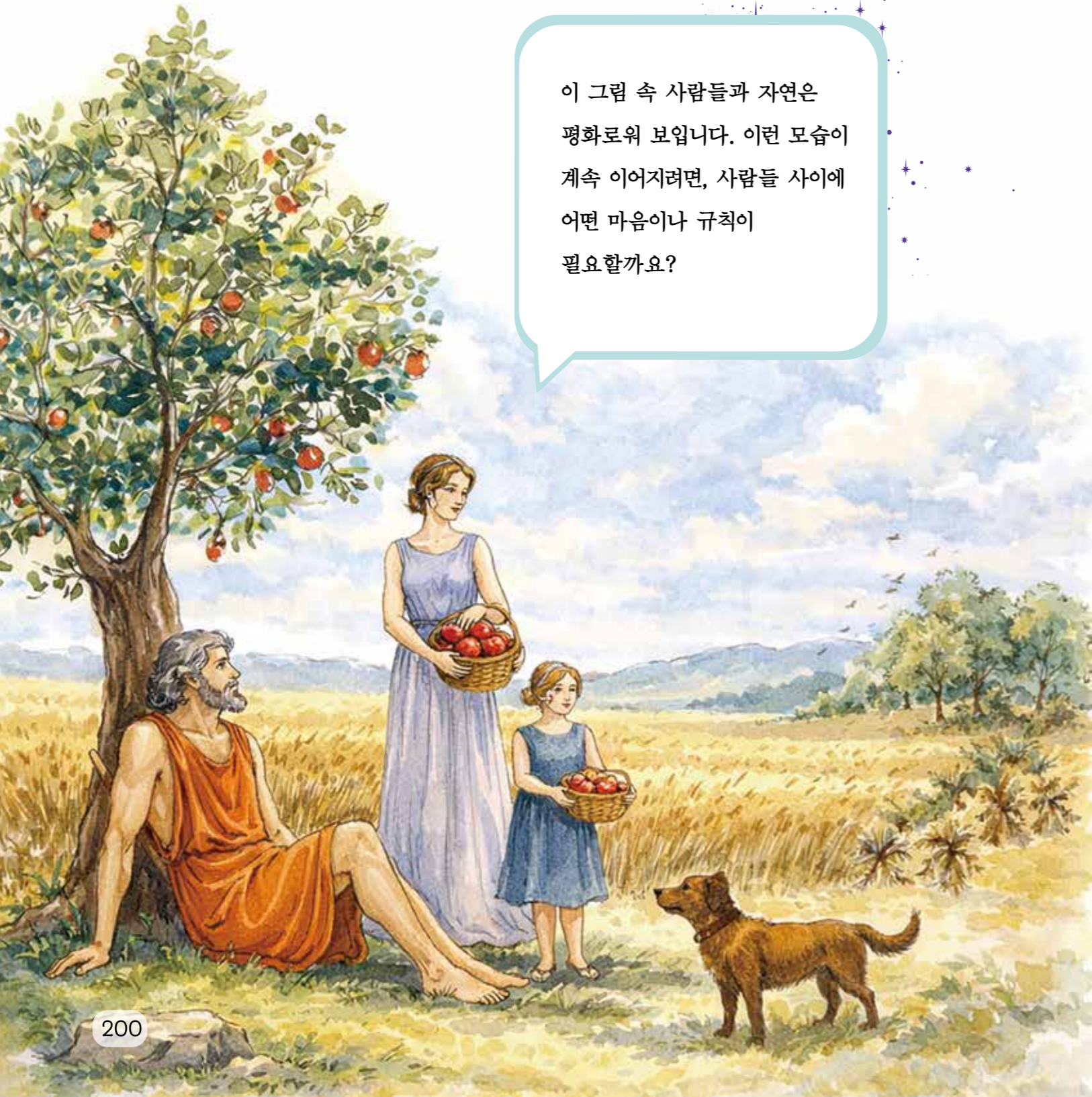


헝가리 부다페스에 있는 상급 법원 건물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그림과 글을 읽어 보고 글의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이 그림 속 사람들과 자연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려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나 규칙이  
필요할까요?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

대지의 여신은 세상이 처음 생겼을 적에 일 년 내내 먹을 것을 풍족히 내려주었다. 어느 곳을 가도 늘 먹을 수 있는 열매와 곡식이 넘쳐났고, 햇볕은 항상 따뜻했으며 바람도 온화했다.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알지 못한 채 걱정 없이 사이 좋게 살아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의 질서가 조금씩 달라졌다. 태양의 움직임이 변하고, 비와 바람의 흐름이 나뉘면서 사계절의 구분이 생겼다. 사람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의 더위를 견디며,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을 대비해야 했다. 사람들을 일 년 내내 곡식을 거둘 수 없게 되자,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 땅을 더 차지하려 했고, 자기 땅을 넓히려다 보니 이웃과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다툼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점점 거칠어졌으며, 그들의 마음은 미움과 질투, 시기심으로 가득 찼다.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를 해치기까지 했다. 인간과 함께 땅에서 살던 신들은 인간의 마음을 바로잡아 보려 했지만, 그 뜻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크게 실망한 신들은 하나둘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나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만은 인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의 저울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려 바로잡으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어떤 신은 그녀의 노력을 비웃기까지 했다.





아스트라이아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정의를 바로 세우려 애쓸수록 인간 세상의 혼란은 더 커졌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녀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의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스트라이아는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기로 했다. 정의 여신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정의가 사라진 세상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 변화하는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제우스는 정의가 사라진 세상은 오래도록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는 정의의 가치를 잊지 않기를 바라며, 아스트라이아가 들고 다녔던 정의의 저울을 밤하늘로 올려보냈다. 이에 하늘에는 정의를 상징하는 천칭자리가 반짝이며 빛나게 되었다. 지금도 밤하늘에 떠 있는 정의의 저울은 세상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묻는다.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지 않고, 공정과 균형을 지키며 정의롭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질문에 답해 봅시다.

❶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는 인간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들고 다녔나요?

➤➤➤ 정의의 저울을 들고 다녔다.

❷ 아스트라이아가 다른 신들과 달리 마지막까지 인간 곁에 남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아스트라이아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며, 인간들이 다시 바르게 살아가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 있었다.

❸ 제우스가 정의의 저울을 하늘로 올려 천칭자리를 만든 것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는 뜻이었나요?

➤➤➤ 제우스는 정의가 사라졌을 때 세상이 혼란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공정과 균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게 하려는 뜻으로 천칭자리를 만들었다.

❹ 이 이야기의 중심 생각을 ‘정의’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 정의가 사라지면 세상이 혼란해지므로, 사람들이 공정과 균형을 지키며 정의롭게 살아가야 함을 전하고 있다.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정의의 저울

테미스는 우주의 법과 질서를 관장하는 정의의 여신이다. 그녀는 황금시대의 정의를 상징하는 아스트라이아와 인간 세계의 정의를 다루는 디케를 낳았다. 이 두 여신은 모두 저울과 칼을 들고 다니며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인간들이 점점 탐욕에 물들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자, 아스트라이아와 디케는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머물 수 없었다. 결국 두 여신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고, 이들의 저울은 12개의 별자리 중 하나인 '천칭자리'로 남아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 이집트 여신 마트의 깃털

이집트에서도 정의는 중요한 가치였다. 태양신 라의 딸인 마트는 진리와 법을 다스리는 정의의 여신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올바르게 살았는지 판단했다.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심장을 저울 위에 올려 마트가 머리에 꽂고 다니던 타조 깃털과 무게를 비교했다. 심장이 깃털과 같은 무게라면 거짓 없이 바르게 산 것이라 여겨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냈고, 깃털보다 무겁다면 죄와 악행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뜻으로 지옥에 보냈다.



▲마트는 머리에 타조의 깃을 꽂고 다닌다.



▲심장과 깃털로 죄의 무게를 재는 이집트 벽화 그림

### 공정의 추

정의의 저울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 힘이 센 사람의 주장이나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말이 정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힘센 쪽이나 특정한 요구에 저울이 기울어질 때이다. 이집트의 마트 여신이 저울의 추로 사용한 깃털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었듯, 공정함의 기준이 되는 추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추가 가볍고, 어떤 사람에게는 추가 무겁게 적용되면 안 된다. 권력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공적이나 과실을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함이다.



▲ 사과의 무게만큼 추를 올려 놓아야 저울이 평형을 이룬다.



▲ 정의의 저울이 평형을 이루려면 공정의 '추'가 필요하다.



질문에 답을 쓰거나 ✓ 표시를 해 봅시다.

01

그리스 신화의 정의 여신들과 이집트의 마트 여신은 모두 저울을 사용합니다. ‘저울과 정의 그리고 공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2~3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

>>> 여신들은 저울을 사용해 사람들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재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저울의 양쪽이 기울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이, 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재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는 점을 상징한다.

02

글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는 추가 가볍고, 어떤 사람에게는 추가 무겁게’ 적용되면 정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신들의 명령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 ② 저울은 원래 물건을 재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 ③ 저울이 너무 낡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④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정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 ✓ ⑤ 기준이 일정하지 않으면 판단 자체가 불공정해지기 때문이다.

03

‘공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같은 기준의 추를 올려 재는 것과 같이 공정이란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한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정의로운 마음이 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와 공정의 저울을 생각하며 ‘황새의 심판’과 ‘낙랑 공주와 호동왕자’를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 봅시다.

황새의 심판

-우리나라 옛이야기

옛날에 피꼬리, 삐꾸기, 따오기가 모여서 서로 자기 목소리가 좋다고 다투고 있었다. 하루는 피꼬리가 제안하였다.

“황새가 슬기롭고 일을 바르게 처리한다. 그를 찾아가서 누구 목소리가 가장 좋은지 가려달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했지만, 따오기는 목소리에 자신이 없었다. 따오기는 그 뒤로 황새를 따라다니며 먹는 것을 살펴보았다.

며칠 있다가, 따오기는 개구리, 우렁이, 두꺼비, 올챙이, 거머리, 구렁이, 물뱀, 찰거머리, 쥐며느리, 딱정벌레, 굼벵이, 지렁이 등을 모아서 붉은 바가지에 보기 좋게 담아서 황새 집으로 가져갔다. 잠을 자던 황새는 따오기 목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밤에 찾아왔으니 무언가 부탁하려고 온 게 틀림없어.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군.’ 황새는 따오기가 가져온 선물에 마음이 호뭇해져서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피꼬리와 삐꾸기, 저 이렇게 셋이서 누구 목소리가 가장 좋은지 겨루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쉽게 들어 줄 수 있는 부탁은 아니구나! 그러나 내 한 번 애써볼 테니 염려 말고 돌아가거라.”

날이 밝자, 세 마리의 새가 모두 황새의 집에 모였다. 먼저, 피꼬리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아름다운 리듬이 물 흐르듯 했다.

“네 소리가 비록 아름답긴 하지만 가벼워서 쓸 데가 없구나.”

다음에 삐꾸기가 목청을 가다듬어 소리를 냈다.

“네 소리가 비록 아름다우나 근심이 많아 슬프기만 하구나.”

삐꾸기도 물러나고 이번에는 따오기가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냈다.

“따오기의 소리가 웅장하니 대장부의 기상이다.”

## 낙랑 공주와 호동 왕자

-우리나라 옛이야기

고구려의 제3대 대무신왕은 북쪽에 자리 잡은 낙랑국을 여러 번 쳐들어갔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낙랑에는 ‘자명고’라는 북이 있었다. 멀리서 적군의 말발굽 소리가 나면 저절로 ‘둥둥’ 울리기 때문에 한밤중에 몰래 적이 쳐들어와도 잠자던 낙랑 군사들이 모두 일어나 전쟁에 대비할 수 있었다. 이런 자명고가 있는 한 낙랑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웠다.

대무신왕은 자나깨나 고구려 땅을 넓힐 생각만 하는데, 아들 호동 왕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길 좋아했다. 아버지는 나라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호동왕자가 못마땅했다.

“고구려를 이끌어 가야 할 왕자가 나라일에 관심이 없으니 걱정이로구나. 저렇게 돌아다닐 바에야 낙랑에 가서 자명고라도 찢고 오면 좋으련만…….”

대무신왕은 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어느 날, 호동은 말을 달려 먼 바닷가에 다다랐다. 마침 낙랑의 왕 최리도 바닷가에 있었다. 최리는 잘생기고 늙름한 청년 호동을 보자, 그가 고구려의 왕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사위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호동도 늘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버지와는 달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최리에게 마음이 끌렸다. 호동은 최리를 따라 낙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낙랑공주를 보는 순간 반하여 백년가약을 맺었다. 그리고 낙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낙랑이 고구려에 쳐들어가기 위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보자 호동



은 정신이 번쩍 났다. ‘자신은 고구려의 대를 이어갈 왕자가 아닌가!’ 호동은 말 못 할 고민을 하다가 결국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낙랑을 떠났다.

공주, 날 용서하십시오. 난 고구려의 왕자 호동입니다. 고구려와 낙랑이 다시 전쟁을 시작해서 정말 가슴 아프요. 당신을 사랑하요. 하지만 나는 고구려를 지켜야 할 왕자요. 나를 사랑한다면 자명고를 찢어 주요. 고구려와 낙랑을 합쳐 큰 나라를 세워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낙랑공주는 편지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너무 놀랍고 두려웠다. 나라를 선택해야 할지 사랑을 선택해야 할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호동이 낙랑을 쳐들어올 날짜가 다가왔고 공주는 마침내 결심했다. 호동과 약속한 날 밤, 낙랑공주는 군사들의 눈을 피해 자명고가 있는 성벽으로 올라갔다. 낙랑공주는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 자명고를 북북 찢었다. 낙랑공주는 찢어진 자명고를 붙잡고 흐느껴 울었다. 나라를 저버리고 부모님을 속인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1 261쪽의 '도움자료 4'의 공정과 정의의 카드로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해요

- 4~6명 모둠을 구성하여 토론해요.
- 공정, 불공정, 정의, 부정의, 부당, 정당 카드를 활용해요.
- 우선 아래 표에 이야기 속에서 각 인물이 선택하고 판단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아래 표에 써 보아요.
- 각 등장인물의 판단과 행동이 정의로운지 공정한지 토론해요.
- 사회자를 정해서 '따오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조용히 카드를 뽑아 책상에 올려 놓고, 토론해요. '낙랑 공주와 호동 왕자'의 경우는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카드를 활용하여 균형잡힌 생각을 찾아가 보아요.
- 토론을 한 다음 등장인물의 판단 기준 분석표를 만들고,
- 낙랑 공주의 선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써 보세요.



판단 기준 분석표 답안은 예시 안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써 넣으세요.

이 이야기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 보세요.

등장인물	이야기 속에서 내린 결정
따오기	이기기 위해 황새에게 선물을 바치고 부당한 도움을 요청함
황새	>>> 따오기에게서 선물을 받고 부당한 심판을 했다.
낙랑 공주	>>> 나라를 선택해야 할지 사랑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사랑을 선택한다.
호동 왕자	>>> 나라를 선택해야 할지 사랑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나라를 선택한다.

이 이야기 속에 각 등장인물의 판단 기준 분석표를 만들어 보세요.

등장인물	정의로운가 ○ △ ×	공정한가 ○ △ ×	위반 사항
따오기	×	×	>>> 뇌물을 받치고 도움을 요청함
황새	×	×	뇌물에 눈이 멀어 판단을 잘못된 공정성 위반.
낙랑 공주	△ 개인의 선택으로 이해	△ 공정성과는 관련이 적음.	>>> 나라에 대한 충성 의무 위반
호동 왕자	△ 정의롭다고 보기 어려움.	× 공정하지 않음.	>>>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결혼하고, 사랑을 이용했다.

낙랑 공주의 선택이 정의·공정·배려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한 문단으로 써 보세요.

>>> 낙랑공주의 선택은 사랑을 따랐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옳은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주는 나라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사랑 때문에 자명고를 찢어 낙랑을 위협에 빠뜨렸다. 또한 나라의 규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는 인간적인 마음도 엿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사랑과 공동체의 책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깊이 생각하게 한다.

▣ ‘황새의 심판’과 ‘낙랑 공주와 호동 왕자’를 읽고 공정함이 왜 중요한지 배운 점을 써 보세요.

>>> 두 이야기에서 모두 인물들이 감정이나 이익 때문에 판단 기준이 흔들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황새는 선물 때문에 공정성을 잃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정의를 무너뜨렸다. 낙랑공주는 사랑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해 비극을 맞았다. 이처럼 판단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는 누군가에게 큰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정의로운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공정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 ‘공정 선언문’을 작성해 보세요.

보기

예: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기준을~  
우리는 ~보다 ~을 우선시 한다.

### 공정 선언문

>>>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감정보다 사실, 이익보다 원칙을 먼저 본다.  
우리는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똑같이 바라본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한 모습’의 모습이다.

활동  
2

### 주제 학습

### 임방 사또의 지혜

얼굴을 가린 죄인 판결하기

● 종합적 사고로 글을 읽고 이해해요.



서울 광화문 경복궁 앞의 해태상



아래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정의의 여신들도 공정한 판단을 위해 눈을 가린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는 벌을 내릴 때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거나, 돈을 받고 죄를 덮어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잘잘못을 정확히 가려 올바른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칼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엄정하게 벌을 내리겠다는 뜻을, 눈을 가린다는 것은 공정한 잣대로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조선 시대에는 여자 죄인의 얼굴을 가린 채 심판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다. 조선 시대 수원 지방을 다스리던 임방이라는 사또가 그러한 풍습 속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펼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사또는 지금의 시장과 비슷한 자리였지만, 당시에는 재판을 맡는 판사 역할도 함께 담당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여자 죄인은 심판을 받을 때 얼굴을 덮개로 가렸다. 정의의 여신처럼 판사가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의 얼굴을 가린 채 판결을 내려야 했던 것이다. 과연 이렇게 하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 이런 풍습을 악이용하여 혹시 죄인을 다른 사람과 바꿔치기할 위험도 있어, 자칫하면 매우 어리석은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방 사또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 공정한 판단을 이루어 냈는지를 보여 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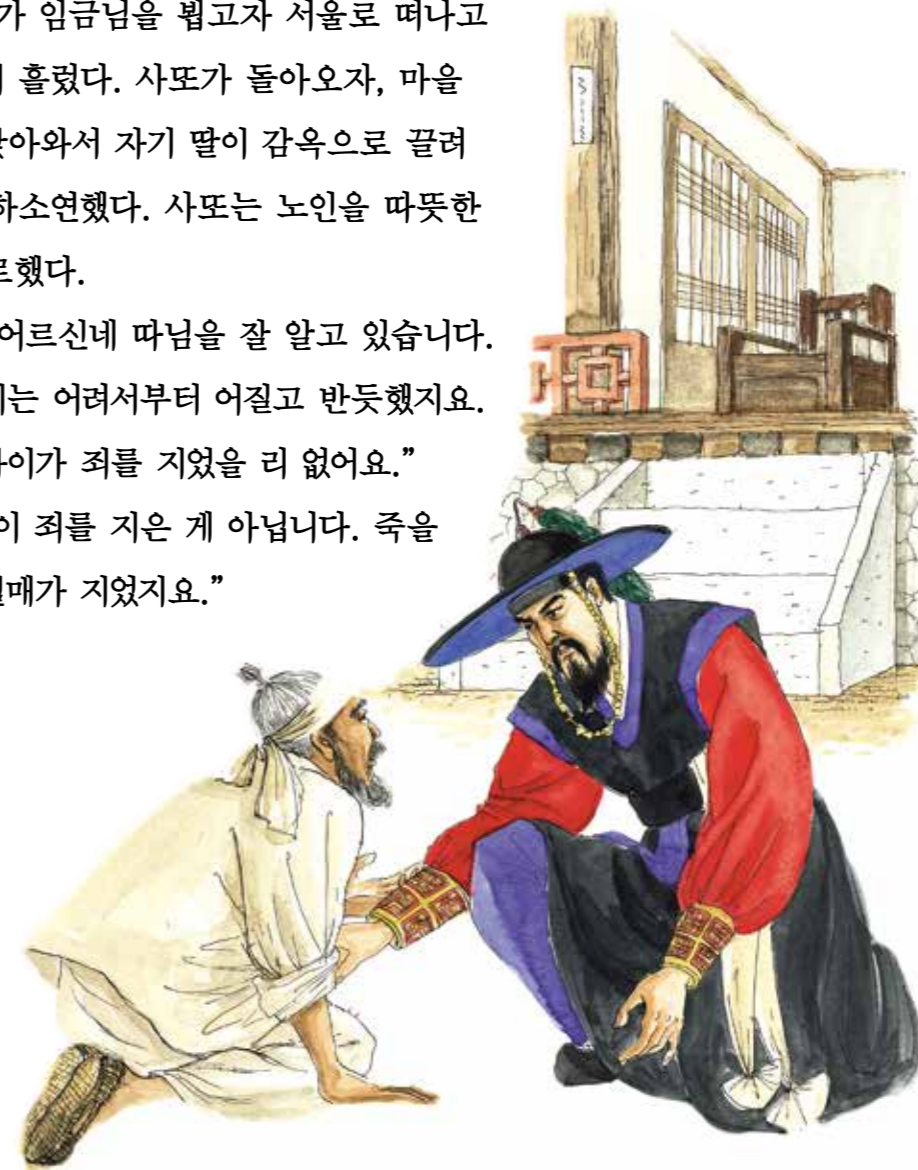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임방 사또의 지혜 얼굴을 가린 죄인 판결하기

임 사또가 임금님을 뵙고자 서울로 떠나고 여러 날이 흘렀다. 사또가 돌아오자, 마을 노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이 감옥으로 끌려갔다고 하소연했다. 사또는 노인을 따뜻한 말로 위로했다.

“나는 어르신네 따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어질고 반듯했지요. 그런 아이가 죄를 지었을 리 없어요.”  
“제 딸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죽을 죄야 월매가 지었지요.”



노인은 들릴 듯 말 듯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 부잣집 할매 월매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이군요. 이번에는 무슨 짓을 했답니까?”

“여러 해 동안 월매는 모든 사람을 속여 왔지요. 속인 것이 들통날 때마다,

그 할매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웠어요.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집의 집사에게 죄를 씌웠지요. 결국 그 집사는 대신 죄를 받고 죽었어요. 치수를 속여서 옷감을 팔다가 걸렸을 때는 자기 가게의 점원에게 죄를 덮어씌웠지요. 그래서 그 점원이 대신 곤장을 맞았고요. 그 뒤에도 똑같은 일이 여러 번 되풀이 되었어요.”



“노인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매는 너무나 영리해서 잡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번에 증거를 찾아 내서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월매를 잡아서 일생 동안 감옥살이를 시키라는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또 나리, 바로 그 일 때문에 제 딸이 죽게 되었어요. 요즈음 가뭄 때문에 저희는 농사를 망쳤어요. 우리는 굶어죽지 않으려고 딸아이를 월매네 집에서 종살이를 시켰지요. 그런데 바로 어제 도깨비 같은 월매가 사람을 써서 사또께서 어명을 받들고 온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대신 감옥에 가라고 했답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자가 감옥에 갈 때는 얼굴을 꼭 가리고 덮개를 쓰는 것을 말입니다. 덮개를 쓰면 누구도 월매의 옷으로 갈아입은 제 딸을 알아볼 수 없지요.”

“그러면 따님이 월매의 말을 듣지 말아야지요.”

“월매가 저를 위협했습니다. 딸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나를 감옥에 처넣겠다고요. 내가 자기 집에서 금덩이를 훔쳤다고 거짓 고발하겠다고요. 나를 구하려고 딸은 월매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또 나리, 제발 제 딸을 살려 주십시오.”

사또 임방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니 나지막이 딸을 꺼냈다.

“어렵겠는데요. 여자 죄인이 얼굴을 가리고 덮개를 쓰는 것은 오랜 관례이니 이를 깰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또 나리! 제 말은…….”

마을 노인은 가슴이 떨려 말도 잇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말씀 마십시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리게 마련입니다. 돌아가세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순식간에 소문이 수원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사또가 불쌍한 소녀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사또를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또가 뇌물을 받고 월매 대신 어린 소녀를 감옥에 보내려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월매의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소녀가 덮개를 쓰고 동헌 앞마당에 나타났다. 소녀 옆에는 소녀의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은 월매가 덮개를 쓰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여자 주인이 어디를 가던 하녀가 따라다녔다. 심지어 재판관을 받으러 가는 날에도 하녀가 따라다녔는데 월매가 이를 악용한 것이다. 사또 임방은 월매의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소녀에게 물었다.



“네가 월매냐?”

“네, 맞습니다.”

소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월매가 얼른 대답했다.

“월매야, 너는 가족이 없질 않느냐? 네가 감옥살이를 하면 네 집이며 재산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제 종년이 관리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누더기 옷을 입은 월매가 다급하게 대답했다.

“그건 안 될 말이지. 50년 동안 월매는 죄를 지은 적이 없었다. 월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사해 보면 월매 주변 사람들의 잘못이었다. 이번에도 네 종년의 잘못임을 내가 안다. 그리 임금님께 고하겠다. 여봐라! 누더기를 입은 종년을 월매 대신 감옥에 처넣어라!”

사또의 명령에 따라 월매의 비단 옷을 입은 소녀가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은 월매가 끌려가게 되었다. 월매는 기겁을 하여 울부짖었다.

“잠깐만요! 제가 진짜 월매예요. 비단 옷을 입은 저 애가 종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찌 종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사또 임방은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여러분! 종이 비단 옷 입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또!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일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는 기뻐서 소리쳤다. 사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종을 어두운 감옥에 처넣고 햇빛을 못 보게 하여라.”



누더기 옷을 입은 월매가 감옥으로 끌려가자, 사또는 비단 옷을 입은 소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월매야, 이제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어질게 살도록 하여라. 집에 돌아가면, 많은 재산을 ……”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 ❖ 사또는 비단 옷을 입은 소녀에게 월매의 재산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그 후, 노인의 딸은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물어뜯는다는 상상의 동물, 우리 나라의 정의의 상징인 해태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태상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정의를 우리의 마음을 자라게 하고, 정의가 이 사회를 밝게 비추게 하고, 정의가 이 땅을 지배할 수 있게 하라.

1 이야기 구조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도로 정리해 봅시다.



1 발단

**억울한 노인과 사또의 귀환**  
 임방 사또가 임금님을 뵙고 서울에서 돌아오자, 마을의 한 노인이 찾아와 딸이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다고 하소연한다. 사또는 그 딸이 어려서부터 어질고 착한 아이였음을 알고 있어, 이상하게 여겼다.

2 전개

**월매의 악행과 노인의 사연**  
 노인은 월매가 그동안 죄를 저질러 놓고, 늘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워 왔다고 사또에게 고발한다. 게다가 이번에도 월매가 자기 딸에게 옷을 바꿔 입혀 대신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사또는 겉으로는 노인을 냉정하게 돌려보냈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3 위기

**가짜 월매와 진짜 월매의 등장**  
 다음 날, 비단옷을 입은 소녀와 누더기를 입은 월매가 둘 다 얼굴을 가린 채 재판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당시 여자 죄인은 반드시 얼굴을 가리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진짜 월매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보이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4 절정

**사또의 지혜로운 판결**  
 사또는 월매에게 네가 감옥에 가면 가족도 없는 너의 재산을 누가 관리할 거냐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러자 다급해진 월매가 ‘종인 제가 재산을 다 관리할 거’라고 답한다. 사또가 그동안 월매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니 그럴 수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이번에도 종의 짓이 틀림없으니, 빨리 저 종을 빨리 감옥에 가두라고 했다. 그러자 월매가 당황해 “제가 진짜 월매예요!”라고 고백하며 정체가 밝혀진다.

5 결말

**정의 실현**  
 월매는 잡혀가고, 노인의 딸은 무사히 풀려났다.



선택 과제

2 다음과 같은 뒷이야기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사또는 비단 옷을 입은 소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월매야, 이제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어질게 살도록 하여라. 집에 돌아가면, 많은 재산을 아끼지만 말고 이웃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노인의 딸은 집에 돌아와 월매의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무엇에 대해 토론할까요?

사또는 진짜 월매를 감옥에 가두고, 그동안에 지은 죄를 살살히 밝혀서 합당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월매의 재산에 대해서 노인의 딸에게 이웃과 불쌍한 사람에게 베풀도록 했습니다. 사또의 이 판단은 정당한 판단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 정당한 방법일까요? 토론해 보세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공정함은 어떤 원칙을 지켜야 성립하는가’를 생각하며 토론해 보세요.

- ①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공정해짐.
- ② 감정, 소문, 편견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공정해짐.
- ③ 죄보다 과하거나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은 모두의 공정성을 해침.

어떤 방법으로 토론할까?

- ❶ ‘도움자료 4’ 정당, 부당, 정의, 부정의 카드를 활용해서 토론해 보세요.
- ❷ 상대방이 의견을 내면 카드를 제시하면서 ‘○○가 ……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부정의하다) 왜냐하면 (근거 제시)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방식을 지키며 토론을 진행해 보세요.

공정, 불공정, 정의, 부정의, 부당, 정당

활동 3

주제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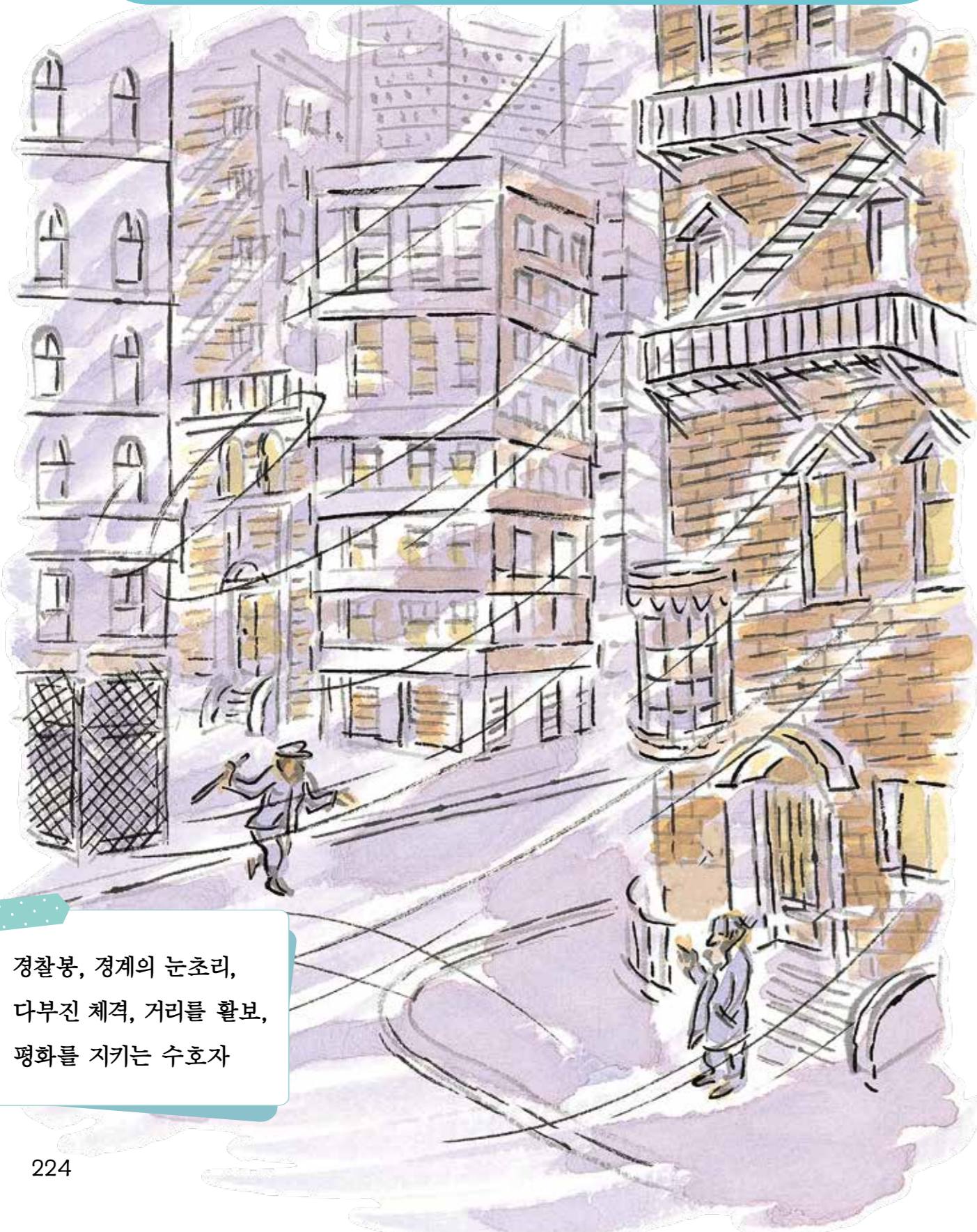
20년 뒤

- 종합적 사고로 글을 읽고 이해해요.





그림의 분위기와 낱말만을 읽고 글의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경찰봉, 경계의 눈초리,  
다부진 체격, 거리를 활보,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



‘정의와 우정’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20년 뒤

-오 헨리

경관 한 명이 거리에 나타난다. 걸음걸이에 힘이 들어가 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 습관일 뿐이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이제 겨우 밤 10시다. 쌀쌀한 바람이 비를 머금고 세차게 분다. 거리에는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

경관은 잼싸게 경찰봉을 빙빙 돌리며 집집마다 문을 살피고, 이따금 스산한 거리를 경계의 눈초리로 둘러본다. 다부진 체격에 어깨를 펴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는 마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 같다.

이 지역은 일찍 문을 닫는 편이다. 이 시간쯤에는 작은 가게나 밤새 영업하는 간식당의 불빛만 보일 뿐, 대부분의 사무실 건물은 이미 불을 끈 지 오래다. 갑자기 경관이 걸음을 늦춘다. 어둠 속에 어떤 남자가 철물점의 문 앞에 기대어 서 있다. 경관이 다가가자, 그 남자는 경관에게 안심하라는 듯 말을 건넨다.

“수고가 많습니다, 경관 양반. 난 여기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20년 전에 한 약속 때문이지요.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정말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아주 오래 전에 이 자리에는 식당이 있었지요. ‘빅 조 브래디’ 식당이라고…….”

“5년 전까지 있었어요. 그 즈음에 헐렸지요.”

경관이 말한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초조한지 계속 서성거린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환하게 드러난다. 창백한 얼굴에 턱은 뾰족하고 눈이 날카롭다. 오른쪽 눈썹 위에는 상처 자국이 희끗하게 남아있다. 넥타이핀에 달린 큼직한 다이아몬드가 좀 유별나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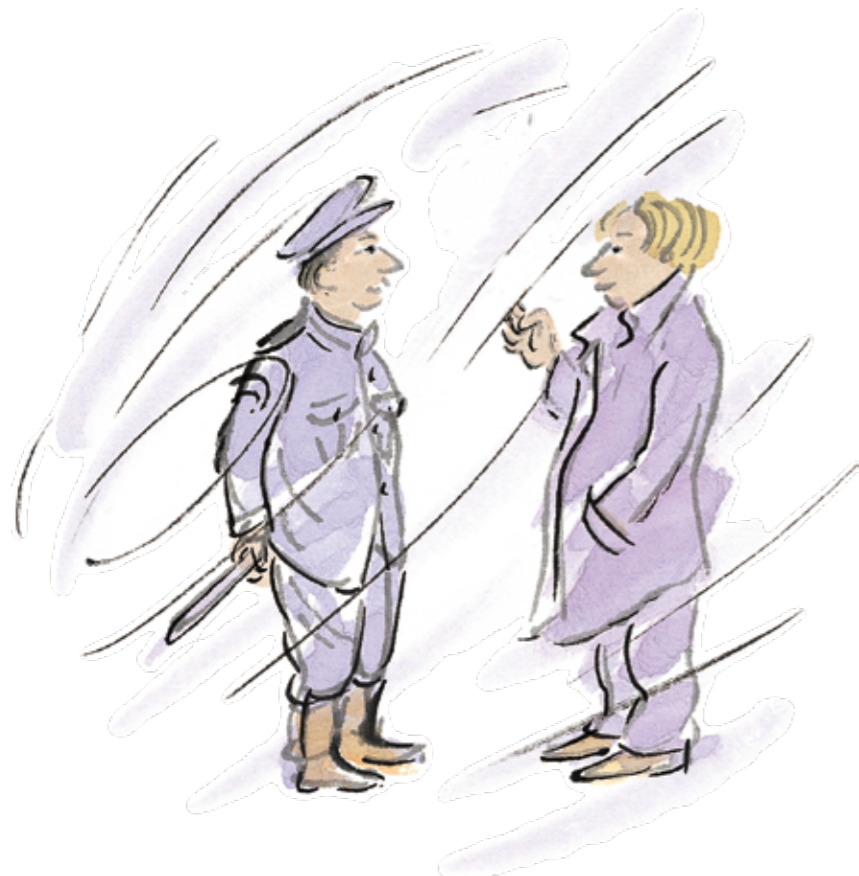
“20년 전 오늘 밤 일이었지요.”

남자가 다시 말을 꺼낸다.

“나는 여기에 있었던 ‘빅 조 브래디’ 식당에서 지미 웰스와 식사를 했지요. 나 하고 지미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좋은 친구였어요. 그와 나는 여기 뉴욕에서 친형제처럼 자랐어요. 그때 난 열여덟 살이었고, 지미는 스무 살이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지요. 다음날 나는 푸른 꿈을 안고 서부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지요. 지미와 함께 떠날 수는 없었어요. 지미한테는 오직 뉴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 밤 약속을 했습니다. 설령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꼭 20년 뒤 이 날 이 시간에 여기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입니다. 20년 뒤에는 서로가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인생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꽤 재미있는 얘기로군요. 그래도 다시 만나자는 약속치고는 너무 긴 것 같네요. 선생이 떠난 뒤, 그 친구 소식은 들었나요?”

경관이 묻는다.



“물론이죠. 한참 동안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지요. 하지만 1년인가 2년이 지나자 소식이 그만 끊어졌어요. 경찰 양반도 잘 알겠지만, 서부에는 할 일도 많고, 난 꽤나 바쁘게 뛰어 다녔으니까요. 그렇지만 지미가 살아 있기만 하다면 나를 만나려고 오늘 반드시 여기로 올 겁니다. 그 친구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의리가 있는 친구거든요. 결코 잊을 리가 없어요. 난 오늘 밤 여기 이 자리에 서있기 위해 천 마일이나 멀리서 달려왔지만, 그 친구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지요.”

그 남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박힌 고급 시계를 꺼낸다.

“10시 3분 전이군요.”

그가 시간을 말한다.

“우리가 이 식당 문 앞에서 헤어진 시간이 꼭 10시였지요.”

“선생은 서부에서 꽤나 성공한 것 같군요.”

경관이 묻는다.

“맞아요! 지미가 내 절반만이라도 성공했다면 좋겠습니다. 그 녀석은 꾸준한 성격이거든요. 좋은 사람이지요. 난 큰돈을 벌려고 거친 놈들과 싸우며 지냈지요.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판에 박힌 생활을 하지만, 서부는 사람들을 아주 날카롭게 만들지요.”

경관은 경찰봉을 빙빙 돌리면서 두어 걸음 걸어가며 말한다.

“난 이제 그만 가 봐야겠습니다. 당신 친구가 틀림없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확히 10시까지만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 그럴 수야 없지요!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야지요. 지미가 어디에서든 살아만 있다면, 그는 꼭 이 곳으로 올 겁니다. 잘 가시오, 경관 양반!”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고, 경관은 다시 문단속을 하면서 걸어간다. 차가운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바람이 아까보다 더 세차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 몇몇은 묵묵히 옷깃을 세우고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총총걸음으로 사라진다.



그 남자는 울지 안 울지 알 수 없는 옛 친구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천 마일이나 달려와 철물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20분 쯤 뒤, 기다란 외투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옷깃을 귀까지 바짝 올려 세우고 길 맞은편에서 급히 건너온다. 그는 곧장 철물점 앞에 서있는 남자한테 간다.

“밥? 자네 맞지?”

확신에 찬 목소리다.

“지미? 너 지미 웰스구나.”

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소리친다.

“오, 이런 세상에!”

방금 온 남자는 소리를 지르며 밥의 두 손을 꼭 잡는다.

“밥, 정말 운명적이군. 난 자네가 살아만 있다면 틀림없이 올 줄 알았어. 옛날 그 식당은 이제 없어졌네. 20년이나 지났으니 없어질 만도 하지. 그 식당에서 다시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참, 서부에서는 어땠어? 이 친구야!”

“멋졌지.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얻었다네. 그런데 지미 넌 무척 변한 것 같아. 키도 부쩍 더 큰 것 같고. 응?”

“아, 난 스무 살이 지나서도 조금씩 키가 크더군.”

“뉴욕에선 잘 지내고 있었던 거야, 지미?”

“그럭저럭. 지금은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지. 자, 가자고 밥. 내가 잘 아는 집에 가서 우리 그 동안 나누지 못한 얘기나 밤새도록 하자고!”

둘은 서로 팔을 끼고 거리를 걷는다. 밥은 서부에서 성공한 얘기를 자랑하듯 늘어놓는다. 키 큰 남자는 외투 깃을 올린 채 밥의 얘기를 흥미 있게 듣는다. 약국이 있는 길모퉁이를 돌자, 전등불이 환하다. 눈부신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 얼굴을 쳐다본다. 서부에서 온 남자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팔짱을 껴던 팔을 뿌리친다.



“넌 지미가 아니잖아! 20년이 긴 세월이긴 하지만, 높은 코가 납작 코로 바뀔 만큼 길진 않아!”

“그 정도 시간이면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바뀌기는 하지.”



키 큰 사나이가 텅명스럽게 대꾸한다.

“미안하지만 넌 벌써 10분 전에 체포된 거야. 시카고 경찰에서 네가 이쪽으로 갔을지 모른다고 전보를 보냈거든. 얌전하게 따라오겠지? 모든 게 이미 끝났어. 아 참! 경찰서에 가기 전에 너한테 꼭 전해 줄 편지가 있다. 자, 지금 여기서 읽도록 해. 순찰 중이던 경관 지미가 주더군!”

밥은 건네 받은 조그만 종이 쪽지를 폈다. 그 편지를 다 읽을 무렵, 그의 손은 떨리고 있다. 편지의 내용은 찝박하다.

밥, 나는 약속 시간에 그 곳에 갔었네. 하지만 건너편에서 서성이던 자네가 몸을 돌렸을 때 가로등의 불빛에 자네 얼굴을 보게 되었지. 깜짝 놀랐었네. 자네가 시카고 경찰이 찾고 있는 범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네. 차마 내 손으로 자네를 체포할 수는 없었지. 그래서 경찰서로 돌아와 사복 경관에게 이 일을 부탁한 거라네. 나는 경찰관이 되었다네. -지미



1 이야기 구조로 ‘20년 뒤’를 정리하여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발단** **우정의 시작, 오래된 약속의 가치**  
 >>> 경관이 거리 순찰 중, 한 남자가 20년 전 약속한 친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됨.

**전개** **우정과 믿음**  
 >>> 남자는 친구 지미를 신뢰하며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함.

**위기** **정의와 우정의 갈등이 시작**  
 >>> 친구라는 남자가 등장해 함께 걸어가나, 밝은 곳에서 보니 낯선 사람임을 알아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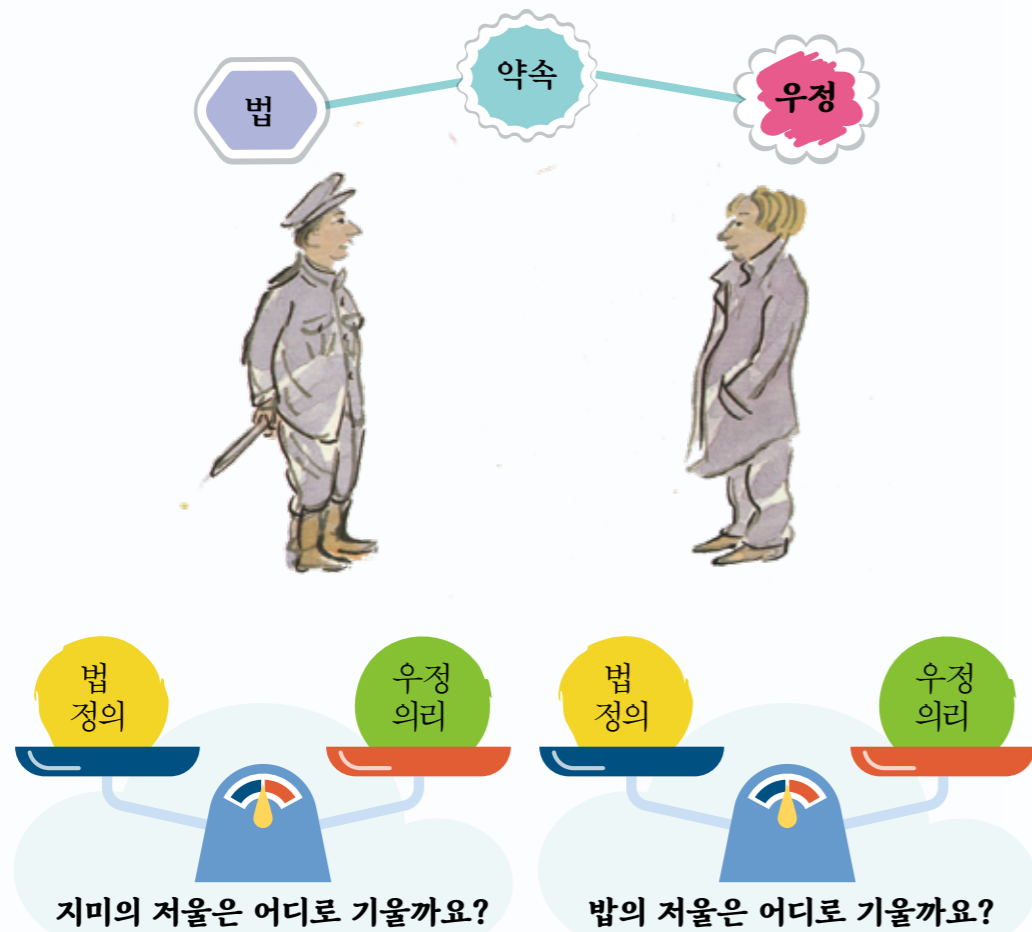
**절정** **정의가 우정보다 우선되지만, 우정도 저버리지 않은 아픈 정의**  
 >>> 체포되는 순간, 밥은 경관 지미의 편지를 읽고 친구가 자신을 직접 잡지 못한 사정을 알게 됨.

**결말** **정의를 해치지 않는 진정한 우정**  
 >>> 지미는 우정을 저버리지도 않고 정의를 포기하지도 않은 선택을 함. 대신 다른 경관에게 부탁해서 체포함.

2 물음에 답해 봅시다.

01

『20년 뒤』에서 다루고 있는 ‘법과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지미와 밥은 각각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나요?



지미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나요?

>>> 지미는 법과 정의를 중요시 여겼다.

밥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나요?

>>> 밥은 우정과 의리를 중요시 여겼다.

02

지미는 어느 순간에 가장 큰 갈등을 느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지미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옛 친구 밥의 얼굴을 보고, 그가 수배범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순간 가장 큰 갈등을 느꼈다. 친구를 정말 만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경찰로서의 임무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03

지미는 왜 직접 친구를 체포하지 않고 다른 경찰에게 부탁했을까요?

>>> 지미는 친구를 체포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직접 체포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경찰의 책임은 포기할 수 없어서 다른 경찰에게 부탁해 자신의 의무는 다하려고 했다.

04

지미는 우정과 정의 중 어느 가치를 중요시 했나요? 글의 장면을 근거로 말해 보세요.

>>> 지미는 결국 정의를 더 중요시 여겼다. 친구를 만나러 갔지만 밥이 수배범임을 알자 그를 놓아줄 수 없었고, 직접 체포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은 아팠지만 경찰로서 법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경찰에게 체포를 맡겼기 때문이다.

05

만약 내가 경찰인 지미라면 밥을 체포할까요? 아니면 체포하지 않을까요? 의사 결정을 해서 ✓ 표시를 해 보세요.

	체포한다	체포하지 않는다
1	체포하지 않으면 경관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밥의 악당들이 찾아와 보복할 것 같아서
2	체포하면 표창을 받기 때문에	밥을 체포하는 일보다 더 이익이 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해서
3	체포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니까	체포하면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할까 봐
4	법대로 해야 정당하니까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체포하지 않아도 법에 걸리지 않으니까
5	경관은 범인을 잡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죄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
6	죄인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인류는 평화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게 만들려고

◆ ✓ 표시한 것을 보고 의사 결정을 하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나는 체포할 것이다. (       )	나는 체포하지 않을 것이다. (       )
>>> 이유는   	



자신의 생각으로 체크 표시하고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을 각자 해 보세요.





배경과 등장인물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 배경

멕시코 국경 지대의 조용하지만 사건이 끊이지 않는 작은 마을과 그 인근 사막 지역

### 등장인물

#### 리틀필드 검사

▶ 법적 정의와 인간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 검사

#### 더웬트 판사

▶ 협박을 받으면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노련한 판사

#### 낸시

▶ 검사의 약혼녀이자 따뜻한 감수성을 가진 인물

#### 멕시코 샘(방울뱀)

▶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고 검사와 판사에게 복수를 결심한 인물

#### 라파엘

▶ 병든 연인을 살리기 위해 위조 화폐를 쓴 멕시코 청년

#### 호야

▶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라파엘의 연인

#### 보안관

▶ 법 절차를 중시하지만 편견을 드러내기도 하는 인물



‘정의와 사랑’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1달러의 가치

-오 헨리

리오그란데 강 가까운 국경 지대의 한적한 마을, 그곳의 지방 법원은 언뜻 보기에 조용했지만, 매일같이 복잡한 정의와 복수가 얽힌 사건 사고가 들려오는 곳이었다.

어느 날 아침, 더웬트 판사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출근해 집무실에 들어섰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과 신문들 사이에서, 낫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관례적으로 봉투를 뜯었고, 곧 표정이 굳어졌다.



판사에게,

당신은 나를 4년 동안 감옥에 넣었소. 그 재판에서 당신은 나를 방울뱀이라 부르며 모욕했지요. 나도 내가 방울뱀인지 아닌지 모르겠소. 그러나 내 안에 무서운 독이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이요. 당신도 딸이 있지요? 내 딸은 내가 감옥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소. 굶주림과 수치심 속에서 조용히 죽었다 하더이다. 그 기분이 어찌나 당신도 느껴보게 해 주겠소. 내 인생을 짓밟은 젊은 검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방울뱀은 언제, 어디서 덤빌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요.

-방울뱀으로부터

판사는 편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에서 받는 협박 편지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 것은 이상하리만치 끈적한 증오가 배어 있었다. 그는 무심한 듯 편지를 책상 한쪽으로 던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불안이 떠올랐다.

이후, 판사는 검찰청으로 향했고, 동료이자 젊은 검사인 리틀필드에게 편지를 건넸다. 리틀필드는 한 손으로 편지를 받으며 읽었다. 익숙한 얼굴로 읽어 내려가던 그의 표정은, 낸시가 언급된 부분에서 단단히 굳어졌다.

“낸시... 그 자가 낸시까지 거론했군요.”

그녀는 판사의 외동딸이자 자신의 약혼녀였다. 둘은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리틀필드는 즉시 사건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법원 서기에게 요청해 수년 전의 기록을 불러왔다. 그는 오래전 살인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던 혼혈 범죄자, ‘멕시코 샘’을 기억해 냈다. 그 자는 재판 중에도 법정을 조롱했고 판사와 검사에게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던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업무는 끊임없이 밀려들었고, 검사 리틀필드는 복잡한 일상 속에서 그 불쾌한 협박의 그림자를 금세 잊었다.

며칠 후, 브라운즈빌 법원에서는 순회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밀수, 사기, 위조, 강도, 무허가 영업 등 국경 근처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건들로 일정이 가득 찼다. 그중 하나가 젊은 멕시코 청년, 라파엘의 위조 화폐 사용 사건이었다. 보안관은 은색의 탁한 광택이 나는 은화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검사에게 건넸다.

“이게 그 위조 은화입니다. 납으로 만든, 가짜 중에서도 아주 싸구려지요.”

검사는 손가락으로 그 은화를 돌려보다, 살짝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다. 무거운 소리가 났다.

“이 정도면 감정인도 필요 없겠군요. 보안관?”

“예, 확실합니다. 녀석은 약국에서 저 동전으로 약을 샀고, 약국 주인과 제가 다 봤습니다.”

보안관은 말을 이었다.

“그 녀석은 자주 수상한 일을 벌이던 자였지만,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지요. 녀석의 여자가 강독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잠복 중에 본 적 있습니다.”

리틀필드는 위조 은화를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고, 사건 서류를 봉투에 정리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아이처럼 밝고 당찬 낸시가 들어왔다.

“법원은 정오부터 쉬잖아요. 우리 오후엔 메추라기 사냥 가기로 했죠?”

검사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저으려다가, 결국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요. 나도 머리 좀 식히고 싶었으니까.”



바로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검은 솔을 두른 여인이 들어섰다. 스페인어로 조용히 인사를 건넨 그녀는 슬픈 눈을 가진 멕시코 여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호야. 라파엘의 연인이었다. 그녀는 간절한 어조로 말을 쏟아냈다. 리틀필드

는 스페인어를 못했기에, 보안관이 간간히 통역을 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병에 걸려 거의 죽어가던 중, 의사가 약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라파엘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약을 사러 갔고, 그녀가 준 위조 은화를 사용한 겁니다.”

검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가 풀려날 수 있다면, 자신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보안관은 중간에 끼어들었다.

“검사님, 멕시코 여자들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뭐든 합니다. 거짓말도, 도둑질도…….”



그 말에 낸시가 불쾌하게 말했다.

“그건 너무 일반화예요. 저 여자는 진심이잖아요.”

검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이건 법의 문제입니다. 감정으로 풀 수 없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판결이 날 겁니다.”

호야는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했다. 보안관이 통역했다.

“검사님, 언젠가 당신도 사랑하는 여자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라파엘을 기억해주세요.”

그녀는 솔을 깊게 뒤집어쓰고 방을 나갔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사냥에 나섰다. 낸시는 밝고 활달했다. 검사는 웃으며 그녀가 사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둘은 잠시 라파엘도, 호야도 잊은 듯 평범한 연인처럼 하루를 보냈다. 돌아오는 길, 멀리서 말을 탄 남자가 보였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낸시가 말했다. 검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응시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인상 깊은 얼굴이니까.”

잠시 후, 그 남자가 말을 몰고 곧장 이쪽으로 달려왔다. 검사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재빨리 마차를 멈췄다.

“멕시코 샘이야. 편지 보낸 방울뱀.”



샘은 윈체스터 장총을 꺼내 조준했다. 총성이 울렸다. 첫 번째 총알은 어깨 사이를 스쳤고, 두 번째는 마차 바퀴를 뚫고 지나갔다. 검사는 낸시를 끌어안고 마차 아래로 피신시켰다.

“말 뒤에 숨어요. 그는 우리가 사정거리에 없다는 걸 알아요.”

“걱정 마세요. 난 무섭지 않아요.”

낸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총알이 낸시의 뺨을 스쳤고, 말 한 마리는 쓰러졌다. 검사는 입술을 꼭 다물고 탄약 상자를 열었다. 그 순간, 그의 너리에 호야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라파엘을 생각하라.’ 그는 위조 은화를 꺼내어 주머니칼로 깎기 시작했다.

“계속 쏘요. 못 맞춰도 좋아요. 그놈을 견제해야 해요.”

낸시는 엎드린 채 조준을 이어갔다. 검사는 조용히 총에 납탄을 장전했다. 샘은 천천히 다가왔다. 방아쇠에 손을 올렸고, 그 순간 검사는 방아쇠를 당겼다. 1달러짜리 납탄이 정확히 샘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말에서 떨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방울뱀은 사라졌다. 다음 날, 법정. 리틀필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본 검사는 이 사건의 공소를 취하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 사라졌  
 기에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오 무렵, 보안관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검시관이 탄환이 뭐냐고 묻더군요. 다들 신기해하더이다.”

검사는 웃으며 말했다.

“증거물 A, 위조 은화. 그걸 깎아 썼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호야가 어디 사는지 알아봐 주세요. 낸시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해요.”



1 이야기 구조에 따라 ‘1달러의 가치’를 정리해 봅시다.

	사건 내용 요약
발단	<b>정의의 냉혹함</b> 판사는 협박 편지를 받고, 젊은 검사 리틀필드도 과거에 단죄한 ‘멕시코 샘’이 복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전개	<b>법의 정의와 인간적인 절박한 사연</b> 검사 리틀필드는 순회 재판 중 위조 화폐 사건을 맡고, 피의자 라파엘과 그의 연인 호야의 사정을 듣게 된다.
위기	<b>생명의 위협과 정의의 무게</b> 검사와 약혼녀 낸시가 사냥을 나갔다가, 협박 편지의 주인공 멕시코 샘이 나타나 총을 겨누고 공격한다.
절정	<b>정의와 사랑의 역전</b> 죽음의 순간 속에서 검사는 위조 은화’를 깎아 납탄으로 만들어 샘을 저격해 쓰러뜨린다.
결말	<b>생명과 사랑을 지키는 정의</b> 검사는 증거가 사라졌다며 라파엘의 공소를 취하하고, 낸시는 호야를 도우려 한다.

2 물음에 답을 쓰거나 ✓ 표시를 해 봅시다.

01

오. 헨리 "1달러의 가치"에서 리틀필드 검사의 '정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감정보다는 법을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 ② 멕시코 샘을 물리친 뒤, 법을 지키는 일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 ③ 위조 범죄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더 강하게 믿게 된다.
- ④ 위조 은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게 된다.
- ✓ 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자, 법적 원칙보다 인간의 생명과 사랑을 고려하는 정의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02

원래는 '증거'로 쓰였어야 할 1달러짜리 은화가, 갑작스러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 원래는 재판에서 범죄를 밝히는 '증거'가 되어야 할 1달러짜리 은화는, 멕시코 샘의 총을 들고 공격해 검사와 낸시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사람을 생명을 지키는 '총알'로 사용되었다. 범죄를 입증할해야 할 동전이 생명을 구하는 1달러 동전으로 쓰였다.



03

제목이 왜 '1달러의 가치'일까요? 1달러의 가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야기의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세요.

>>> 작품에서 1달러짜리 위조 은화는 라파엘의 범죄 증거물로 등장하지만, 절정 부분에서 리틀필드 검사가 이를 주머니칼로 깎아 총알을 만들어 멕시코 샘의 총격을 막아낸다. 이 과정에서 1달러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치를 지니고 있다.

1. 생명을 구한 가치

>>> 가짜 1달러가 리틀필드와 낸시의 목숨을 직접 구한다. 하찮은 물건이 위조 동전 1달러의 가치는 자신과 약혼녀의 목숨을 지켜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2. 정의와 사랑의 반전의 의미

>>> 범죄 증거인 위조 화폐를 없앤 것은 법을 어긴 일이지만, 검사는 '증거물'이 사라졌다며 라파엘 사건을 종결한다. 1달러는 죄의 증거물이자, 생명 구한 1달러이기도 하다. 이 대비를 통해, 진정한 정의는 사랑과 공감을 통해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공평의 추: 매의 심판

삽사리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맞은 편 언덕에서는 하얀 풍산개 한 마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걸어왔다. 삽사리와 풍산개는 오랜 만에 만나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 털이 더 풍성해졌구나.”

“응, 그래. 너도 하얀 털이 반들반들 윤기가 더 나는구나.”

삽사리와 풍산개는 서로 칭찬을 하며 즐거워하며, 그 동안 못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풀밭 위에 앉았다. 그런데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동시에 소리쳤다.

“앗, 고깃덩어리다.”

고기를 사 가지고 가던 사람이 떨어뜨린 것이 틀림없었다.

“크고 먹음직스러운데?”

삽사리가 말하는 사이에 풍산개가 고기를 먹으려 하자,

삽사리가 고기를 가로채며 소리쳤다.

“잠깐! 이 고기는 내가 먼저 발견했어.”

풍산개도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내가 먼저 입을 대었으니 이 고기는 내 거야.”

삽사리와 풍산개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끝내는

서로 물어뜯으며 싸움을 했다. 둘 다 용맹하고 힘이

세서 싸움이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싸우다가는 둘 다 죽을 것 같았다.

삽사리가 풍산개에게 말했다.

“마을 입구 숲대 위에 앉아 있는 매에게

가서 심판을 받자.”



삽사리와 풍산개는 고기를 물고 매를 찾아갔다. 두 마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고깃덩어리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가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숲대 앞에서 누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게야? 이 앞에서 소리쳐 싸우면 하늘에 있는 영혼이 모두 듣기 때문에 둘 다 고깃덩어리도 못 먹고 벌만 받게 될 거야. 조용히 해.”

삽사리와 풍산개가 꼼짝 못하고 가만있자, 매는 땅으로 내려와 고기를 집어 들고 숲대 위로 날아올라갔다. 매는 위엄 있게 말했다.

“서로 이 고깃덩어리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되겠군. 자, 내가 똑같이 나누어 주지.”

삽사리와 풍산개는 반대하지 않고 매의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매는 고기를 둘로 나누었다. 그런데 고깃덩어리 한 쪽은 크고, 다른 한 쪽은 작았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네!”

삽사리와 풍산개가 소리쳤다. 매는 저울로 무게를 잰다. 저울이 약간 한 쪽으로 기울었다. 매는 기울어진 쪽의 고깃덩어리를 뜯어 먹었다.

“자, 다시 재 볼까?”

삽사리와 풍산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울을 쳐다보았다.

“어? 이번에는 작은 덩어리가 더 커졌네! 그럼 다시 똑같이 만들어야지.”

매는 좀 더 큰 쪽을 뜯어 먹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잖아. 이건 정확히 반이 아니로군.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맞지?”

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또 큰 쪽을 뜯어 먹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결국 고기는 한 점도 남지 않았다.

고기를 다 먹은 매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삽사리와 풍산개는 닭 쫓던 개처럼 매가 날아가 버린 하늘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진작 우리 둘이 공평하게 반씩 나누어 먹었으면 되었을 것을……”



## 사랑의 추

사랑을 나누는 사회가 되려면 정의가 먼저 지켜져야 한다. 줄을 서서 버스를 탈 때 우리는 먼저 온 순서대로 타야 질서가 유지되고 모두 정당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누군가가 새치기를 한다면 모두 부당하게 느끼고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정당하지 못하게 새치기하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사회를 만들기가 어렵다. 다음과 같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버스 정거장에 사람들이 우산 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분 만에 버스가 겨우 한 대 왔다. 그런데 줄 맨 뒤에는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가 서 있다.

줄 맨 뒤에 서 있는 할머니가 먼저 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되려면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지 않고 순서대로 탈 것이라는 믿음이 먼저 잡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 먼저

타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양보할 내 자리도 없고, 양보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순서가 지켜져야, 순서가 나에게 돌아온 자리를 노약자나 장애인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자신에게 매우 엄격해야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나아가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



앞서 배운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임방 사또의 재판」, 「20년 뒤」, 「1달러의 가치」를 예로 들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공정함·공평함·사랑의 배려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 정의의 저울과 세 가지 추

-공정의 추, 공평의 추, 사랑의 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의로운 판단과 행동은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함·공평함·사랑의 배려라는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먼저 공정함은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다. 임방 사또의 재판에서 그는 감정보다 사실과 기준을 먼저 세워 판단하려 했다. 만약 공정한 기준 없이 감정에 기대어 판단했다면 월매의 죄는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공정함은 정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공평함은 세워진 기준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는 힘이다. '20년 뒤'에서 지미는 범인이 친구였지만 법의 기준을 흔들지 않았다. 그는 친구를 직접 체포할 수 없어 다른 경관에게 맡겼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공평함의 원칙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배려는 기준 속에서 약자를 살피는 마음이다. '1달러의 가치'에서 검사는 법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라파엘의 사정을 이해하려 했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애인을 살리기 위해 동전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려 했기 때문이다. 배려가 없는 정의는 차가운 규칙에 머물 뿐이다.

이처럼 공정함이 기준을 세우고, 공평함이 그 기준을 모두에게 적용하며, 사랑의 배려가 그 기준을 사람다운 방향으로 이끌 때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 나는 이러한 균형을 지키는 노력이 모여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밑바탕이 된다고 믿는다.



● 정의와 사랑을 주제로 한 문해력 활동을 한 뒤, 전시회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회를 열어 봅시다.

### 주제 학습 활동 계획서

주제																
모둠 이름																
모둠원 이름																
하고 싶은 활동	<input type="checkbox"/> 책 <input type="checkbox"/> 포스터 <input type="checkbox"/> 모의 재판 <input type="checkbox"/> 동영상 기타: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점																
더 알고 싶은 점																
자료 조사 방법	<input type="checkbox"/> 책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인터뷰 <input type="checkbox"/> 기타:															
역할 분담표	<table border="1"> <thead> <tr> <th>역할</th> <th>이름</th> <th>맡은 일</th> </tr> </thead> <tbody> <tr> <td>자료 조사</td> <td></td> <td></td> </tr> <tr> <td>글 작성</td> <td></td> <td></td> </tr> <tr> <td>그림 · 만들기</td> <td></td> <td></td> </tr> <tr> <td>발표</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역할	이름	맡은 일	자료 조사			글 작성			그림 · 만들기			발표		
	역할	이름	맡은 일													
	자료 조사															
	글 작성															
	그림 · 만들기															
발표																
보충하고 싶은 점																

### 초6 문해력

#### 연구 위원

조일영(한국교원대학교)  
정선재(한국교원대학교)

임성만(한국교원대학교)

● 대표 연구 위원

#### 집필 위원

박상윤(경기 삼가초등학교)  
정태선(동화작가)

정근형(경기 창우초등학교)

● 대표 집필 위원

#### 심의 기관

경기도교육청

#### 심의 위원

이동선(상도초)  
조희윤(시화나래초)  
김우람(향산초)

한은정(지축초)  
김성한(솔빛초)  
임순영(인창고)

● 심의위원장

#### 어문 규범 감수

어문 규범 감수 | 성기지 (전. 한글학회)

#### 발행 협조

표지 디자인 | 심대건      삽화 | 송재순, 오유경, 이은천, Chatgpt, 셔터스톡, 편집부  
편집 | 비엘비에듀 편집부      사진 | 셔터스톡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경기도교육감이 2026년 2월 3일 인정 승인을 하였음.

#### 초등학교 초6 문해력

2026년 3월 1일 초판

정가 15,000원

지은이: 박상윤, 정근형, 정태선

발행사: 비엘비에듀(주)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길 50 더케이타워 B동 2층 130

인쇄사: 서강피앤디 경기 파주시 광인사길 189 서강출판빌딩 1층

※ 교과서 관련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분은 교육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전화 1566-8572, 웹사이트 <http://www.textbook114.com> 또는 <http://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 저작권협회(02-2608-2800, <http://www.kolaa.kr>)에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문해력

초6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제조사명:** 비엘비에듀(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2층 130  
**제조국명:** 대한민국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내용 및 개별 구입 문의

비엘비에듀(주) 도서출판 02-730-1901  
cts2021@naver.com www.blbedu.com

수업 자료



www.blbedu.com  
스마트수업자료실  
커뮤니티